

독립기념관과 재외동포재단이 함께하는
역사교육 콘텐츠 보급사업

역사수업을 위한

교수 학습 자료



독립기념관

목 차

I. 재외동포 교육콘텐츠 개발 · 보급사업	5
1. 운영목적 및 방향	
2. 재외동포 교육콘텐츠 구성	
II. 교육콘텐츠를 활용한 수업자료	11
1. 체험형	13
1) 수업계획	
2) 학습지도안	
3) 역사자료 해제	
4) 참고자료	
2. 탐구형	52
1) 교재구성 및 역사자료 탐구활동	
2) 수업계획	
3) 학습지도안	
4) 역사자료 해제	
5) 참고자료	

I. 재외동포 교육콘텐츠 개발 · 보급사업

1. 운영목적 및 방향
2. 재외동포 교육콘텐츠 구성

I. 재외동포 교육콘텐츠 개발 · 보급사업

1. 운영목적 및 방향

독립기념관은 민족의 정체성 함양과 나라사랑 · 평화공존의 역사의식 확산을 위해 국내외 한민족에게 국난극복사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대상과 수준에 맞게 역사를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독립기념관이 역사교육 콘텐츠¹⁾ 개발 · 보급을 추진하게 되었다.

교육 콘텐츠 개발 시 중요하게 고려한 사항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 번째가 소장품을 가지고 있는 독립기념관의 박물관적 특성을 활용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독립기념관은 관람객이 전시된 소장품(역사자료)을 살펴보면서 역사를 배우고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전시물(object) 기반 학습’을 중요시한다. 전문가들이 역사자료를 분석하고 정리한 사실을 교육 참가자에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역사학자처럼 직접 자료를 보면서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을 탐구하고 상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글학교에 보급될 모든 교육 콘텐츠는 학생들이 역사자료를 살펴보는 활동을 중심으로 개발되었다.²⁾

두 번째는 학습자가 재미있게 역사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재미는 어떠한 활동에 대한 결과나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활동 자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몰두하려는 정서상태를 말한다.³⁾ 학습자가 활동에 재미를 느끼게 하는 요소에는 관련성, 친밀감, 만족감, 공동체의식, 주인의식, 기대감, 호기심, 유능감, 자신감, 성취감, 도전성, 창의성, 중독성이 있으며 참여, 팀워크, 과제의 복잡성, 격려와 피드백, 경쟁과 모방, 표현도구, 문화예술활동, 실제적 환경, 시간의 적절성, 과정의 용이성, 과제의 복잡성, IT기반 활동, 통합교과, 문화예술활동, 준비와 연습, 체험활동 같은 조건 하에서 재미가 극대화 된다고 한다.⁴⁾ 교육 콘텐츠 구

1) 교육 콘텐츠란 교육을 목적으로 어떤 소재나 내용에 여러 가지 공정과 가치를 더해 만든 결과물을 의미하며, 주제별 역사수업을 위해 가공된 교사 자료 및 학생 교구재, 기타 진행물품을 일괄적으로 일컫는다.

2) 역사자료는 역사를 연구할 때 필요한 재료로 흔히 사료(史料)라고 한다. 학생 교재에는 1차 사료와 더불어 사료가 만들어진 시대적 배경과 상황, 교사 자료에는 1차 사료 분석내용, 1차 사료를 보충할 수 있는 2차 사료, 교안(학습지도안) 등이 담겨 있다. 1차 사료는 동 시대 또는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직접 보고 듣고 느낀 것을 기록한 편지, 자서전, 사진, 유물 등을 말한다. 2차 사료는 후세 사람들이 작성한 연구나 논문 서적들로 1차 사료를 보충하는 역할을 한다.

3) 흔히 재미와 혼용되어 사용되는 즐거움은 활동에 대한 만족이나 기쁨 같은 특별한 보상을 기대하는 수동적인 정서상태를 말한다.

4) 정준환, 〈PBL에 나타난 재미에 관한 질적 탐구: 3S-Fun〉,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p 83~177.
본 논문에서는 재미가 ‘맥락(context)’, ‘자기목적적(autotelic)’, ‘상호작용(interaction)’이라는 기본적인 전제 속에서 13가지 요소와 14가지 조건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성 시 학생들이 재미있게 역사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가장 고려했던 요소와 조건은 ‘관련성과 주인의식’, ‘참여와 체험활동’ 이다. 미주 한인과 관련이 있는 역사자료나 보편적으로 인간사회에서 중시하는 가치를 다루어 학습자가 속한 사회와의 관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역사학습 활동과 한글학교 학생 간 관계 맺기를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다. 또한 체험활동과 역사자료 탐구를 통해 학생들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인의식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세 번째는 교육 대상과 수준에 맞게 역사를 쉽게 가르치고 배울 수 있도록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다.

한글학교는 정규학교가 아니라 자발적인 한인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교육기관이고 학교마다 학생들의 연령, 학년별 비중, 수업환경 및 여건, 교사 역량 등이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고 콘텐츠 선호도를 파악하기 위해 정규교육과정처럼 일괄적으로 같은 주제를 수준별로 만드는 것보다는 다양한 주제에 맞추어 교육 콘텐츠를 만들고, 교사들이 학교의 상황을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주제별로 수업을 할 때 필요한 프리젠테이션, 교안(학습지도안), 역사자료 해제 등으로 구성된 교사자료와 학생이 사용할 교구재를 일괄적으로 제공하여 역사학습을 용이하도록 했다. 향후 교육 콘텐츠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도출되는 한글학교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변동될 수 있다.

2. 재외동포 교육콘텐츠 구성

올해 개발되어 보급된 교육 콘텐츠는 탐구형 1종과 체험형 4종이다. 탐구형과 체험형 모두 다양하게 관계 맺기가 가능한 역사자료를 학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학생용 교구재를 살펴보면 학습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체험 및 탐구 활동물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주제에 따라 교사와 학생에게 필요한 교수학습자료들이 일괄적으로 제공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차이가 있다면 체험형은 학생의 체험활동(제작학습)이 중심인 반면 탐구형은 역사자료 탐구가 중심이다.

유형	콘텐츠명 (소요시간)	대상	관련 역사자료	교사자료	학생용 교구재	학교당 신청가능 수량
탐구형	세계를 누빈 독립운동가 안창호 (25'~225')	초고 ~ 고등 학생	안창호 자료 (여행권, 홍사단기 등)	안창호 열전, 교안, PPT, 시나리오 등	교재 (역사자료활동 14종 포함)	학생 교재 (한, 영) 각 70개 까지
체험형 ①	대한민국의 상징 – 태극기 (35')	초고	김구 서명문 태극기	교안, PPT	교재, 김구 서명문 태극기 퍼즐	학생용 교구재 100개까지
	대한민국의 상징 – 애국가 (30')	초고 ~ 중학생	LA한인청년 연합승리창가대 애국가 합창곡 (1942년 음원)	교안, PPT, 음원	교재	
	대한민국의 상징 – 무궁화 (20')	초저	무궁화 수지도	교안, PPT	교재, 무궁화 수지도 및 스티커	
체험형 ②	자랑스러운 역사 – 이순신과 거북선 (80'~120')	초고 ~ 고등 학생	현재의 유년필독 (미주에서는 국민독본으로 불림)	교안, PPT	교재, 거북선 조립키트	학생용 교구재 체험형② 30개까지 체험형 ③, ④ 40개까지
체험형 ③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회영 6형제 (40'~60')	초고 ~ 중학생	이회영의 묵란 그림	교안, PPT	교재, 묵란 병풍 만들기키트	
체험형 ④	대한민국의 영토, 독도 (60'~120')	중, 고등 학생	독도가 우리 땅인 증거자료	교안, PPT	교재 및 셀로판지 돋보기, 독도 조립키트	

※ 교육대상은 체험(제작)활동 수준에 맞추어 설정된 것으로, 제공되는 교안 내용을 조정하면 대상에 구애 받지 않고, 다양한 연령의 학생들에게 교육이 가능함
※ 교사자료는 신청 콘텐츠와 상관없이 일괄 보급할 예정임

Ⅱ. 교육콘텐츠를 활용한 수업자료

1. 체험형

- 1) 수업계획
- 2) 학습지도안
- 3) 역사자료 해제
- 4) 참고자료

2. 탐구형

- 1) 교재구성 및 역사자료 탐구활동
- 2) 수업계획
- 3) 학습지도안
- 4) 역사자료 해제
- 5) 참고자료

Ⅱ. 교육콘텐츠를 활용한 수업자료

1. 체험형

체험형은 학습과정에서 체험활동(제작학습)의 비중이 높은 활동이다. 자료를 통해 한국의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고, 별도 교사의 지도가 없더라도 학생들이 직접 교재를 보고 체험(제작)활동을 하면서 학습하는 것이 가능하다.

1) 수업계획(과정)

수업순서 (예상시간)	체험형 ① 태극기(35')	체험형 ② 애국가(30')	체험형 ③ 무궁화(20')	비고
주제 제시	대한민국의 상징 태극기	대한민국의 상징 애국가	대한민국의 상징 무궁화	
활동 의미 부여 (관계 맺기)	①한국 독립의 의미를 생각해보기 ②한국 독립 및 정부 수립과정에서의 미주 한인들의 역할과 활동을 상징물을 통해 알아보기			목표 제시
현재 상징물 학습 활동	태극기 의미와 역사 확인, 교재를 참고하여 태극기를 색칠해 완성하기	애국가 의미와 역사 확인, 교재에 있는 현재 애국가를 따라 불러보기	무궁화 의미 확인, 프리젠테이션에 담긴 무궁화 모습을 확인하기	프리젠테이션과 교안을 활용하거나 자율학습이 가능
미주 한인 관련 역사자료 소개	김구 서명문 태극기 (미국 안창호 부인 이혜련에게 전달)	1942년 애국가 음원 (미국에서 녹음)	무궁화 수지도	
역사자료 체험활동	김구 서명문 태극기 퍼즐 완성하기	1942년 애국가 음원을 들으며 안익태 애국가 악보 완성하기	무궁화 수지도 포스터를 스티커로 완성하기	
마무리	소감 듣기 및 교육 이수 배지 배부			

수업순서	체험형 ② 이순신과 거북선 (80'~120')	체험형 ③ 이회영 6형제 (40'~60')	체험형 ④ 독도 (60'~120')	비고
주제 소개	이순신과 거북선	이회영 6형제	독도	
활동 의미 부여 (관련성, 관계 맺기)	먼 타지에서도 한국 역사를 배우려던 미주 한인들의 마음을 상상해보기	노블레스 오블리주 생각해보기 (일반적 가치)	독도문제를 통해 청산과 반성 생각해보기 (일반적 가치)	목표 제시
역사자료 소개	현재의 유년필독 (미국에서는 국민독본으로 불림)	이회영 목란 그림	독도가 우리 땅인 증거자료	프리젠테이션과 교안을 활용하거나 자율학습이 가능
역사자료 체험활동	거북선 조립하기	이회영이 되어 목란 병풍 만들기	현재 독도모습 확인하며 종이모형 만들기	
마무리	소감 듣기 및 교육 이수 배지 배부			

2) 학습지도안

체험형		대한민국의 상징, 태극기	총 소요 시간	35분
학습목표		1. 한국 독립의 의미를 이해한다. 2. 국가상징의 뜻을 안다. 3. 태극기, 무궁화, 애국가가 대한민국 상징이 된 이유를 추측할 수 있다. 4. 대한민국 상징인 태극기의 구조와 의미를 안다. 5. 역사자료를 통해 한국 독립을 위한 미주 한인들의 활동을 확인할 수 있다. 6. 한국인들의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다.		
학습 자료	일반자료	교수자 : 교육자료 PPT 학습자 : 교재(1~7페이지), 김구 서명문 태극기 퍼즐, 색연필		
	교재 속 역사자료	김구 서명문 태극기		
학습 단계	학습요소	교육내용	시간	학습자료 : (학) 유의사항 : (유)

도입	수업 분위기 조성 및 동기유발	○ 분위기 조성 및 수업 준비를 위한 눈맞춤하기 ○ 교육 주제 소개 및 동기유발 - '태극기, 무궁화, 애국가' 아이콘을 제시하며, 이를 묶을 수 있는 말이 무엇일지 묻는다. - 국가상징의 의미를 설명한다. 국가상징이란 국제사회에 하나의 국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기 위해 사용하는 공식적인 표시 - 미국과 한국을 비교해서 설명한다. ○ 국기 : 성조기, 태극기 ○ 국가 : 별이 빛나는 깃발, 애국가 ○ 국화 : 주마다 다름(상황에 따라 제시), 무궁화 - 태극기, 무궁화, 애국가가 왜 대한민국의 상징이 되었을까를 생각한다. (1910~1945년 일제강점기 한국 독립운동 현장에는 태극기, 무궁화, 애국가가 있었음. 나라를 되찾을 희망을 나타내고 빼앗긴 나라를 의미하는 상징물로 사용된 역사가 있어,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자연스럽게 국가상징이 되었음) * 한국인은 왜 독립을 원했을까요? 침략당한 한국인들은 일본이 벌인 전쟁에 재산, 생명, 자유 등을 빼앗기고 민족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았기에 - 미주 한인들의 한국 독립을 지원했다는 사실을 옛 태극기, 무궁화, 애국가 자료로 확인한다.	8분	(학) PPT, 교재2~3페이지
	학습주제 제시	○ 학습주제 구두로 제시 - '대한민국 국기, 태극기' 주제를 제시한다.	1분	
	학습목표와 순서확인	○ 학습할 목표와 순서 확인 1. 교재 읽으며 태극기 색 채워보기(체험활동) 2. 현재 태극기의 모습 확인하기 3. 태극기의 역사 알아보기 4. 미주 한인과 관련된 '김구 서명문 태극기' 살펴보기 5. 김구 서명문 태극기 퍼즐 맞추기 및 서명문 글귀 읽어보기(체험활동)	2분	(학) PPT

전개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재 읽으며 태극기 색 채워보기(체험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페이지 교재 내용을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5페이지 태극기 색을 완성하도록 시간을 갖는다. ○ 현재 태극기의 모습 확인하기 <p>태극기는 흰색 바탕에 가운데 태극문양과 네 모서리의 4괘로 구성 흰색 바탕 : 밝음과 순수, 평화 태극문양 : 밝은 기운의 붉은색과 어두운 기운의 파란색 건괘 : 하늘, 곤괘 : 땅, 감괘 : 물, 이괘 : 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극기의 역사 알아보기 <p>1882년 조선 왕 고종의 명으로 일본에 외교사절단으로 가던 박영효가 한국을 상징하는 국기가 필요하다 느껴 '태극기'를 배 안에서 만들 1883년 태극과 4괘가 담긴 태극기를 국기로 정함. (단, 정확하게 그리는 방법이 전해지지 않음) 1910년(일본에 나라를 빼앗김) ~ 1945년(나라를 되찾음) ~ 1948년(대한민국 정부 수립) ~ 1949년(국기 제작기준이 담긴 법 마련) : 1949년 이전에는 4괘와 태극문양이 있으면 태극기라 불렀고, 다양한 태극기가 존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주 한인들과 관련 있는 '김구 서명문 태극기' 퍼즐 맞추어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페이지 종이 위에 태극기 퍼즐을 맞추어 보도록 지도한다. – 퍼즐에서 신기한 점이 무엇인지 아이들과 찾아본다. (현재 태극기와 모습이 다른, 그 이유는 태극기 역사에서 확인했음) – 글귀를 같이 읽으며, 김구 서명문 태극기에 대해 설명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복군 양성에 필요한 자금과 인력을 지원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음을 확인 (당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은 실질적인 경제력이 있었던 미주 한인들에게 재정을 의지할 수 밖에 없었음을 알 수 있음) 	22분	<p>(학) PPT, 교재4~7페이지</p> <p>(유) ①색연필 별도 준비하기 ②태극기 퍼즐은 모두 완성한 후 다시 챙겨 비닐에 넣을 수 있도록 지도</p>

전개	활동	<p>*글귀 : “한인을 만나는 대로 이 말을 꼭 전해달라. 나라 잃은 서러움을 면하려거든 자유와 행복을 누리려거든 정력과 인력과 물력을 *광복군(당시 한국의 독립을 준비하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규군대)에게 바쳐 원수 일본을 몰아내고 조국의 광복을 완성하자.”</p> <p>*태극기 설명 :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이었던 김구가 태극기에 글귀를 써 미국으로 가는 미우스 오그 카톨릭 신부에게 한인을 만나면 전해달라 부탁했음. 이후 안창호 부인 이해련여사에게 전달되었음</p> <p>※ 이 자료는 3)역사자료 해제를 참조하여 추가 보충 설명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운동에 있어 자금이 매우 중요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미주 한인들의 경제적인 지원으로 한국의 독립운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한국의 광복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가능했음. 일제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되찾기 위해 미주 한인들이 바친 금액이 300만 달러를 초과했다는 의견이 있음, 당시 미화 200달러는 임시정부 요인 15명이 1개월을 버틸 수 있는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적으로 교재는 다시 읽어보도록 안내 ○ 다음 교육 주제 '애국가' 소개 	2분	

체험형		대한민국의 상징, 애국가	총 소요 시간	30분
학습목표		1. 대한민국 상징인 애국가의 의미를 안다. 2. 애국가가 만들어진 과정을 알 수 있다. 3. 역사자료를 통해 현재 애국가가 대한민국 수립 전부터 미국에서 불리고 알려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현재 애국가와 1942년 미국에서 불렸던 애국가를 비교하며 따라 부를 수 있다. 5. 미주 한인들의 조국 사랑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다.		
학습 자료	일반자료	교수자 : 교육자료 PPT, 애국가 음원 학습자 : 교재(8~11페이지), 펜		
	교재 속 역사자료	안익태 애국가 악보 및 1942년 L.A. 한인청년연합승리창가대 애국가 합창곡(1942년 음원)		
학습 단계	학습요소	교육내용	시간	학습자료 : (학) 유의사항 : (유)
도입	수업 분위기 조성 및 동기유발	○ 분위기 조성 및 수업 준비를 위한 눈맞춤하기 ○ 지난 단원에서 배웠던 것을 확인하기 ○ 교육 주제 소개(아래 학습단원 참고)	3분	(학) PPT
	학습주제 제시	○ 학습주제 구두로 제시 – ‘대한민국 국가, 애국가’ 주제를 제시한다.	1분	(학) PPT
	학습목표 와 순서확인	○ 학습할 목표와 순서 확인 1. 애국가의 의미 알아보기 2. 애국가가 만들어진 과정 알아보기 3. 현재 애국가를 따라 불러보기 4. 1942년 미국에서 불렸던 애국가 들으며 빈 칸 채워보기(체험활동) 5. 먼 타지에서 잃어버린 나라를 생각하며 애국가를 불렀던 미주 한인들의 마음을 상상하기	2분	
전개	활동	○ 애국가의 의미 알아보기 애국가는 愛(사랑하다 애), 國(나라 국), 歌(노래 가)를 합친 단어로 말 그대로 ‘나라를 사랑하는 노래’란 뜻임		(학) PPT, 교재8~11페이지

전개	활동	○ 애국가가 만들어진 과정 알아보기 *노랫말(Lyrics) 일본, 러시아 등 외세의 침략이 있었던 1907년 전후 한국인들의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만들어진 *곡조(Melody) 일반적으로 안익태 애국가 곡조가 만들어질때까지 올드 랭 사인(Auld Lang Syne)을 사용 1935년 안익태가 현재 애국가 곡조 만들 1936년 북미 대한민국민회(1910년 미주 한인들이 만든 단체)에서 안익태가 만든 애국가를 실은 ‘대한국애국가’ 출판 1942년 애국가 음반 만들어 배부 (1942년 L.A. 시가 한국의 독립운동을 지원 한다는 의미로 8월 29일(국치일)에 태극기를 L.A. 시청 건물에 걸어주는 행사를 할 때 배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공식행사에서 쓰임 (1942년에 음반에 나온 애국가와 거의 비슷)	22분	(학) PPT, 교재8~11페이지
		○ 현재 애국가를 따라 불러보기 – 음원을 들으며 교재 9페이지 참조하여 1~2절만 따라 불러보도록 지도한다. ○ 1942년 미국에서 불린 애국가를 들으며 안익태 애국가 악보 빈 칸 채워보기 (‘보우하사’는 보호하사, ‘서리’는 ‘이슬’로 가사가 현재와 다른 부분임을 확인) ※ 이 자료는 3)역사자료 해제를 참조하여 추가 보충 설명할 수 있음. ○ 먼 타지에서 잃어버린 나라를 생각하며 애국가를 불렀던 미주 한인들의 마음을 상상하기 – 1942년 음반에 담긴 애국가를 다시 눈감고 들어 보며 당시 한인 마음 상상하도록 유도한다. – 끊임없이 조국을 생각하는 한인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1945년 한국이 광복할 수 있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정리		○ 개별적으로 교재는 다시 읽어보도록 안내 ○ 다음 교육 주제 ‘무궁화’ 소개	2분	

체험형		대한민국의 상징, 무궁화	총 소요 시간	20분
학습목표		1. 무궁화의 뜻을 안다. 2. 역사자료를 통해 한국인들의 무궁화 사랑을 이해한다.		
학습 자료	일반자료	교수자 : 교육자료 PPT 학습자 : 교재(12~13페이지), 가위, 무궁화 수지도 스티커		
	교재 속 역사자료	무궁화 수지도		
학습 단계	학습요소	교육내용	시간	학습자료 : (학) 유의사항 : (유)
도입	수업 분위기 조성 및 동기유발	○ 분위기 조성 및 수업 준비를 위한 눈맞춤하기 ○ 지난 단원에서 배웠던 것을 확인하기 ○ 교육 주제 소개(아래 학습단원 참고)	3분	(학) PPT
	학습주제 제시	○ 학습주제 구두로 제시 - '대한민국 국화, 무궁화' 주제를 제시한다.	1분	
	학습목표 와 순서확인	○ 학습할 목표와 순서 확인 1. 무궁화의 뜻 알아보기 2. 무궁화가 국화로 사랑받는 이유 확인하기 3. 스티커로 무궁화 수지도를 완성하기(체험활동)	2분	
전개	활동	○ 무궁화의 뜻 알아보기 무궁화는 無(없을 무), 窮(끝나다 궁), 花(꽃 화)를 합친 단어로 말 그대로 '영원히 피고 지지 않는 꽃'이란 뜻임		(학) PPT, 교재12~13페이지

전개	활동	<p>○ 무궁화가 국화로 정해진 이유 확인하기</p> <p>예로부터 한국 사람들은 무궁화를 하늘나라 꽃으로 여겼고, 중국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무궁화가 피고 지는 군자의 나라'라고 부르기도 했음 애국가 후렴에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이 들어가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음 1910년 일본에 나라를 빼앗기자 남궁억은 수예시간에 무궁화 꽃을 가지고 삼천리 금수강산을 상징하는 지도를 만들고, 각 도마다 무궁화 한 송이씩을 수놓는 수본을 고안하여 만들게 했음. 집집마다 걸어놓거나 선물로 미국이나 하와이 등지에 전해지기도 했음 남궁억은 무궁화묘목을 전국에 배부,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잊지 않도록 하는 상징물로 무궁화가 쓰였음 현재까지 국화로서 사랑받고 있음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지정된 바는 없음</p> <p>○ 무궁화 수지도 완성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원도, 경기도,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충청남북도, 평안남북도, 함경남북도, 황해도(13도)의 위치 확인하며 무궁화 수지도를 완성하도록 지도한다. - 독도도 스티커를 이용하여 위치에 맞게 찍어주도록 한다. - 무궁화 수지도를 잘라내어 자신의 공간에 잘 보이도록 붙이도록 유도한다. (일제강점기 한국인들이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수지도를 집에 걸어 표현한 것처럼 해보기) <p>※ 이 자료는 3)역사자료 해제를 참조하여 추가 보충 설명할 수 있음.</p>	12분	(학) PPT, 교재12~13페이지 (유) 가위 별도 준비하기
		<p>○ 태극기, 무궁화, 애국가 모두 한국인들의 독립의지가 담겨있는 상징물임을 학습을 통해 확인했음을 강조</p> <p>○ 역사자료를 통해 미주 한인들도 한국 독립에 기여했음을 확인하며 마무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의 국가상징을 아는 것은 미국내 한인들의 정착을 위해 노력한 1세대들의 역사를 이해하는 일임을 강조한다. <p>○ 개별적으로 교재는 다시 읽어보도록 안내</p>		
정리			2분	

체험형		자랑스러운 역사, 이순신과 거북선	총 소요 시간	80~120분
학습목표		1. 일제강점기 한국인들이 거북선과 이순신을 가르쳤던 이유를 추측할 수 있다. 2. 역사자료를 통해 미주 한인들이 학습했던 이순신과 거북선을 확인한다. 3. 조선의 장수 이순신을 안다. 4. 거북선을 만들며 구조를 이해한다. 5. 일제강점기 한국인들의 독립의지를 느낀다.		
학습 자료	일반자료	교수자 : 교육자료 PPT 학습자 : 교재, 독립기념관 거북선 조립키트		
	교재 속 역사자료	유년필독(국민독본)		
학습 단계	학습요소	교육내용	시간	학습자료 : (학) 유의사항 : (유)
도입	수업 분위기 조성 및 동기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위기 조성 및 수업 준비를 위한 눈맞춤하기 ○ 교육 주제 소개 및 동기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순신과 거북선’ 아이콘을 제시하며, 무엇인지 묻는다. – 한국인들에게 이순신과 거북선은 어떤 의미인지 확인한다. <p>이순신은 1592년 일본이 조선을 침략했을 시 전투함 거북선을 가지고 나라를 구해낸 대표적인 장수 300여년 후 일본이 다시 한국을 침략했을 때 이순신과 거북선을 통해 한국민은 일본 침략을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를 얻었음. 그래서 한국인들은 학생들에게 이순신과 거북선을 많이 가르쳤고, 미국의 한인들도 이를 배웠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한인들도 학습했던 이순신과 거북선을 알아 본다. 	8분	(학) PPT, 교재2~3페이지
	학습주제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주제 구두로 제시 – ‘자랑스러운 역사, 이순신과 거북선’ 주제를 제시한다. 	1분	(학) PPT
	학습목표 와 순서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할 목표와 순서 확인 <p>1. 유년필독(국민독본)을 읽으며 미주 한인들이 배운 이순신과 거북선 확인하기 2. 이순신 알아보기 3. 거북선을 만들며 구조 알아보기(체험활동)</p>	2분	

전개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년필독을 읽으며 미주 한인들이 배운 이순신과 거북선 확인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년필독은 일제강점기 현재가 우리 역사와 지리 등을 담아 저술한 교과서로 우리 민족의 힘과 나라 사랑을 생각해보게 하는 서적임을 설명한다. (유년필독은 미국에서는 국민독본이라는 이름으로 전해져 동포들에게 읽혔음) – 교재 4~5페이지의 유년필독 속 이순신과 거북선 기록을 같이 확인한다. (이순신은 일본에 대항해 나라를 지킨 장수, 거북선은 세계 최초의 철갑선임을 강조) 	67 ~107분	(학) PPT, 교재4~7페이지
		<p>유년필독 내용</p> <p>① 제21과 이순신 이순신은 우리나라의 가장 이름난 장수이다. 전라·경상도, 두 도의 바다에서 적병을 크게 이기기 를 수십 번이 되니 일본의 수군이 다 여기서 패하였다. 만일 이순신이 아니었으면 임진란이 더욱 끝없었을 것 이다. 거북선은 철로써 짚으니 세계 각국 철갑선의 시 조라 할 것이다. ② 이순신 귀선(거북선)도</p> <p>※ 이 자료는 3)역사자료 해제를 참조하여 추가 보충 설명할 수 있음.</p> <p>○ 이순신 더 알아보기</p> <p>1545년 조선시기 한양(서울)에서 태어남 1592년 일본이 쳐들어오자, 거북선과 조선수군을 이끌 어 바다전쟁에서 승리(23번의 전투에서 모두 승리, 특히 함선 12척을 이끌고 130여 척의 일 본 수군을 상대로 싸워 이긴 명량대첩이 가장 유명함) 1598년 마지막 전투(노량전투)에서 총탄을 맞고 숨집 전투에 영향을 줄까봐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는 유언을 남길 정도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한 장수 ※전투에 수군과 거북선을 활용할 줄 아는 능력과 용 기, 지혜 등이 빛나는 조선 장수임</p> <p>○ 거북선을 만들며 구조 알아보기 – 거북선의 우수함을 간단히 설명한다.</p>		

전개	활동	<p>① 공격력이 뛰어났음 : 거북선은 도깨비 머리로 적의 배를 박고, 용머리와 사방에 있는 화포를 쏘았음</p> <p>② 방어력이 뛰어났음 : 당시 일본 수군은 칼을 쓰는 데 능숙해 자신들의 배를 조선 배에 붙이고 배 위로 뛰어들어 일대 일로 싸우려 했음</p> <p>이를 막기 위해 지붕을 감싸고, 등에 쇠 송곳을 꽂아 쉽게 넘어오지 못하게 했음</p> <p>– 거북선 조립키트를 만들면서 교재 6페이지에 있는 거북선의 구조를 확인하도록 지도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드는 방법 등은 키트 안 설명서를 참조할 것 •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시간을 줄 것 (최소 50~90분 내외) 		(학) PPT, 교재4~7페이지
정리		<p>○ 미주 한인들이 배웠던 교과서(국민독본) 속 이순신과 거북선을 통해 일본에게 나라를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를 얻었음을 확인하며 마무리</p> <p>○ 개별적으로 교재는 다시 읽어보도록 안내</p>	2분	

체험형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회영 6형제	총 소요 시간	40~60분
학습목표		<p>1.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의미를 안다.</p> <p>2. 일제강점기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이회영 6형제를 안다.</p> <p>3. 역사자료를 통해 6형제 중 유일하게 살아 돌아온 이시영의 모습을 확인해본다.</p> <p>4. 역사자료를 통해 나라 잃은 마음을 상상해본다.</p>		
학습 자료	일반자료	<p>교수자 : 교육자료 PPT</p> <p>학습자 : 교재, 이회영 묵란 병풍 만들기 키트, 연필</p>		
	교재 속 역사자료	<p>광복 후 중국에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 사진(1945. 12. 3.)</p> <p>이회영의 묵란</p>		
학습 단계	학습요소	교육내용	시간	학습자료 : (학) 유의사항 : (유)
도입	수업 분위기 조성 및 동기유발	<p>○ 분위기 조성 및 수업 준비를 위한 눈맞춤하기</p> <p>○ 교육 주제 소개 및 동기유발</p> <p>– ‘노블레스 오블리주’ 단어를 제시하며, 의미를 생각해본다.</p>		

도입	수업 분위기 조성 및 동기유발	<p>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는 프랑스어로 ‘고귀한 신분’을 의미하는 노블레스와 ‘책임이 있다’는 오블리주가 합쳐져 만들어진 단어</p> <p>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그만큼 높은 수준의 사회적 의무를 다 해야 한다는 의미</p> <p>– 한국 역사 속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대표적인 예가 있음을 확인한다.</p> <p>– 한국의 독립운동가 가문을 통해 인간사회에서 중요시 하는 일반적인 가치를 생각해 본다.</p>	8분	(학) PPT, 교재2~3페이지
	학습주제 제시	<p>○ 학습주제 구두로 제시</p> <p>–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회영 6형제’ 주제를 제시한다.</p>	1분	(학) PPT
	학습목표와 순서확인	<p>○ 학습할 목표와 순서 확인</p> <p>1. 이회영 6형제 알아보기</p> <p>2. 광복 후 고국으로 돌아오는 임시정부 요인사진에서 6형제 중 다섯째 이시영의 모습 확인하기</p> <p>3. 묵란 살펴보고 병풍만들기를 하면서 중국에서 나라를 잃은 독립운동가 이회영의 마음을 상상하기 (체험활동)</p>	2분	
전개	활동	<p>○ 이회영 6형제 알아보기</p> <p>이회영 가문은 조상 대대로 높은 벼슬을 한 명문가이자 재산도 상당히 많았음. 1910년 일본에 나라를 빼앗기자 넷째인 이회영이 형제를 불러 모아 “우리 6형제는 국가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국가와 함께 괴로워할 위치에 있습니다. 한반도가 왜적의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적의 노예가 되어 생명을 지킨다면 짐승과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라고 설득했음</p> <p>막대한 재산을 처분 600억의 독립자금을 만들 1911년 독립군 양성학교인 신흥무관학교를 세움</p> <p>다섯째 이시영을 제외한 형제 모두 1945년 광복 전에 사망함</p> <p>*셋째 이철영(1863~1925) : 신흥무관학교 교관으로 활동하다 병을 얻어 가장 먼저 죽음</p> <p>*넷째 이회영(1867~1932) : 일제침략자 처단을 준비하다 일본에 잡혀 중국의 다롄경찰서에서 조사받다 죽음</p> <p>*막내 이호영(1875~1933) : 일제침략자를 처단하는 의열활동을 하다 전 가족이 모조리 죽임을 당함</p> <p>*둘째 이시영(1855~1934) : 600억 독립자금을 대부분 조성한 인물이지만 중국에서 굶어죽었음</p> <p>*첫째 이건영(1853~1940) : 광복 전 한국에 돌아왔지만 일본에 나라를 되찾기 전 죽었음</p>	27~47분	(학) PPT, 교재4~7페이지

전개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진 속 이회영 6형제 중 다섯째 이시영의 모습 확인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시영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법무총장 재무총장을 역임한 인물로 대한민국 초대 부통령이 되었음을 설명한다. - 이시영이 울고 있는 이유를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어본다. <p>(되찾은 조국으로 돌아가는 기쁨과 6형제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 돌아가는 데에 대한 서글픔을 느껴 흘린 눈물이었을 것임)</p>	27~47분	(학) PPT, 교재4~7페이지 (유) 연필 별도 준비하기
		<p>광복 후 중국에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의 사진(1945. 12. 3.)</p> <p>왼편 하얀 옷을 입은 여학생의 왼쪽 인물 : 김규식 왼편 하얀 옷을 입은 여학생의 오른쪽 인물 : 조완구 중앙에 화환을 걸고 있는 인물 : 김구 눈물짓고 있는 인물 : 이시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회영이 그린 묵란을 통해 먼 타지에서 나라를 잃고, 독립을 위해 노력했던 이회영의 마음 상상해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군자(매화, 대나무, 국화, 난초)는 대대로 선비(또는 학자)들이 나라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그리던 것임을 설명한다. - 이회영도 사군자를 그리며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되새겼고, 그림을 팔아 독립운동자금과 생계유지비를 마련했음을 설명한다. • 이회영의 아들이 증언한 내용을 확인 (교재 7페이지 확인/ '부친께서는 사군자 그림에 능해 당시 부자에게 갖고 가시어 한쪽씩 맡기고 일금 1~2백원씩 받아 독립운동자금을 조달하셨다.') - 먼 타지에서 묵란을 그리던 이회영의 마음을 상상해보고 이야기해본다. (중국에서 제대로 먹지도 입지도 못하고 언제 될지 모르는 나라독립을 위해 묵란을 그리던 마음은 감히 상상할 수 없음) ○ 이회영의 마음을 상상하며 이회영 묵란 병풍을 만들어 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키트 안에 있는 설명서 순서대로 하도록 지도한다. •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시간을 줄 것 (최소 15~35분 내외)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그만큼 높은 수준의 사회적 의무를 다 해야 한다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기 ○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이회영 6형제 같은 이들이 있음에 한국이 독립을 얻었고, 더 나은 사회가 되는 데 기여했음을 확인하기 ○ 개별적으로 교재는 다시 읽어보도록 안내 	2분	

체험형		대한민국의 영토, 독도	총 소요 시간	60~120분
학습목표		1. 일제강점기가 남긴 잔재, 독도문제를 안다. 2. 역사자료를 통해 독도가 한국 땅임을 이해한다. 3. 독도 조립키트를 통해 독도의 모습을 확인한다. 4. 역사적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느낀다.		
학습 자료	일반자료	교수자 : 교육자료 PPT 학습자 : 교재, 교재 돋보기(셀로판지), 독도 조립 키트, 풀		
	교재 속 역사자료	독도가 대한민국 땅인 증거자료 9개		
학습 단계	학습요소	교육내용	시간	학습자료 : (학) 유의사항 : (유)
도입	수업 분위기 조성 및 동기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위기 조성 및 수업 준비를 위한 눈맞춤하기 ○ 교육 주제 소개 및 동기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제강점기가 남긴 잔재 '독도'를 소개한다. <p>독도는 대한민국 동해에 울릉도와 함께 있는 섬임 예부터 한국 사람들은 동해 바다에 울릉도와 함께 있는 독도를 '우산도'라 부르며 자신의 땅으로 여겼음 독도는 한국의 땅이었지만 한국을 침략한 일본이 1905년 독도를 주인 없는 땅이라 주장하며 일본 영토에 넣어버림 일제침략과정에서 빼앗겼던 독도는 1945년 한국 영토로 돌아오는 것은 당연한 일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독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음 과거 침략행위에 대해 깊은 반성이 없었기 때문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알 수 있는 다양한 역사자료가 있음을 확인한다. - 독도문제를 통해 역사적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한다. 	8분	(학) PPT, 교재2~3페이지
	학습주제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주제 구두로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민국의 영토, 독도' 주제를 제시한다. 	1분	

도입	학습목표 와 순서확인	<p>○ 학습할 목표와 순서 확인</p> <p>1.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증명하는 역사자료를 살펴보기(9개 중 선별적으로 선택할 것) (외교부 동영상(영문) 시청으로 본 활동 대체 가능) https://www.youtube.com/watch?v=mEF9FDh4nZc&list=TLalWolnNrGrUR_UB01cs-VZWinlheLGzZ</p> <p>2. 일본과 대한민국 사이의 독도 위치와 현재 모습 확인하기</p> <p>3. 독도의 모습을 확인하며 독도 모형 만들기 (체험활동)</p>	2분	(학) PPT
전개	활동	<p>○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증명하는 역사자료 살펴보기</p> <p>– 9개의 자료 중에 선별적으로 선택하여 아이들과 독도가 한국 땅임을 확인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재(앞) 표지에 있는 셀로판지 돋보기로 교재의 덧칠을 대 보도록 지도(덧칠된 부분이 중요) • 빨간색 셀로판지 돋보기는 일본의 자료, 파란색 셀로판지 돋보기는 한국의 자료볼 때 사용하는 것임 <p>증거 하나, 『세종실록』 「지리지」(1454) (한국자료) : 조선왕이 자신이 다스린 지역의 상황을 담은 것으로 우산도(독도)가 기록되어 있어 독도가 조선 땅이라 생각했음을 확인</p> <p>증거 둘, 『팔도총도』(1531) (한국자료) : 현재 남아있는 인쇄 지도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조선의 팔도를 그린 지도에 독도(우산)가 표기되어 있음.</p> <p>증거 셋, 『동국대전도』(1750년경) (한국자료) : 현재 한국지도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는 지도로 독도(우산)를 확인할 수 있음</p> <p>증거 넷, 『삼국점양지도』(1785) (일본자료) : 일본의 학자 하야시 시헤이가 동아시아를 색으로 구분한 지도. 일본은 초록, 우리나라는 황색으로 칠함. 울릉도와 독도를 황색으로 칠하고 ‘조선의 것이다’라고 표기해놓음</p> <p>증거 다섯, 『태정관지령』과 『기죽도약도』(1877) (일본자료) : 일본이 근대국가의 형태를 갖추어가고, 최고기관이 태정관이었던 시기, 죽도(울릉도) 외 1도는 일본과 관련없다고 내린 공식 명령. 죽도 외 1도가 기죽도 약도에 명확하게 그려져 있음. 일본도 공식적으로 1877년 당시 독도와 울릉도가 일본영토가 아님을 명확히 했음을 알 수 있음</p>	47 ~107분	(학) PPT, 교재4~15페이지

전개	활동	<p>증거 여섯, 대한제국 칙령 제41호가 실린 『관보』 1716호(1900)(한국자료) :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기 직전 한국은 대한제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대한제국은 울릉도 관리가 석도(독도)까지 관리한다며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명확히 했음. 대내외 알리기도 했음</p> <p>증거 일곱, 『대한매일신보』(1906. 5. 1.) (한국자료) : 1905년 일본이 독도를 일본영토로 편입한 사실을 알고 대한제국 관리가 말도 안되는 이야기라 부인하고 있는 사실을 신고 있음</p> <p>증거 여덟, 연합국 최고사령관 지령 제677호 및 부속지도(1946) : 일본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연합국이 일본을 임시 통치할 시기 일본의 행정구역에 대해 정리한 지령임 울릉도, 독도(Liancourt Rocks, Take), 제주도는 일본 행정구역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으며 지도에도 표기하였음</p> <p>증거 아홉,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1951. 9. 8. 조인) : 1951년 연합국이 일본 전쟁 처리를 위해 정리한 문서에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일본의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라고 되어있음. 대한민국은 1948년 정부가 수립되어 독도를 비롯한 모든 영토를 실질적으로 통치하고 있었으며 강화조약은 이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역할을 했음</p> <p>○ 일본과 대한민국 사이의 독도 위치와 현재 모습 확인하기</p> <p>– 한국의 울릉도에서 87.4km, 일본의 오키섬에서 157.5km 떨어져 있음을 확인한다. (거리상으로도 한국에 더 가깝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함)</p> <p>– 독도는 관광적, 자연적 가치 등으로 인해서 현재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되어 있음을 알린다.</p> <p>– 독도 사진을 보여주고 독도의 자연에 관한 내용은 14페이지 교재를 읽어보도록 지도한다. (한반도 모양이 있는 바위를 대표적으로 소개)</p> <p>○ 독도의 모습을 확인하며 독도 모형 만들기 (체험활동)</p> <p>– 바위모습 사진이 있는 프리젠테이션을 제시, 교재 15페이지 독도 바위와 모습을 활용하여 독도 모형을 만들도록 안내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키트 안에 있는 설명서 순서대로 하도록 지도 •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시간을 줄 것 (최소 15~35분 내외) 	(학) PPT, 교재4~15페이지 (유) 풀 별도 준비하기
----	----	---	---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잘못에 대한 반성은 개인 사이 뿐만 아니라 국가간에서도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도 일본의 일방적 독도 영유권 주장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있는 동아시아의 평화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데 장애가 됨을 알린다. ○ 개별적으로 교재는 다시 읽어보도록 안내 	2분	
----	---	----	--

3) 역사자료 해제

① 대한민국의 상징, 태극기·애국가·무궁화

○ 김구 서명문 태극기



독립기념관 소장, 자료번호 1-A00753-000

높이 44.3cm, 너비 62cm로 흰색 바탕에 색깔 있는 천을 잘라 태극 문양과 4괘를 박음질하였다. 태극 문양은 파란색과 붉은색이 좌우 방향으로 맞물려 있고 4괘는 검은색이다. 태극기 바탕 오른쪽에는 광복군에 대한 우리 동포들의 지원을 당부한 김구의 친필 목서가 세로로 쓰여 있다. “망국의 설움을 면하러거든, 자유와 행복을 누리려거든, 정력과 인력과 물력을 광복군에게 바쳐 강노말세(強弩末勢)인 원수 일본을 타도하고 조국의 광복을 완성하자.” 조국의 독립을 위해 앞장 선 김구의 광복 의지가 담겨 있어, 2008년 8월 12일 등록 문화재 제 388호로 지정되었다.

○ 애국가 악보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대한인국민회에서 발행한 애국가 악보이다. 표지 1장과 악보 2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지에 '대한국애국가(大韓國愛國歌)'라는 한문 제목과 'Korean National Hymn-AiKook Ka'라는 영문 제목이 병기되어 있다. 악보의 1면에는 애국가 1절과 2절의 가사와 악보



독립기념관 소장, 자료번호 1-A00026-001

가 있고, 2면에는 후렴구의 가사와 악보가 인쇄되어 있다. 1부당 20센트에 판매되었다.

안익태(1906~1965)가 작곡한 애국가는 1935년 12월 28일 시카고한인교회에서 처음으로 발표되어 큰 반향을 일으켰다. 대한인국민회 시카고지방회(회장 한장호)는 1936년 3·1절 기념식 때부터 'Auld Lang Syne'인 곡조의 애국가에서 안익태 작곡의 '새 애국가'를 부르기로 결의하였고, 이후 안정수·허진업(뉴욕), 한장호(시카고), 최진하(샌프란시스코, 북미 대한인국민회 총회장) 등이 중심이 되어 안익태의 '새 애국가'를 책자로 발행해 보급했다. 이에 따라 1936년 3월 북미 대한인국민회는 처음으로 '대한국애국가'라는 이름의 소책자를 출판했다.

○ 애국가 유성기 음반



독립기념관 소장, 자료번호 1-H01972-000

애국가 유성기 음반은 1942년 미주지역 대한인국민회가 제작한 음반으로, '구 애국가'와 안익태 작곡 '새 애국가', '무궁화 삼천리가' 등 총 3곡이 녹음되어 있다. 앞면에는 애국가의 옛 곡조인 'Auld Lang Syne'의 선율과 새 곡조인 안익태 작곡 '대한국애국가'의 선율에 애국가 가사를 1절에서 2절까지 붙여 녹음했다. '구 애국가'는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 재미 성악가 이용준

(1938년 도미 유학생, Frank Lee)이 독창하였으며, 안익태 작곡 '새 애국가'는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 나성(L.A.) 한인청년연합승리창가대가 합창하였다. 현 애국가 가사와 비교할 때 안익태의 '새 애국가' 악보에서 보호(보우), 바람이슬(바람서리) 부분이 다르다.

뒷면에 수록된 '무궁화 삼천리가'는 작사·작곡 미상에 악보도 알려지지 않았으나, “무궁화 삼천리 내 사랑아...”로 시작하는 무궁화를 찬양하는 노래이다. '무궁화 삼천리가'는 한인청년연합승리창가대(The Korean Victory Chorus)가 합창하였다.

본 음반은 1942년 8월 29일 국치일, 미국 L.A. 시가 한국의 독립운동을 지원한다는 의미로 시청 건물에 태극기를 거는 행사를 할 때 만들어 배부한 것이다. 현행 애국가가 미주지역에서 공식행사 때에 불렸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하는 자료이다.
애국가 유성기 음반은 등록문화재 제504호로 지정되었다.

○ 무궁화 수지도



독립기념관 소장, 자료번호 1-000350-000

교육자이자 독립운동가인 남궁억(1863~1939)이 고안한 무궁화 수지도이다.

남궁억은 배화학당 교사 시절 조선 13도를 무궁화로 수놓은 자수본을 고안하였다. 한반도에 우리나라의 13도를 상징하는 무궁화 13송이와 백두대간을 상징하는 무궁화 가지를 수놓았고, 울릉도와 제주도에는 무궁화 꽃잎을 새겨 넣었다.

남궁억은 국권을 회복하고 독립하는 길이 생활 속의 작은 실천에서 이뤄진다고 믿어 여학생에게 가사 시간에 무궁화 수 지도를 만들도록 지도했다. 무궁화 자수본은 집집마다 벽에 걸렸고 선물로 미국이나 하와이 등지로 전달될 정도로 유행이었다.

남궁억은 무궁화 수 지도를 고안했을 뿐만 아니라 1918년 고향인 강원도 홍천군 서면 보리울에 모곡학교를 세우고, 학교 실습농장에 묘목을 키워 전국에 배포하여 무궁화보급운동을 주도했다. 또한 1920년에 ‘무궁화 동산가’를 작사하여 일제강점기 민족교육을 이끌었다.

무궁화 동산가

1절

우리의 웃음은 따뜻한 봄바람
춘풍을 만난 무궁화 동산
우리의 눈물이 떨어질 때마다
또 다시 소생하는 이천만
빛나거라 삼천리 무궁화 동산
잘 살아라 이천만의 고려족

2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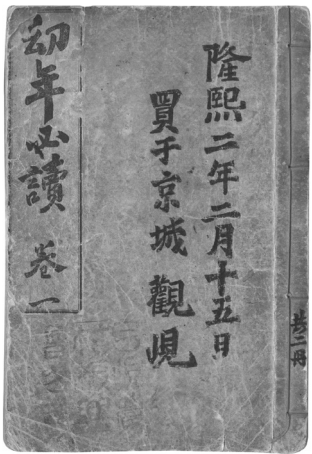
백화가 만발한 무궁화동산에
미묘히 노래하는 동무야
백천만 화초가 웃는 것 같이
즐거워라 우리 이천만
빛나거라 삼천리 무궁화 동산
잘 살아라 이천만의 고려족

〈참고문헌〉

이순자, 『무궁화 사람으로 삼천리를 수놓은 남궁억』,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2.
송준석, 「남궁억의 여성교육사상에 관한 연구」, 『교육연구 2』, pp73~86, 1994.

② 자랑스러운 역사, 이순신과 거북선

○ 『유년필독』



독립기념관 소장, 자료번호 1-000350-000

1907년에 역사학자 현채가 저술한 초등학교용 역사 및 지리교과서이다. 총 4권 2책으로, 본 자료는 그 중 권1이다. 한국의 지리와 역사에 관계된 내용이 정리되어 있다. 권1의 첫 면에 세계지도가 첨부되어 있으며, 역사 속 충성스러운 신하 및 사건을 설명하고 있다.

한국인의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고취하고자 만들어진 책이어서 일본은 1909년 5월에 발매금지 처분을 내렸다.

판매가 금지되고 학교에서 교과서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자 유년필독은 미주에 거주하고 있던 교포들에 의해 『국민독본』이란 이름으로 널리 읽혀졌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신한민보사에서 운영하는 미국 재미한국소년서회에서는 국민독본을 인쇄하여 판매하기도 했다. 1909년 11월 10일자 『신한민보』에는 ‘알 씨 리’라는 인물이 ‘필독국민독본(必讀國民讀本)’이라는 기사에 애국심을 배양하고 한국의 역사와 지리를 알며, 출판경비의 회수를 위하여 이 서적을 교포들이 서로 권하여 읽자고 하였다.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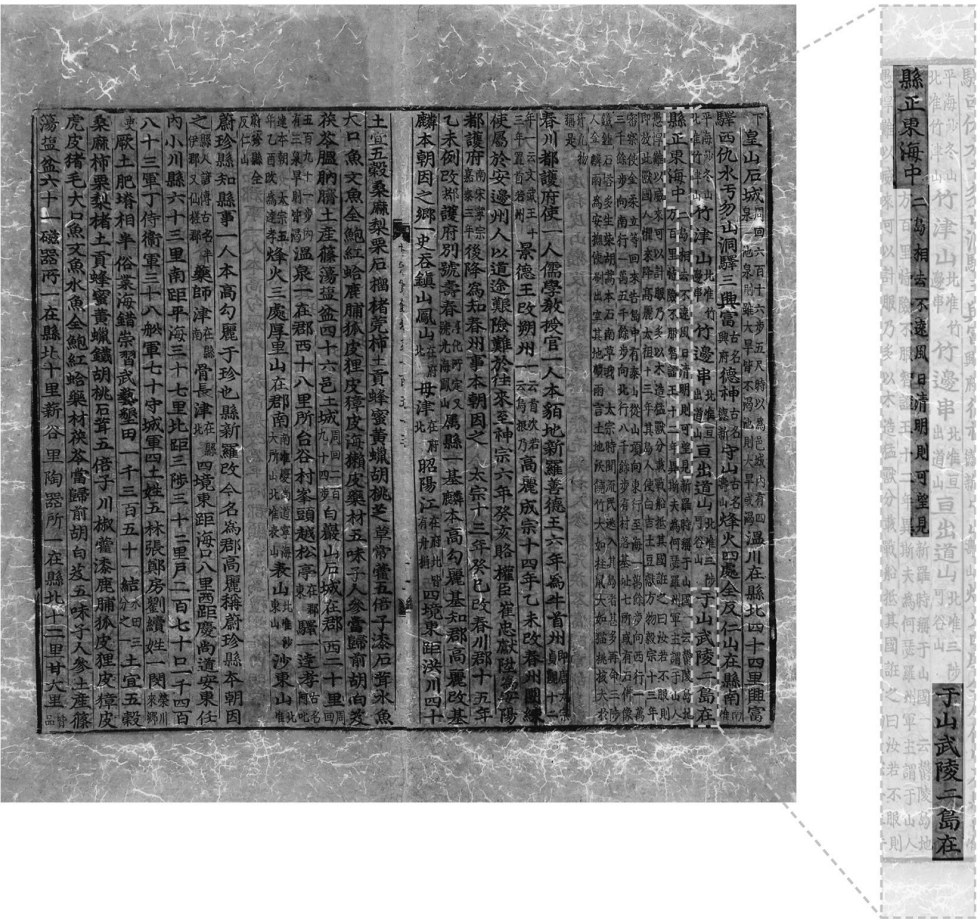
최기영, 「한말교과서 유년필독에 관한 고찰」, 『서지학보 9』, pp97~131, 1993.

③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회영 6형제

별도 자료 해제 없음

④ 대한민국의 영토, 독도

○ 『세종실록』 「지리지」(1454) (한국자료)



우산(독도)과 무릉(울릉도), 두 섬이 (울진)현의 정동쪽 바다에 있다.
두 섬이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

실록은 한 임금이 재위한 동안의 국정 운영이나 사회의 동향에 관한 모든 사실을 연대순으로 기록한 편년체 역사서이다. 『세종실록』은 조선 제4대 국왕 세종의 재위 기간(1418년 8월~1450년 2월)의 역사를 기록했으며, 모두 163권 154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종실록』은 세종이 승하한 뒤 문종 2년(1452) 3월부터 편찬하기 시작하여 단종 2년(1454) 3월에 완성되었다. 세종은 32년에 걸친 재위 기간 동안 정치, 외교, 군사, 경제, 제도, 예악을 정비하고 각종 문물을 창제하는 등 각 분야에 걸쳐 많은 업적을 남겼다. 그러한 업적은 『세종실록』의 편년체 기사(권1~권127)뿐만 아니라 첨부된 ‘지(志)’(권128~163)에 수록되었다.¹⁾

『세종실록』 「지리지」는 『세종실록』의 권148에서 권155에 걸쳐 실려 있다. 세종은 즉위 6년(1424) 조선왕조의 통치체제를 정비해 가는 과정에서 전국의 통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

해 지리지 편찬을 지시했다. 다음 해에 『경상도지리지』를 시작으로 세종 14년(1432)에 『신찬팔도지리지(新撰八道地理志)』가 편찬되었고, 이 지리지는 22년이 지난 1454년(단종 2년)에 약간의 보완을 거쳐 『세종실록』의 부록으로 수록되었다. 「지리지」에는 경도(京都) 한성부를 비롯하여 경기,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황해도, 강원도, 평안도, 함길도 등 8도에 소속된 328개 군현에 관한 각종 군사, 행정, 경제 등 통치에 필요한 제반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다.

● 『세종실록』 「지리지」 속 독도

『세종실록』권153, 「지리지」 강원도, 삼척도호부, 울진현

우산(于山)·무릉(武陵) : 두 섬이 현의 정동쪽 바다 가운데 있다(于山武陵二島在縣正東海中). 【두 섬이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二島相去不遠 風日清明則可望見)²⁾ ... ³⁾】

『세종실록』 「지리지」에서는 울진현에 속한 섬으로 동쪽 바다에 우산(우산도)과 무릉(무릉도)이라는 두 섬이 있다는 사실을 명기했다. 그리고 분주에서는 두 섬이 날씨가 맑으면 멀리 바라보는(望見) 거리에 있다고 하여, 우산도가 지금의 독도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울릉도 가까이에 있는 섬으로 죽도가 있지만, 죽도는 울릉도 동쪽으로 2km 떨어진 곳에 있어서 날씨와 상관없이 언제나 보이는 섬이다.

● 참고

우산도가 지금의 독도라는 사실은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1770, 영조 46년)를 통해서

1) ‘지(志)’는 역사적 인물의 전기(傳記)를 이어 감으로써 한 시대의 역사를 구성하는 기술 방법인 기전체(紀傳體) 역사서의 한 형식이다. 본기·열전 외에 지(志)를 실는데, 지(志)에는 보통 천문(天文)·지리(地理)·예악(禮樂)·정형(政刑) 따위를 기술한다. 『세종실록』에 첨부된 지(志)는 오례(五禮, 권128~135), 악보(樂譜, 권136~147), 지리지(地理志, 권148~155), 칠정산(七政算, 권156~163)으로 되어 있다.

2) 【 】안의 내용은 분주(分註)로 쓰인 것이다. 분주는 고문헌에서 본문 사이에 두 줄로 나누어 작은 글씨로 다는 주로서, 오늘날 논문 따위의 글을 쓸 때 본문의 어떤 부분의 뜻을 보충하거나 풀이한 글을 본문의 아래쪽에 따로 다는 각주와 같다.

3) 이어지는 내용은 신라시대 이사부의 우산국 정벌부터 조선시대 태종의 쇄환정책 등에 관한 것으로 전문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신라 때는 우산국이라 불렀으며 울릉도라고도 했다. 땅이 사방 백 리이며, 〈사람들이 지세가〉 험함을 믿고 복종하지 않으므로, 지증왕(智證王) 12년에 이사부(異斯夫)가 하슬라주(何瑟羅州) 군주(軍主)가 되어 이르기, “우산국 사람들은 어리석고 사나워 위엄으로는 복종시키기 어려우니, 꾀를 써서 복종시키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하고는, 나무로 사나운 짐승을 많이 만들어 여러 전선(戰船)에 나누어 싣고 그곳에 가서 속여 말하기를, “너희들이 항복하지 않으면, 이 〈사나운〉 짐승을 놓아서 〈너희들을〉 잡아먹게 하겠다.” 고 하니, 우산국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와서 항복하였다. 고려 태조(太祖) 13년에, 그 섬의 사람들이 백길(白吉)과 토두(土豆)로 하여금 특산물을 바치게 하였다. 의종(毅宗) 13년에 심찰사(審察使) 김유립(金柔立) 등이 돌아와서 고하기를, “섬 가운데 큰 산이 있는데, 산꼭대기에서부터 동쪽으로 바다까지는 1만여 보(步)요, 서쪽으로는 1만 3천여 보이며, 남쪽으로는 1만 5천여 보요, 북쪽으로는 8천여 보입니다. 촌락 터가 7곳이 있고, 간혹 돌부처·쇠북·돌탑이 있으며, 멧미나리(柴胡)·고본(蒿本)·석남초(石南草) 등이 많이 납니다.”고 하였다. 우리 태조(太祖), 태종을 잘못 기록한 것임) 때, 유리하는 백성들이 그 섬으로 도망하여 들어가는 자가 매우 많다는 말을 듣고, 다시 삼척(三陟) 사람 김인우(金麟雨)를 안무사(安撫使)에 명하여 사람들을 육지로 쫓아내고 그 땅을 비우게 하였는데, 인우가 말하기를, “땅이 비옥하고 대나무는 크기가 기둥만하며, 쥐는 크기가 고양이만하고, 복숭아씨가 돼[升]처럼 큰데, 다른 물건들도 이와 같습니다.”고 하였다.(조선왕조실록 <http://sillok.history.go.kr>의 번역을 참고하여 윤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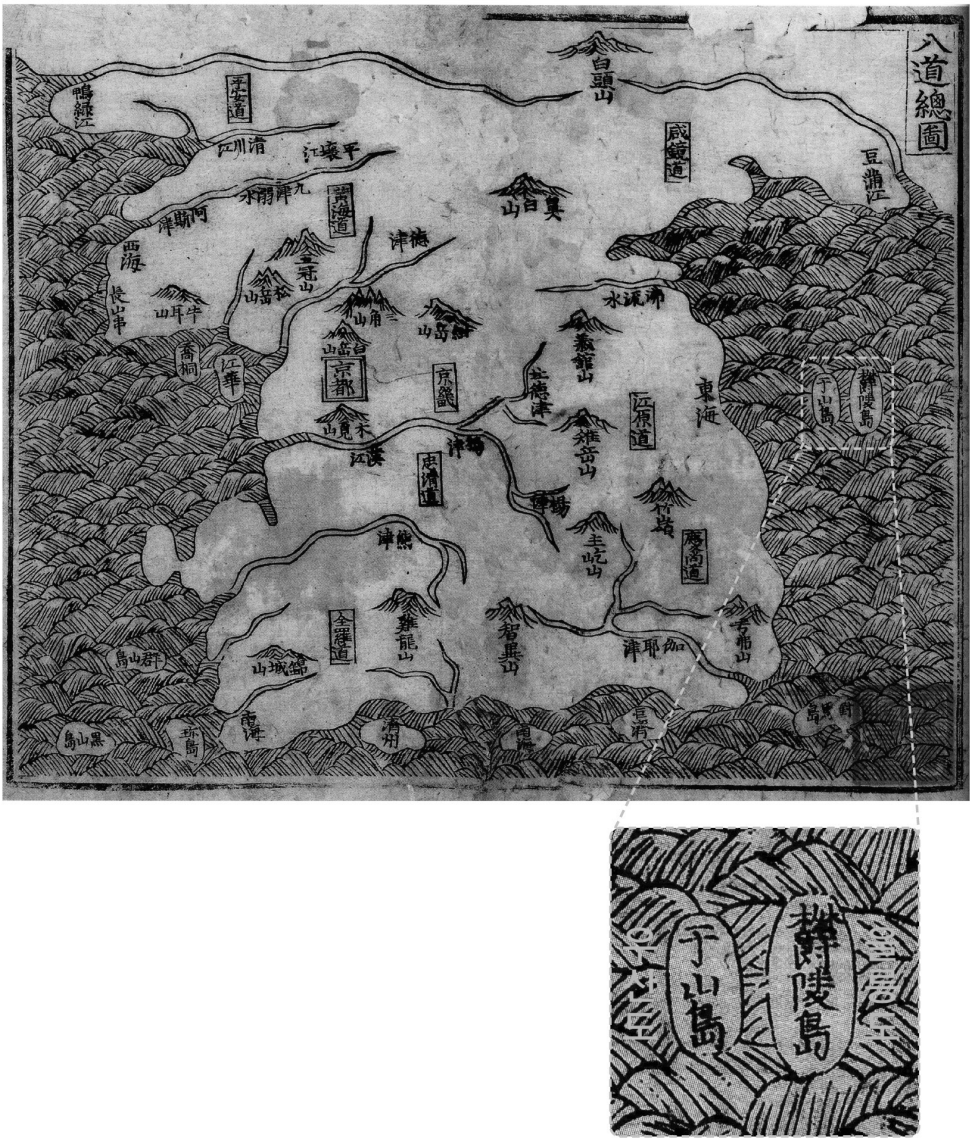
도 증명된다. 『동국문헌비고』는 조선 영조 때 조선의 문물제도를 분류하여 정리한 백과전서적인 책이다. 지리 분야의 기록인 「여지도(輿地考)」에는 “「여지지」에 이르기를, 울릉과 우산은 모두 우산국 땅인데, 우산은 왜인들이 말하는 송도다(輿地志云 鬱陵于山皆于山國地 于山則倭所謂松島也)라고 하였다”라고 쓰여 있다. 당시 일본은 울릉도를 죽도(竹島, 다케시마), 독도를 송도(松島, 마쓰시마)라고 불렀다. 따라서 일본에서 송도라 불리던 우산은 지금의 독도이다.

●독도 기술의 배경

『세종실록』「지리지」에 앞서 독도에 대해 언급한 문헌으로 『고려사』(1451, 문종 원년)가 있다. 『고려사』(권58, 지(志) 권12 지리(地理)3 동계(東界) 울진현)에는 울진현에 속한 섬으로 울릉도만 기록하고, 분주에 “일설에는 우산과 무릉이 본래 두 섬인데,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은 날에는 바라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⁴⁾ 고려시대에 수집된 정보로는 울릉도에서 날씨가 맑은 날에만 볼 수 있는 독도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불분명했던 것이다.

조선 세종 대에 들어와 울릉도와 독도의 두 섬의 존재를 확정하게 된 것은 태종 때인 1403년부터 시작된 쇄환정책(刷還政策)에 따라 울릉도 지역에 대한 정보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울릉도 주민을 육지로 데려오는 쇄환정책은 군역을 피해 울릉도로 도망가는 사람들을 막고 왜구가 울릉도를 거점으로 하여 강원도로 쳐들어 올 위험을 막기 위해서였다. 1417년에 삼척사람 김인우를 무릉등처 안무사로 삼아 울릉도에 파견하여 거주민 3명을 데리고 왔으며, 이어 다시 김인우를 울릉도에 다녀오게 하였다. 세종 때인 1425년에는 김인우를 우산무릉등처 안무사로 임명하여 20여 인을 쇄환하였다. 이와 같이 쇄환정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울릉도 지역에 대한 정보가 수집된 결과 독도의 존재를 확정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 「팔도총도」(1531) (한국자료)



관찬 지리서인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 실린 조선전도(朝鮮全圖)이다. 조선 초기부터 전국 지리지 편찬사업이 지속되어 1481년(성종 12년)에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이 완성되었고, 이후 여러 번 수정을 거쳐 1531년 『신증동국여지승람』이 간행되었다. 크게 권수(卷首), 본문내용 55권, 권말(卷末)로 이루어져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은 조선왕조가 전국적 지배체제를 확립한 이후 왕권의 위엄과 유교적 지배원리를 강화하려는 목적이 강하다. 예속(禮俗)에 관계된 내용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문화적 측면의 기초 자료가 총체적으로 수집되어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조선전도인 「팔도총도(八道總圖)」와 8도의 도별도(道別圖) 등 총 9개

4) 『고려사』 「지리지」는 『세종실록』 「지리지」보다 3년 전에 만들어졌으나 그 내용은 고려시대 지리 정보를 바탕으로 서술되었다.

의 지도가 수록되어 있는데,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지지를 보완하는 부도로 제작되었다. 이는 판각된 지도로는 가장 오래된 조선전도로, 종이를 인쇄해서 반으로 접는 부분인 판심에 동람도(東覽圖)라고 쓰여 있어서 「동람도(東覽圖)」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한다. 「팔도총도」에는 경도(京都)와 팔도명 외에 산천의 이름이 표시되어 있는데, 이는 국가의 의례와 관련하여 산천제(山川祭)를 지내는 곳을 나타낸 것이다.⁵⁾ 「팔도총도」는 전국적인 산천지세를 파악하거나 군현의 위치를 나타내는 데 목적을 둔 것이기보다는 제사를 통한 왕권의 위엄을 나타내기 위한 지도이다.

● 「팔도총도」 속 독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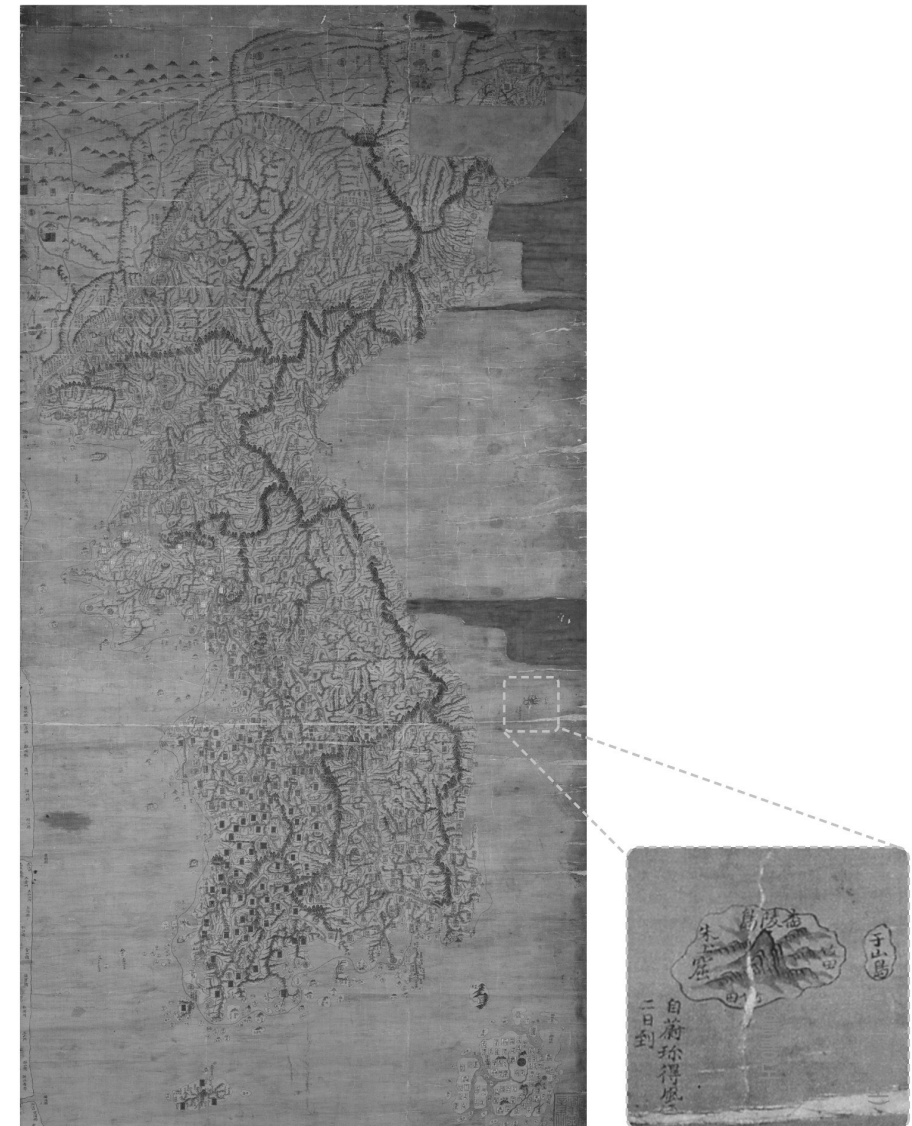
「팔도총도」에는 동쪽 바다에 울릉도와 함께 우산도가 그려져 있다. 그런데 우산도는 울릉도보다 약간 작은 크기로 울릉도의 왼쪽에 있다. 이는 16세기 당시의 항해술이나 측량술에 따른 과학적·지리적 지식의 한계 때문이다. 그럼에도 동해에 두 개의 섬을 분명하게 그려 넣음으로써 이들 두 섬에 대한 영토 의식을 명확하게 표현하였다.

● 참고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지지에는 강원도 울진현에 속하는 산천으로 우산도(于山島)와 울릉도(鬱陵島)라는 두 섬이 명기되어 있다. 그런데 분주에는 “두 섬이 현의 동쪽 바다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도 “일설에는 우산과 무릉이 원래 한 섬이다(一說于山鬱陵本一島)”라는 말이 덧붙여져 있다. 이는 태종 때부터 시작된 쇄환정책으로 인해 1438년 이후에는 울릉도 거주가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그만큼 울릉도 일대에 대한 정보가 불확실해졌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지지의 본문에는 두 섬의 이름을 명기하고, 지도인 「팔도총도」에는 두 섬을 명확하게 표시함으로써 울릉도와 함께 독도의 존재를 확인하였다.

5) 예를 들어 경도의 삼각산신과 한강신은 중사(中祀), 목멱산신은 소사(小祀)를 드리도록 정해진 곳이다. 육지에 기재된 동해(東海), 남해(南海), 서해(西海)도 바다이름이 아니라 각 해신(海神)에게 제사를 지내는 사당이 있는 곳을 나타낸 것이다. 단 백두산은 제사처가 아니지만, 우리나라 고지도에서는 풍수지리적 측면에서 백두산을 우리나라의 조산(祖山)으로 보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려졌다.

○ 「동국대전도」(1750년경) (한국자료)



18세기 영조·정조 때에는 조선의 지도제작 수준이 크게 높아졌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대축척⁶⁾ 지도가 발달한 것으로, 정상기(鄭尙驥, 1678~1752)는 조선 후기 대축척지도의 발달에 결정적인 공헌을 한 지도학자이다. 정상기가 창안한 백리척(百里尺)의 작도법은 산이 많고 길의 굴곡이 심한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평지는 100리를 1척으로 하고 도로 굴곡이 심한 산간 지역은 120~130리를 1척으로 계산하여 차등을 두는 도법이기 때문에 보다 사실에 가까운 직선 거리를 계산해 낼 수 있었다.

조선후기 지도사의 한 획을 그은 정상기의 지도가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은 영조 33년(1757)의

6) 지도의 축척은 실제 거리를 지도 위에 줄여 나타낸 비율을 말한다.

일이다. 『영조실록』에 의하면, 영조는 정상기의 아들인 정항령(鄭恒齡)의 집에 있던 정밀한 「동국대지도」를 직접 보고 나서 이를 모사하여 홍문관(弘文館)에 비치하도록 했다. 앞의 자료는 이렇게 모사된 정상기의 동국대전도 류(類)에 해당하는 지도로서, 현존하는 「동국대전도」 중에서는 가장 원형에 가까운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의 지도들은 대부분 정상기 지도의 윤곽을 따르고 있으며 이 지도의 영향은 19세기 말까지 계속되었다. ‘동국(東國)’은 조선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 자료는 원본이 정상기 개인이 그린 것이므로 엄밀히 말하면 개인이 편찬한 사찬이지만, 왕의 명령으로 모사하여 공적 문서를 관리하던 홍문관에 비치했던 것이므로 국가가 그 내용을 공인한 지도라고 할 수 있다.

● 「동국대전도」 속 독도

지도에는 울릉도 동쪽으로 바른 위치에 우산도가 작게 표현되어 ‘우산도(于山島)’라고 쓰여 있다. 울릉도에 대해서는 “울진으로부터 바람을 얻으면 이를 만에 도착한다(自蔚珍得風二日到)”고 하여 육지에서의 거리가 표기되어 있고, ‘죽전(竹田)’, ‘주토굴(朱土窟)’과 같이 울릉도에 대한 정보가 쓰여 있다. 이 시기에 울릉도 일대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증가함에 따라 독도에 대한 정확한 위치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독도 기술의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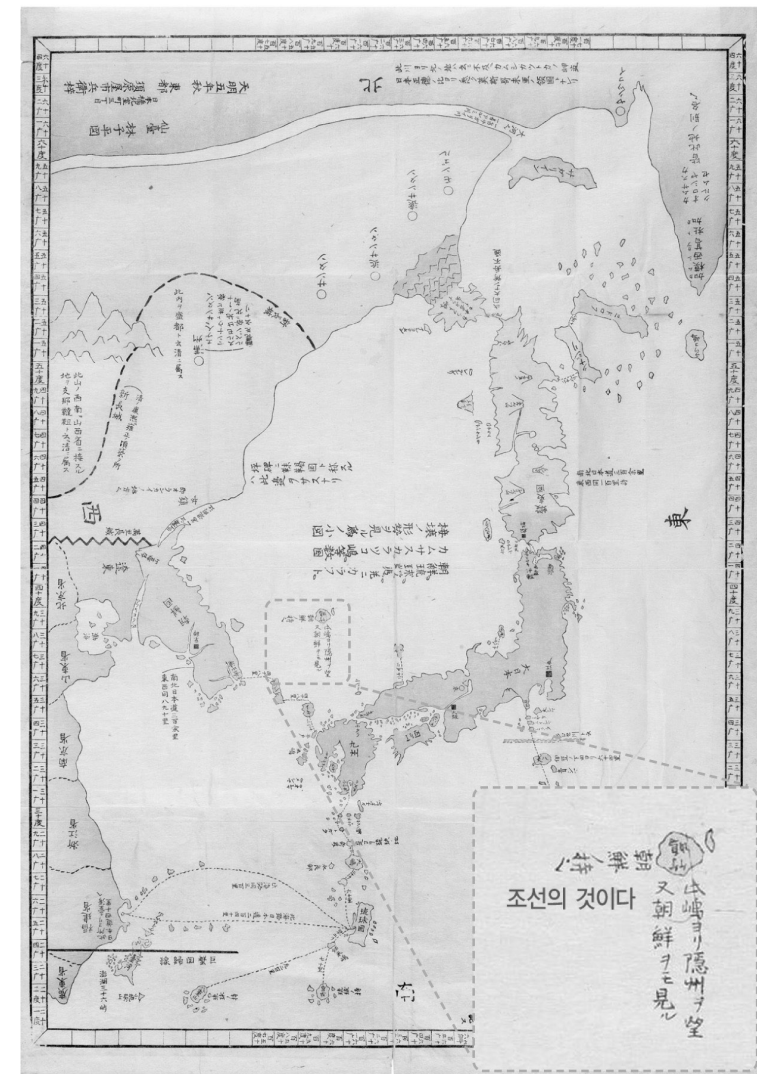
이 시기에 와서 울릉도에 대한 정보와 함께 우산도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었던 것은 1693년에 일어난 울릉도 쟁계(안용복 사건)가 계기가 되었다. 태종 때부터 시작된 쇄환정책으로 울릉도에는 사람이 살 수 없게 되었지만, 조선과 일본의 어부들 중에는 몰래 울릉도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있었다. 1693년 안용복은 울릉도에 갔다가 마주친 일본 어부들에 의해 일본으로 납치되었는데, 이것이 이른바 안용복 사건이다. 이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울릉도를 둘러싸고 조선과 일본은 분쟁을 벌이게 되는데, 이를 울릉도 쟁계라고 한다. 이 일은 일본 에도 막부에서 1696년 울릉도가 조선에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어부들을 울릉도 방면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울릉도 도해금지령’을 내리는 것으로 해결되었다.

울릉도 쟁계가 벌어지자 조선에서는 1694년에 장한상(張漢相, 1656-1724)을 삼척 영장으로 임명하여 울릉도 일대를 자세히 살피게 했다.⁷⁾ 이후 조선 정부에서는 대략 3년에 한번씩 울릉도 일대를 점검하는 수토제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울릉도와 함께 독도에 대한 정보가 증가하여, 울릉도와 독도에 대해 보다 정확하고 많은 정보가 지도에 표시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

7) 1694년 9월 19일부터 10월 3일까지 울릉도를 수토한 장한상이 쓴 『울릉도 사적』에는 다음과 같이 울릉도 성인봉에서 독도를 본 기록이 있다.

“비 개이고 구름 걷힌 날. 산에 들어가 중봉에 올라보니..... 서쪽으로는 구불구불한 대관령의 모습이 보이고 동쪽으로 바다를 바라보니 동남쪽에 섬 하나가 희미하게 있는데 크기는 울릉도의 3분의 1이 안되고 거리는 300여 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 「삼국점양지도」(1785) (일본자료)



「삼국점양지도」는 일본의 경제사상가(經世思想家) 하야시 시헤이(林子平, 1738-1793)가 편찬한 지리서인 『삼국통람도설(三國通覽圖說)』의 부속지도이다. 『삼국통람도설』은 일본에 인접한 조선, 류큐(琉球, 지금의 오키나와 지역), 에조(蝦夷, 지금의 홋카이도 지역)의 세 나라와 무인도인 오가사와라 제도의 지도, 그리고 이들 지도를 합한 지도 등 총 5개의 지도 및 이들 지역의 지리를 해설한 설명과 그림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도 중 다른 4개를 합한 지도가 「삼국점양지도」라 부르는 것으로, 일본에서는 「삼국통람여지도정전도(三國通覽輿地路程全圖)」라고 한다.

「삼국점양지도」는 나가쿠보 세키스이(長久保赤水)의 일본전도인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改正日本輿地路程全圖)」(1779)와 「조선팔도지도(朝鮮八道之圖)」 등을 토대로 제작되었고, 일본 주변 나라의 영토를 나라별로 다른 색으로 칠하여 그 영역을 표시하였다. 지도 가운데 부분에 ‘조선,

류큐, 에조와 카라후토(지금의 사할린 지역), 카무사스카, 라츠코도(嶋) 등 여러 나라의 접양(接壤)의 형세를 보기 위한 소도(小圖)라는 설명이 붙어 있다.

이 지도는 개인이 만든 지도이기는 하지만, 1850년대에 미국과 일본 간에 오가사와라 섬을 둘러싸고 분쟁이 일어났을 때 에도 막부는 이 지도를 막부의 공식 지도로 사용하여 미국 측 주장을 물리친 일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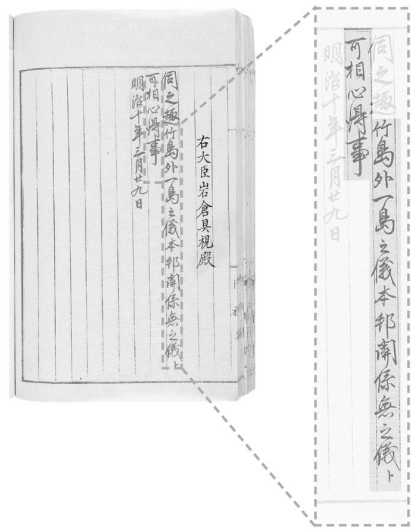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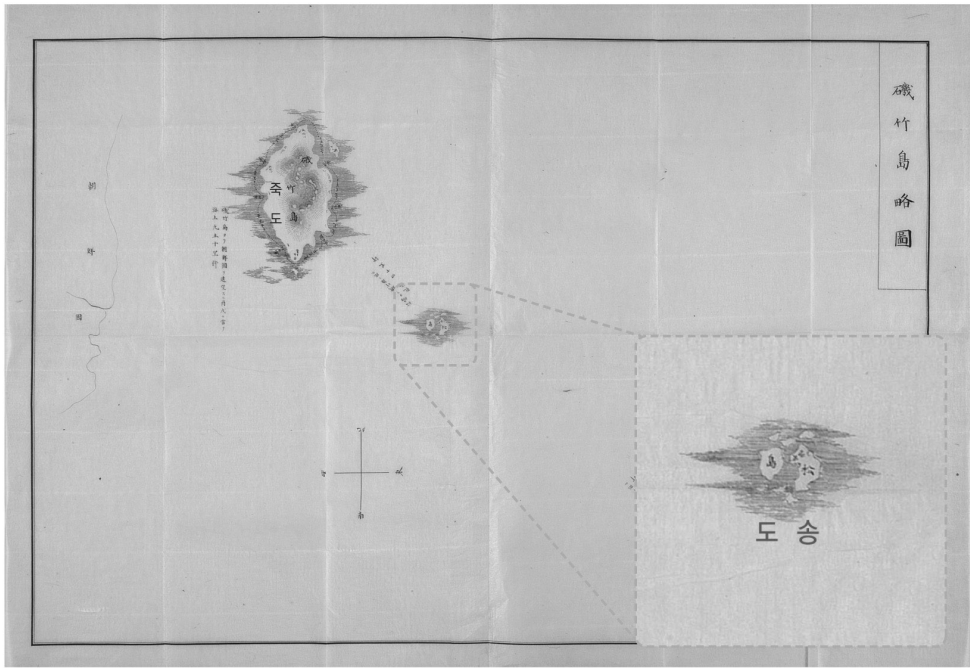
● 「삼국접양지도」 속 독도

지도에 조선은 황색, 일본은 녹색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동해 가운데에 있는 섬과 옆에 있는 작은 섬은 모두 조선 영토와 같은 황색으로 칠해져 있다. 또한 섬 옆에는 “조선의 소유다(朝鮮ノ持ヤ)”라고 쓰여 있어 두 섬이 조선에 속한 땅임을 분명히 했다. 큰 섬에는 당시 일본에서 울릉도를 부르던 이름인 죽도(竹嶋, 다케시마)라고 쓰여 있어 이 섬이 울릉도임을 알 수 있다. 울릉도 옆의 작은 섬은, 이 지도를 그릴 때 바탕이 되었던 나가쿠보 세키스이의 지도에 따르면 당시 일본에서 독도를 가리키던 송도(松島, 마쓰시마)이다. 나가쿠보 세키스이의 지도에는 조선 방향으로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의 이름을 명기하고 조선과 같은 흰색으로 표시하여 두 섬이 조선에 속한 것으로 되어 있다. 즉 「삼국접양지도」에는 울릉도 쟁계 이후 일본에서도 울릉도와 함께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식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다.

섬 부근에는 “이 섬에서 인슈(隱州, 지금의 오키섬)가 멀리 보이고 또 조선도 보인다(此島ヨリ隱州ヲ望又朝鮮ヲモ見ル)”라는 설명이 붙어 있다.⁸⁾ 울릉도에서 조선은 보이지만 일본의 오키섬이 보인다는 말은 잘못된 것이다. 지도에는 조선의 동쪽에 또 하나의 섬이 있는데, 이는 「조선팔도지도(朝鮮八道之圖)」를 따라 울릉도를 그린 것이다.

8) 이 설명은 지도를 제작할 때 참고했던 나가쿠보 세키스이의 지도에 적혀있는 설명문을 옮기는 과정에서 문장의 오탈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나가쿠보 세키스이의 지도에는 울릉도인 죽도(竹嶋, 다케시마) 옆에 “〈이 섬에서〉 고려를 바라보는 것은 운주(이즈모, 현재 일본 시마네현 동부)에서 은주(오키 섬)를 멀리 바라보는 것과 같다(見高麗猶雲州望隱州)”라는 설명이 붙어 있다.

○ 「태정관지령」과 「기죽도약도」(1877) (일본자료)



죽도 외 1도는 본방(일본)과 관계없다는 점을 명시할 것

태정관(太政官)은 일본에서 내각제도가 창설되기 이전 메이지 정부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입법·사법·행정을 총괄했다. 일본은 1868년 메이지 유신으로 봉건 막부를 없애고 중앙집권 정부를 수립한 후 과거의 행정구역을 재편했다. 바뀐 토지에 대한 정보를 새로 등록하기 위한 지적(地籍) 편찬을 하는 과정에서 시마네현은 1876년 10월 16일 ‘일본해 내 죽도(竹島, 다케시마) 외(外) 1도의 지적편찬에 관한 질의서’를 내무성에 제출하였다. 여기에서 죽도란 당시 일본에서 울릉도를 칭하던 이름이다. 내무성은 5개월간 조사를 한 후 최종적으로 죽도와 그 외 1도는 일

본 영토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내무성은 이 죽도 관할 건에 대해 1877년 3월 17일 태정관에게 보고하며 최종 결정을 요청했다. 이 섬은 과거 안용복 사건과 관련하여 논의를 하다가 결국 일본과는 관계가 없다고 했지만, 영토를 취하고 버림은 중대한 사건이므로 별지 서류를 첨부하여 올리니 결정해달라는 것이었다.

「태정관지령」은 태정관이 내무성의 보고에 대해 답변한 것으로, “죽도와 그 외 1도는 일본과 관계가 없다”고 한 결정문이다. 태정관은 ‘일본해 내 죽도 외 1도를 판도 외로 정함’이라는 문서로 정리하여 1877년 3월 29일 내무성에 하달했다. 내무성은 같은 내용을 외무성에 보냈고 4월 9일 시마네현에도 하달하여 죽도와 그 외 1도를 시마네현 지적에 포함시키지 말도록 했다.

「기죽도약도」는 시마네현이 내무성에 제출한 것인데, 내무성이 태정관에 보고할 때 별지 서류로 첨부한 것이다. 별지 서류에는 과거 에도 막부가 울릉도 도해금지령을 내리는 과정에 관련된 문서가 들어 있다. ‘기죽도(磯竹島, 이소타케시마)’는 일본에서 죽도와 함께 울릉도를 부르던 또 다른 이름이다.

● 「태정관지령」과 「기죽도약도」 속 독도

“죽도와 그 외 1도는 일본과 관계가 없다”라는 「태정관지령」에서 ‘외 1도’는 ‘송도(松島, 마쓰시마)’로 일본에서 독도를 부르던 이름이다. 이러한 사실은 내무성이 태정관에 보고할 때 첨부한 별지 서류에 잘 기록되어 있다. 별지 서류에 의하면, “기죽도는 일명 죽도라고 한다. 오키국의 서북 방향 120리 정도에 있으며 둘레는 약 10리이다. 산이 험준하고 평지가 적다.....다음으로 한 섬이 있는데, 송도라고 부른다. 둘레는 30정(町) 정도이고, 죽도와 동일 항로상에 있으며, 오키에서 80리 정도 떨어져 있다. 수목이 적으며 바다짐승을 잡을 수 있다.....”라고 하여 죽도 외의 한 섬이 송도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외 1도’라는 표현에는 일본에서도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섬으로 보았다는 사실이 나타나 있다.

「기죽도약도(磯竹島略圖)」에는 ‘기죽도(磯竹島)’의 오른쪽 아래에 ‘송도(松島)’라고 이름이 쓰여진 섬이 그려져 있어 죽도 ‘외 1도’가 송도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지도에는 일본 서해안 지방과 조선 간의 거리를 표기하면서, ‘일본 서해 오키(隱岐)의 후쿠우라(福浦)에서 송도까지 서북 방향 80리 정도’, ‘송도에서 기죽도까지 서북 방향 40리 정도’, “기죽도에서 조선을 바라보면 해상으로 50리 정도에 해당한다”고 적혀 있다.

이와 같이 일본 메이지 정부에서는 최고의결기관의 공식문서를 통해서 울릉도(죽도)와 독도(송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러한 판단은 과거 울릉도 쟁계의 결과 조선 영토로 확인된 울릉도 방면으로 도해금지령을 내렸던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것이다. 따라서 「태정관지령」에서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과 관계가 없다는 말은 곧 두 섬이 조선의 영토라는 것을 의미한다.

○ 대한제국 칙령 제41호가 실린 『관보』 1716호(1900) (한국자료)



1897년 고종은 연호를 광무(光武)로 정하고 황제로 즉위하여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선포하였다. 칙령은 왕이 직접 재가하여 내리는 명령으로 그 자체로 법의 효력이 있다. 칙령은 관보를 통해 반포되며, 관보는 관청의 소식을 국민에게 알리는 정부의 기관지로 공문서의 성격을 갖는다.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는 대한제국 정부가 울릉도 일대의 지방행정을 정비하기 위해 반포한 법령이다. 1876년 개항 이후 일본인들이 불법으로 울릉도에 들어가 고기를 잡고 나무를 베는 일이 많아졌다. 조선 정부는 일본인의 울릉도 침략을 막기 위해 1882년 부호군 이규원(李奎遠)을 울릉도 검찰사에 임명하여 그동안 쇠환정책으로 비워두었던 울릉도를 개척할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게 했다. 그 결과 다음해부터 울릉도 개척이 시작되었다. 이때는 강원도 관찰사의 발령으로 울릉도 거주인을 도장(島長)에 임명했다. 1894년 갑오개혁 이후인 1895년 8월에는 도장의 명칭을 도감(島監)으로 고치고 판임관⁹⁾의 직급으로 지위를 격상했다.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후 일본인이 울릉도를 불법으로 침입하여 산림을 베는 일이 더욱 더 심해졌다. 1900년 중앙정부의 내부가 파견한 시찰관 우용정(禹用鼎)은 울릉도 현지를 시찰한 후 일본인의 불법 체류를 막고 울릉도 관제도 개편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대한제국 정부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1900년 10월 25일 칙령 제41호로 황제의 재가를 받았고 10월 27일 관보에 게재하여 반포하였다.

칙령 제41호는 ‘울릉도(鬱陵島)를 울도(鬱島)로 개칭하고 도감(島監)을 군수(郡守)로 개정한 건’으로, 제1조는 ‘울릉도를 울도라 개칭하여 강원도에 부속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하여 관제 중에 편입하고 군의 등급은 5등으로 할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로써 울릉도는 강원도에 속한 군(郡)으로서 지방관제에 편입되고 중앙으로부터 주임관¹⁰⁾인 군수가 파견되게 되었다.

●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속 독도

칙령 제41호에는 제2조에 ‘군청 위치는 태하동으로 정하고 구역은 울릉전도와 죽도, 석도를 관할할 것’이라고 하여, 군청의 위치와 함께 울도군의 관할 지역이 명시되었다. 관할 지역 규정 중에 울릉‘본도(本島)’라고 하지 않고 울릉‘전도(全島)’라고 한 것은 울릉본도와 함께 주변의 작은 섬과 바위를 망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죽도는 울릉본도에서 동쪽으로 2km 정도 떨어져 있는 오늘날의 죽도를 말한다.

석도는 1906년 울도 군수 심흥택의 보고서에 “본군(本郡) 소속 독도(獨島)”로 기록되어 오늘날의 독도임을 알 수 있다. 독도가 석도로 기록되었다가 독도로 바뀌는 과정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당시 울릉도를 왕래하던 사람들 중에는 전라도 사람들이 가장 많았는데, 전라도 사투리로는 ‘돌’을 ‘독’으로 발음하여 울릉도에서 육안으로 보이는 독도를 가리켜 ‘돌섬’ 혹은 ‘독섬’이라고 불렀다. 돌섬이라는 뜻을 한자로 바꾼 것이 석도(石島)이고 독섬의 ‘독’자를 살려 한자를 빌어 적은 것이 독도(獨島)이다.

● 참고

독도가 독도(獨島)라는 한자로 기록되는 과정은 러일전쟁 중 일본 군함 니타카호의 항해일지(『軍艦新高行動日誌』 1904.9.25.)에 “량코도 암을 한인(韓人)은 독도(獨島)라고 쓴다”고 기록한 것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 ‘량코도 암’이란 당시 일본에서 독도를 가리키던 명칭으로 리앙쿠르 락스(Liancourt Rocks)를 일본식으로 표기한 것이다. 리앙쿠르 락스는 서양 선박으로는 독도를 처음 발견한 1849년 프랑스 포경선 리앙쿠르호의 이름을 따서 붙여졌으며, 서양에서 일반적으로 독도를 부르는 명칭으로 쓰인다.

9) 각 부의 대신이 임명하던 하위 관직

10) 대신이 임금에게 추천하여 임명하던 관직으로, 칙임관의 아래, 판임관의 위이다.

○ 『대한매일신보』 ‘무변불유(無變不有)’ (1906. 5. 1.) (한국자료)



『대한매일신보』는 1904년 7월에 영국인 배설(E.T.Bethell)을 발행인으로 하여 창간된 신문이다. 1904년 2월 러일전쟁을 일으킨 일본군은 한국에 불법주둔하면서 전쟁을 이유로 대한제국의 민간신문에 대한 사건검열을 강행했다. 대한매일신보는 영국인 명의의 신문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치외법권을 이용하여 일본의 검열망을 피할 수 있었다. 따라서 대한매일신보는 일본의 언론 탄압 속에서도 한국 사회에 소식을 전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었다.

『대한매일신보』는 1906년 5월 1일자 ‘잡보’란에 독도 관련 기사인 ‘무변불유’를 실었다. 기사의 배경은 다음과 같다. 일본은 러일전쟁 중이었던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로 독도에 죽도(竹島, 다케시마)라는 이름을 붙여 시마네현에 편입해 버렸다. 그리고 이를 시마네현 현보에만 고시했으므로 대한제국에서는 알 수가 없었다. 일본이 독도를 침탈했다는 사실이 대한제국에 알려진 것은, 일본이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후 1905년 11월 대한제국에 을사늑약을 강요하

여 외교권을 박탈하고 1906년 2월 통감부를 설치한 뒤였다. 1906년 3월에 일본 시마네현 조사단은 독도 조사를 마치고 3월 28일 울릉도에 상륙했다. 이들은 울도 군수 심흥택에게 독도가 일본 영토가 되었음을 알렸다. 심흥택은 ‘본군(本郡) 소속 독도’가 일본 영토가 되었다는 소식을 강원도 관찰사 서리 춘천군수 이명래를 통해 의정부에 보고하였다. 이에 대해 의정부 참정대신 박제순은 ‘지령 제3호’로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되었다는 설은 전혀 근거가 없으니 섬의 형편과 일본인의 행동을 잘 살펴 보고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독도가 울도군에 속하는 대한제국의 영토임을 명백히 한 것이다.

● 『대한매일신보』 속 독도

‘無變不有’

鬱島郡守沈興澤氏가 니府에 報告호되 日本官員一行이 來到本郡호야 本郡所在獨島는 日本屬地라 自稱호고 地界濶狹과 戶口結總을 ——錄去라호 앓는디 내부에서 指令호기를 遊覽道次에 地界戶口之錄去는 客或無怪어니와 獨島之稱云日本屬地는 必無其理니 今此所報가 甚涉訝然이라 호 앓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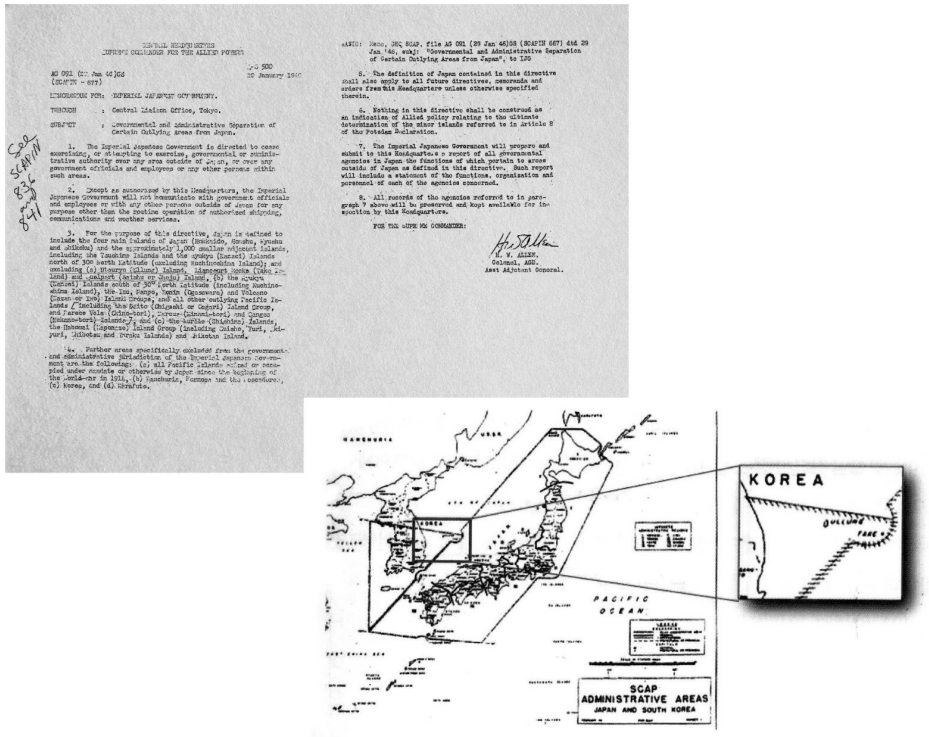
‘이런 번고가 있다니’

울도 군수 심흥택씨가 내부에 보고하기를, 일본 관원 일행이 본 군에 와서 본군 소재 독도(獨島)를 일본 속지라 자칭하고 지계(地界)의 활협(闊狹)¹¹⁾과 호구(戶口)의 결총(結總)¹²⁾을 일일이 적어 갔다고 하였는데, 내부에서 지령하기를 유람하는 길에 지계와 호구를 적어 가는 것은 괴이할 게 없지만 독도를 칭하여 일본 속지라고 한 것은 전혀 이치가 맞지 않으니 이번 보고는 매우 놀랍다고 하었다고 한다.

이 기사를 보면, 울도 군수 심흥택이 강원도 관찰사에게 보낸 보고서와 거의 같은 내용을 내부에도 보냈음을 알 수 있다. 내부도 보고를 받고 의정부와 마찬가지로 독도의 일본 영토 편입을 부인하고 독도가 대한제국의 영토임을 분명히 하였다는 사실이 나타나 있다. 이와 같이 대한매일신보의 기사는 울도군에 속해 있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침략 사실과 조선 정부의 반응을 조선 사회에 알리면서, 기사의 제목인 ‘무변불유’(無變不有, 이런 번고가 있다니)에서 볼 수 있듯이 일본의 불법성에 대한 항의 의사도 나타냈다.

○ 연합국 최고사령관 지령 제677호 및 부속지도(1946)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내용도 포함되어 있음



일본은 태평양전쟁에서 패하여 1945년 8월 15일 연합국에게 무조건 항복을 하고 9월 2일 항복문서에 서명하였다. 패전국인 일본을 점령 통치하기 위해 연합국 총사령부(GHQ : General Headquarters)가 10월 2일 일본 동경에 설치되었다. 연합국 최고사령관(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약칭 SCAP)이 GHQ 지령을 일본정부에 하달하면 일본정부가 이를 실천에 옮기는 간접통치방식이 실시되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발효되는 1952년 4월 28일까지 지속되었다. 지령에는 SCAP Index Number(약칭 SCAPIN)를 부여하기로 하여, 스카핀은 항복문서에 서명한 날인 1945년 9월 2일의 제1호부터 점령을 종료하기 직전인 1952년 4월 26일의 제2204호까지 있다.

「연합국최고사령관 지령 제677호」(SCAPIN-677 :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Index Number 677)는 1946년 1월 29일 연합국최고사령관이 일본 정부에 하달한 지령으로, 이전에 일본이 침략하여 지배하던 지역 중 ‘일정 주변지역을 통치 및 행정상 일본에서 분리하는 것(Governmental and Administrative Separation of Certain Outlying Areas from Japan)’에 관한 내용을 정한 것이다.

1) 땅의 넓고 좁음
2) 토지세 징수의 기준이 된 논밭 면적의 전체 수

● 「연합국최고사령관 지령 제677호」 속 독도

스카핀 677에서 일본의 통치권과 행정권으로부터 제외된 지역 중 한국과 관련된 섬은 제3조에 규정된 울릉도, 독도, 제주도이다.¹³⁾ 이로써 이들 섬은 당시 한국을 통치하던 미군정의 관할지역이 되었다. 미군정은 광복 직후인 1945년 9월 9일 미군의 진주와 함께 시작되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동시에 폐지되었다. 이에 독도는 우리나라의 지배하에 들어왔으며, 우리나라는 독립국가로서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다.

지령에 첨부된 연합국최고사령관 관할지도(SCAP Administrative Areas : Japan and South Korea)에는 한국과 일본의 관할 지역이 선으로 분명히 표시되어, 울릉도와 함께 독도는 한국에 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참고

스카핀 677 자체가 영토 규정은 아니다. 스카핀 677의 제6조에는 “이 지령의 어떠한 것도 포츠담 선언의 제8조에서 언급된 여러 작은 섬들의 최종 결정에 관한 연합국 측의 결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포츠담 선언 제8조란, “일본의 주권은 혼슈, 홋카이도, 규슈, 시코쿠 및 연합국이 결정하는 작은 섬들에 국한될 것이다”라는 규정이다. 즉 종전 직전인 1945년 7월 26일에 있었던 포츠담 선언에서는 전후 일본의 영토를 4개의 큰 섬과 ‘연합국이 결정하는 작은 섬’이 될 것이라고 정했다. 따라서 스카핀 677에서 독도를 일본의 통치 지역으로부터 분리했다는 규정이 바로 일본의 영토 규정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다.

일본 영토에 관해 규정한 것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정식 명칭은 대일 평화조약(TREATY OF PEACE WITH JAPAN), 1951년 9월 8일 조인, 1952년 4월 28일 발효)이다. 조약의 제2장이 영토에 관한 조항인데, 제1조에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며,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하고 독도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¹⁴⁾ 이 때문에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인정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약에는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정한 규정도 없다.

스카핀 677은 영토를 규정한 것은 아니지만, 이 지령에 의해 일제가 한국 강점 동안 독도에 대해 행사하던 통치권이 정지되었다. 이는 독도가 울릉도와 함께 한반도에 속한 것으로 보는 연합국의 인식을 나타내며, 독도는 미군정의 통치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됨에 따라 대한민국은 독도에 대한 통치권을 회복했으며, 이후 대한민국은 독도에 대한 확고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다.

〈참고문헌〉

서인원, 『조선초기 지리지 연구 -『동국여지승람』을 중심으로』, 해안, 2002.
손승철, 「중·근세 조선인의 도서 경영과 경계인식 고찰」, 『한일관계사연구』39, 2011.
송병기, 『울릉도와 독도, 그 역사적 검증』, 역사공간, 2010.
양보경, 「울릉도, 독도의 역사지리학적 고찰 - 한국 고지도로 본 울릉도와 독도-」, 『동북아역사논총』7, 2005.
오상학, 「조선시대 지도에 표현된 울릉도·독도 인식」, 국립중앙박물관, 『가고싶은 우리땅 독도』, 2006.
오상학, 「일본측 독도영유권 주장의 비판적 검토 -역사지리학적 내용을 중심으로-」, 『독도연구』6, 2009.
유미림, 『우리 사료 속의 독도와 울릉도』, 지식산업사, 2013.
이상태, 『한국 고지도 발달사』, 해안, 1993.
정두희, 「조선초기 지리지의 편찬 (1)」, 『역사학보』 69, 1976.
정두희, 「조선초기 지리지의 편찬 (2)」, 『역사학보』 70, 1976.
정병준, 『독도 1947』, 돌베개, 2010.
保坂祐二(호사카유지), 「三国通覽輿地路程全圖」と「伊能図」の中の独島, 『日本文化研究』28, 2008.

4) 참고자료

○ 동영상 자료

구분	출처	시간	주소
체험형 ①	태극기	사회가 쏙쏙	2:42 http://clipbank.ebs.co.kr/clip/view?clipId=VOD_20120407_00097
		역사채널 E	5:54 http://www.ebs.co.kr/tv/show?prodId=10000&lecId=10277392
		지식채널 E	3:53 http://clipbank.ebs.co.kr/clip/view;jsessionid=20FVaYdcH3mWjC2UEI5nD1OqcANXiy9U6bT3SEap175b62GA9I9QheoxFwEZgmrQ.eemwas02_servlet_engine4?clipId=VOD_20111026_00027
	무궁화	역사채널 E	5:21 http://www.ebs.co.kr/tv/show?prodId=10000&lecId=10450650
체험형 ②	이순신과 거북선	사회가 쏙쏙	8:30 http://www.ebs.co.kr/tv/show?prodId=9831&lecId=3102749
		한산도 대첩과 거북선	3:23 http://clipbank.ebs.co.kr/clip/view?clipId=VOD_20120315_00226
체험형 ③	이회영 6형제	가슴 벅찬 우리 역사	2:07 http://www.ebs.co.kr/tv/show?prodId=109099&lecId=3079445
		역사채널 E	4:42 http://www.ebs.co.kr/tv/show?prodId=10000&lecId=3092867
체험형 ④	독도	외교부	4:56 https://www.youtube.com/watch?v=mEF9FDh4nZc&list=TLalWolnNrGrUR_UB01cs-VZWIn1heLGzZ

13) Utsuryo (Ullung) Island, Liancourt Rocks (Take Island) and Quelpart (Saishu or Cheju) Island.
14) Article 2 (a) Japan recognizing the independence of Korea, renounces all right, title and claim to Korea, including the islands of Quelpart, Port Hamilton and Dagelet.

2. 탐구형

탐구형은 안창호와 관련된 다양한 역사자료를 살펴보는 활동이 중요하다. 교재 속 역사자료 탐구활동으로 안창호의 삶과 활동 뿐만 아니라 미주 한인 역사와 한국의 독립운동을 이해할 수 있다. 학생들의 탐구활동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교사는 안창호와 관련된 한국의 독립운동과 미주 한인의 역사, 교재와 교재 속 역사자료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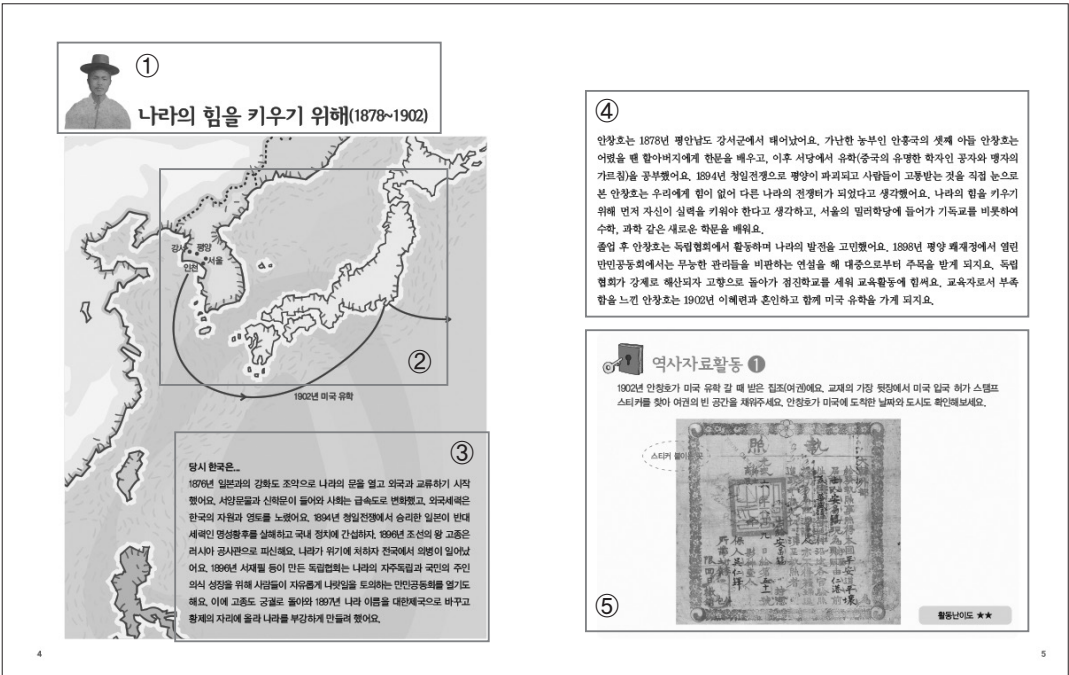
또한 탐구형 학습의 기초가 되는 교재는 안창호의 활동과 시기에 따라 총 8개의 단원이 나뉘어져 있으며 난이도와 다루고 있는 양이 다르다. 학생의 연령과 수준을 고려해 전체 내용을 학습하여 안창호의 이해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거나 일부 내용만을 탐구하여 한국 독립운동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는 정도로 진행하는 선별적 수업방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탐구형의 교수학습자료에서는 크게 교재 구성 및 역사자료 탐구활동 소개, 수업계획, 단원별 학습지도안, 역사자료 해제를 다루려 한다.

1) 교재구성 및 역사자료 탐구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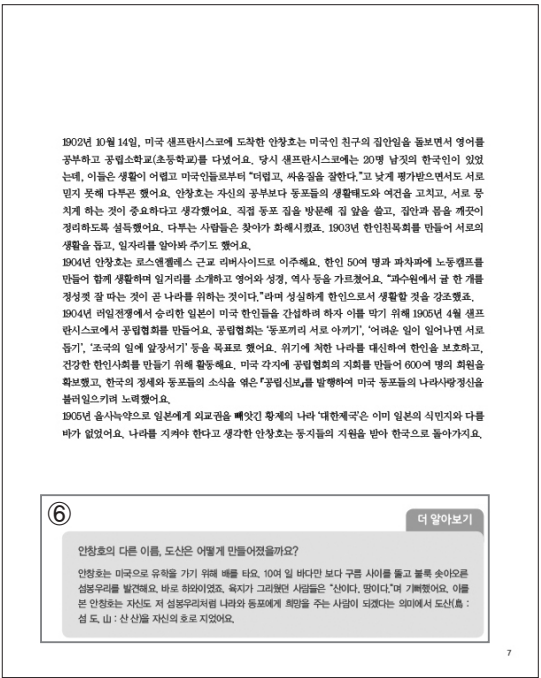
*교재 구성

- ① 제목 앞 안창호 사진 확인하기 _ 시기별 안창호의 모습을 알 수 있음
- ② 안창호 이동경로 확인하기 _ 시기별 안창호 활동 학습 시 활용
- ③ 안창호 활동 시기별 한국 상황 살펴보기
- ④ 시기별 안창호 활동 알아보기
- ⑤ 역사자료활동 해결하기 _ 역사학자처럼 탐구
- ⑥ 더 알아보기 _ 안창호와 관련되어 나올 수 있는 궁금증이나 독립운동 이해를 위한 심화내용을 확인하기
- ⑦ 미국 한인의 역사 _ 교재의 내용을 공부하며 당시 미국 한인 사회에서 있었던 일을 같이 살펴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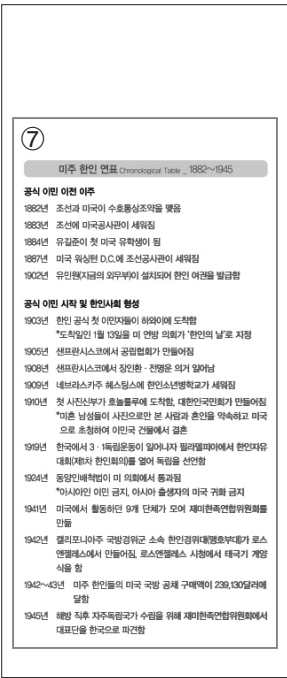


4

5



7



*역사자료 탐구활동

구분	단원(시기)	역사자료활동	Key-word (소요예상시간)
1	나라의 힘을 키우기 위해 (1978~1902)	① 안창호 집조(여권) : 미국 입국허가 스탬프를 확인하여 미국 입국날짜 알아보기	어린 시절 (25분 내외/ 전체단원소개 시간포함)
2	미주 동포의 보호와 단결을 위해 (1902~1907)	② 공립협회 입회청원서 : 미주 한인들의 초기 생활을 상상하며 입회청원서 써보기 ③ 안창호 편지 : 안창호가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 한국에 갈 때 부인 이해련에게 남긴 글 보기	미국유학과 한인정착 (25분 내외)
3	국민의 힘으로 나라를 되찾기 위해 (1907~1911)	④ 거국가 : 거국가 불러보며 일본에 빼앗긴 조국을 떠나는 안창호의 심정 상상하기	나라지키기 (20분 내외)
4	민족 미래를 위한 기반을 닦기 위해 (1911~1919)	⑤ 왕흥성 편지 : 편지를 읽고, 안창호의 성품을 단어로 표현해보기 ⑥ 대한인국민회 총회관 건물 사진(1938년) : 교재에 있는 만들기 종이로 대한인국민회 건물 팝업 완성하기 ⑦ 안창호 독립운동 구상 도표 : 안창호가 나라 성장과 국권회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 준비단계를 알아보기 ⑧ 흥사단기 : 단기에 담긴 의미를 생각하며 색칠해보기	미국 한인 사회 지키기 (40분 내외)
5	나라를 되찾고 새나라를 세우기 위해 (1919~1924)	⑨ 임시정부 독립공채 : 한국의 나라되찾기 활동을 위해 얼마나 자신의 재산을 내어놓을 수 있는지 적어보기 ⑩ 독립신문에 담긴 안창호 연설(1920. 1. 8.) : 한국 독립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6대사가 무엇인지 확인하기	대한민국 임시정부 (중학생이상) (30분 내외)
6	미국 동포들의 독립의지를 불러 일으키기 위해 (1924~1926)	⑪ 안창호 엽서 : 안창호가 가족에게 보낸 카드를 읽으며, 안창호의 가족 사랑과 미국 내 이동경로, 활동 알아보기	가족 (20분 내외)
7	민족의 통합을 위해 (1926~1932)	⑫ 안창호 중국 여권 : 중국 여권을 만들고, 여행 기록을 확인하며 망국시민으로서의 안창호의 마음을 상상해보기	민족유일당 (중학생이상) (30분 내외)
8	죽는 날까지 민족의 고통에 가슴 아파하며 (1932~1938)	⑬ 안창호 체포 전보문 및 수형기록카드 : 중국에서 미국으로 보낸 전보를 살펴보면 안창호 체포과정을 살펴보기, 수형기록카드 속 안창호 모습 확인하기 ⑭ 하와이 아메리카 코리아 신문 : 기사를 읽으며 안창호 일생과 당시 안창호 서거에 대한 미주 한인사회의 여론을 확인하기	순국 (35분 내외)
별첨	미국지역 독립운동가	미국 지역 독립운동가 명단(250여 명) 및 지도 : 미국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 독립운동사적지를 조사해서 지도에 꾸미기	선택형 과제

2) 수업계획(과정)

수업은 모든 단원을 가르칠 경우가 1유형, 교사가 선택한 단원 또는 학생들이 선택한 단원을 일부 학습할 경우가 2유형, 아이들에게 키워드를 주고, 키워드에 해당되는 단원을 스스로 학습하도록 하는 3유형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 중 3유형은 아이들이 단원별로 발표가 끝나면, 그에 대한 첨삭이나 다음 단원과의 연결을 교사가 담당해야 한다. 아래는 단순히 단원별 key-word(8개)로 조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단원별로 소요시간이 다르므로, 학생들의 수준에 맞추어 단원을 배정하거나 key-word를 묶어 조를 3~5개로 편성하여 운영하는 등의 변형이 필요하다.

유형	수업방법	교사활동	학생활동
1	전체 탐구학습	① 교육 주제 및 목표 제시	① 학습 목표 인지
		② 활동 의미 부여 - 한국 독립운동의 의미 확인 - 안창호를 통해 초기 한인들의 삶과 독립운동을 학습할 수 있음을 알림	② 나와의 관계 맺기 및 학습 동기 생성
		③ 교재 구성 및 활용방법 소개	③ 교재 구성 및 활용방법 확인
		④ 단원별로 안창호 활동 설명 및 안내 - PPT를 활용 - ‘당시 한국은’은 필요한 경우만 학습소재로 사용할 것 - 역사자료활동 제시 및 내용 확인	④ 안창호 설명 듣고, 교재 속 역사자료 활동 수행하기 - ‘당시 한국은’ 부분과 미주 한인 연표도 참조하며 자료 탐구
		⑤ 안창호 외 독립운동가 기억하기 - 식민통치 아래 독립운동에 참여한 분을 소개(교재 속 미주지역 독립운동가 지도에 기재된 인물)	⑤ 미국지역 독립운동가 지도 확인하기
2	key-word (8개) 중 선택하여 관련 단원 탐구학습	①, ②는 1유형과 동일	①, ②는 1유형과 동일
		③ 단원별 key-word(8개) 제시	③ key-word 1~2개 선택
		④ key-word와 연결된 단원(1~2개)만 설명 및 안내	④ key-word에 따라 선별된 단원을 1유형의 ④처럼 수행
		⑤는 1유형과 동일	⑤는 1유형과 동일
3	key-word 별로 조를 편성하여 협동학습	①, ②는 1유형과 동일	①, ②는 1유형과 동일
		③ 단원별 key-word(8개) 제시 key-word별로 8개 조 편성	③ 자신이 관심 있는 key-Word 선택, 활동 조와 학습단원을 확인
		④ 탐구 시 조별로 도움 주기	④ key-Word 관련단원 집중 탐구
		⑤ 조별 발표 유도, 발표내용을 단원과 연결해주기	⑤ 조별로 단원 탐구내용 발표하기
		⑥는 1유형 ⑤와 동일	⑥는 1유형 ⑤와 동일
4	선택형 과제	내가 만드는 독립운동지도	국외 독립운동사적지와 공훈전자자료관 홈페이지 등을 참조하여 내가 사는 지역의 독립운동가와 사적지를 조사하고 지도꾸미기

3) 학습지도안

학습지도안은 교사가 단원별로 가르친다는 전제하에 8개의 학습지도안이 제시되어 있다. 단원 2~3개를 묶어 가르치거나, 중간에 일부 단원만을 가르칠 경우는 제시된 학습지도안을 기초로 변형이 필요하다.(도입이나 마무리 등이 조정 필요)

단원		* 프롤로그 : 안창호를 알아보기 전에 * 1단원 : 나라의 힘을 키우기 위해(1878~1902)	총 소요 시간	25분
학습목표		1. 독립운동의 의미를 안다. 2. 한국의 상황(1876~1902)을 이해한다. 3. 안창호의 미국 유학 전 활동과 삶을 안다. 4. 역사자료를 통해 초기 한인들의 미주 이주 경로를 파악할 수 있다. 5. 안창호의 나라(한국)사랑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다.		
학습 자료	일반자료	교수자 : 교육자료 PPT 학습자 : 교재(1~5페이지, 교재 속 스티커)		
	교재 속 역사자료	안창호 집조(여권)		
학습 단계	학습요소	교육내용	시간	학습자료 : (학) 유의사항 : (유)
도입		○ 분위기 조성 및 수업 준비를 위한 눈맞춤하기 ○ 교육 주제 소개 및 동기유발 - 안창호 일생과 활동이 담긴 지도를 제시하고 세계를 누빈 인물이 누구일지 생각해보게 한다. (답을 알고 있어도 학생들이 주제를 이야기 해 볼 수 있도록 유도) - 지도의 화살표와 활동글귀로 안창호의 일생을 요약 해본다.	7분	(학) PPT1~5, 교재2~3페이지
	수업 분위기 조성 및 동기유발	(화살표 1~8번까지 차례로 보이게 하면서) 안창호는 1878년 태어나 1902년 미국 유학을 갔다. 1907년 한국으로 귀국, 1910년 일본이 한국의 국권을 완전히 장악하자 중국으로 망명, 1911년 미국으로 돌아와 1919년 3·1독립운동이 일어나기 전까지 미국, 하와이, 멕시코 등지에서 한인들을 돌보고 1919년 중국 상하이에 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가서 한국의 독립을 위해 활동했다. 1924년 독립운동자금을 모으기 위해 미국에 돌아와 교민사회를 방문했다. 1926년 중국으로 돌아갔다. 이후 한인들이 정착하면 좋을 중국 내 여러 장소와 필리핀 등지를 살펴보고 활동하다 1932년 일본에게 잡혀 한국으로 보내졌고, 1938년에 고국에서 돌아가셨다.		

도입	수업 분위기 조성 및 동기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창호가 전 세계를 누빈 이유를 확인한다.• 한국의 독립 (1910년 일본에 나라를 빼앗기자 자유를 잃고 고통 받는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해 활동)• 세계 한인들의 정착 (근면과 정직 강조, 한인들이 현지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한국독립의 뿌리가 되었으면 함)- 안창호의 학습이유를 제시한다.• 독립운동가, 한인 지도자, 인간으로서 안창호를 통해 한국민의 조국사랑과 정착과정, 그리고 삶에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기- PPT5는 2~3유형 수업 진행시 사용	7분	(학) PPT1~5, 교재2~3페이지
	학습단원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습단원 구두로 제시- '나라의 힘을 키우기 위해' 단원명을 제시한다.- 단원명과 같이 1878~1902년까지 안창호는 나라의 힘을 키우고, 자신을 성장시키기 위해 미국 유학을 떠났음을 강조한다.	1분	(학) PPT6~7
	학습목표 와 순서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습할 목표와 순서 확인 <div>1. 안창호의 출생부터 미국 유학 전(1878~1902) 활동 알아보기</div> <div>2. 안창호의 미국 이동 경로 확인하기</div> <div>3. 안창호 집조(여권)의 입국 스티커 붙이며 입국날짜와 도시 확인하기</div> <div>4. 안창호가 미국 유학 시 마음을 상상해보기 (학습자가 정든 미국을 떠난다고 마음으로)</div>	2분	
전개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1878~1902년 안창호 활동 알아보기 <div>1878년 한국 평남 강서군에서 태어남</div> <div>1894년 한국을 두고 일본과 청(중국)이 전쟁을 일으킨 다른 나라 전투에 한국인들이 고통받고 평양이 파괴되자 힘을 키워 나라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당시 일본, 러시아, 중국이 한국의 영토와 자원을 노렸음)</div> <div>신학문(과학, 수학)을 배우고, 독립협회에 들어가 국민들의 주인의식을 기를 수 있도록 활동함</div> <div>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관리들을 비판하는 연설을 하기도 하고, 점진학교라는 학교를 세워 사람들을 능력을 키우려 함</div> <div>1902년 교육자로서 부족함을 느낀 안창호는 자신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부인 이해련과 미국 유학</div>	13분	(학) PPT8~9, 교재4~5페이지

전개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학 경로와 안창호 집조(여권) 확인 (역사자료활동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에서 미국 유학 가는 지도를 확인한다. (인천, 일본, 하와이 경유, 미국) - 미국에 당시 한인들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여권을 보면서 확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재 가장 뒷면에 입국 허가 스탬프를 찾아 집조를 완성하고 언제, 어느 도시로 들어왔는지 확인하도록 유도 (1902년 10월 14일, 샌프란시스코항 입국) ※ 이 자료는 4)역사자료 해제를 참조하여 추가 보충 설명할 수 있음 ○ 안창호 미국 유학 시 마음 상상해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 위험에 빠진 나라와 가족을 뒤로 한 채 미국으로 가는 안창호는 두려움과 설레임을 동시에 느꼈을 것임 당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20명 한인들이 있을 뿐 이어서 당시 매우 용기가 필요한 결정이었음을 상기 시킨다. 	13분	(학) PPT8~9, 교재4~5페이지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재의 안창호 일생, '당시 한국은'은 개별적으로 읽어 보도록 안내 ○ 다음 단원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유학 후 안창호의 활동에 대해 알아보자. 	2분	

단원		* 2단원 : 미주 동포의 보호와 단결을 위해(1902~1907)	총 소요 시간	25분
학습목표		1. 미국에서의 안창호의 활동(1902~1907)을 안다. 2. 초기 한인사회의 형성과정을 이해한다. 3. 역사자료를 통해 초기 한인들이 정착 시 중요하게 생각한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 4. 역사자료를 통해 안창호의 나라사랑을 느낄 수 있다.		
학습 자료	일반자료	교수자 : 교육자료 PPT 학습자 : 교재(6~9페이지), 펜		
	교재 속 역사자료	공립협회 입회청원서, 안창호가 부인 이혜련에게 보낸 편지(1907)		
학습 단계	학습요소	교육내용	시간	학습자료 : (학) 유의사항 : (유)

도입	수업 분위기 조성 및 동기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위기 조성 및 수업 준비를 위한 눈맞춤하기 ○ 지난 단원에서 배웠던 것을 확인한다. ○ 교육 주제 소개(아래 학습단원 참고) 	5분	
	학습단원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단원 구두로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주 동포의 보호와 단결을 위해' 단원명을 제시한다. - 단원명과 같이 안창호가 1902~1907년까지 미국에 서의 자신의 공부를 포기하고 당시 미국 한인들의 보호와 단결을 위해 노력한 활동을 알아본다. 	1분	(학) PPT10~11
	학습목표와 순서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할 목표와 순서 확인 <div> 1. 안창호의 미국 내 활동(1902~1907) 알아보기 2. 안창호의 한국으로 돌아가는 경로 확인하기 3. 공립협회 입회청원서에 자신의 이름을 적고, 청원서 내용을 읽어보며 한인사회에서 중요시 한 가치를 생각해보기 4. 가족을 두고 한국으로 돌아갈 때의 안창호의 마음을 편지를 읽으며 확인해보기 </div>	2분	
전개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02~1907년 안창호 활동 알아보기 ① <div> 1902년 미국에 도착한 안창호는 당시 한인들의 정착을 위해 공부를 포기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한인 20명이 서로 다투고 미국인들에게 지지분하다는 나쁜 평가를 받자, 미국 시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 1903년 서로의 생활돕고 일자리를 봐주는 한인친목회 만들 1904년 로스앤젤레스 근교 리버사이드에 파차파 노동 캠프를 만들어 한인들이 정착하게 도움 ('과수원에서 굴 한 개를 정성껏 따는 것이 곧 나라를 위하는 일이다.' 라고 강조, 파차파 노동캠프는 2017년 리버사이드 사적지가 됨) 1905년 공립협회를 만들 (샌프란시스코를 비롯하여 미국 각지에 지회를 만들어 600여명의 회원을 확보) </div>	15분	(학) PPT12~15, 교재6~9페이지 (유) 교재 외 펜 준비

전개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립협회 입회청원서 탐구 (역사자료활동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립협회의 성격을 설명한다. (1904년 일본이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미국의 한인들을 간섭하려 하자 1905년에 이를 막기 위해 만든 단체임) - 공립협회가 어떤 단체인지 가입을 원할 때 작성하는 입회청원서를 살펴보면 확인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원서㉠을 읽어보고, 자신의 이름을 쓰도록 함. • 공립협회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바가 무엇인지 이야기해보도록 유도 (동포가 서로 돕고, 얼마 안 되는 동포끼리 뭉쳐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 이 자료는 4)역사자료 해제를 참조하여 추가 보충 설명할 수 있음. 	15분	(학) PPT12~15, 교재6~9페이지 (유) 교재 외 펜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02~1907년 안창호 활동 알아보기 ② <div> 1905년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빼앗아감(을사늑약) 실질적으로 한국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켜 버리자, 나라를 빼앗길 위기를 느낌 1907년 한국을 지키기 위해 귀국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창호 이동경로와 1907년 한국 출발 전 부인 이해련에게 보낸 편지 탐구 (역사자료활동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창호가 미국에서 다시 하와이를 통해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확인한다. - 한국 출발 전 안창호가 느낀 기분과 상황을 편지를 읽으면 알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이 미리 편지를 읽어보도록 유도 • 이천만 동포가 사라지는 위기상황에서 가족과의 이별을 슬퍼할 수 없다는 안창호의 말을 같이 읽어보기 ※ 이 자료는 4)역사자료 해제를 참조하여 추가 보충 설명할 수 있음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재의 안창호 일생, '당시 한국은', '더 알아보기'는 개별적으로 읽어보도록 안내 ○ 다음 단원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에게 나라를 지키기 위해 1907년 한국에 간 안창호의 활동을 알아보자. 	2분	

단원		* 3단원 : 국민의 힘으로 나라를 되찾기 위해 (1907~1911)	총 소요 시간	20분
학습목표		1. 한국과 러시아에서 안창호의 활동(1907~1911)을 안다. 2.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길 당시 한국의 상황을 이해한다. 3. 역사자료를 통해 안창호의 나라사랑을 느낄 수 있다.		
학습 자료	일반자료	교수자 : 교육자료 PPT, 거국가 음원 학습자 : 교재(10~13페이지)		
	교재 속 역사자료	1910년 한국을 떠날 때 안창호가 남긴 거국가(한반도 작별가)		
학습 단계	학습요소	교육내용	시간	학습자료 : (학) 유의사항 : (유)
도입	수업 분위기 조성 및 동기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위기 조성 및 수업 준비를 위한 눈맞춤하기 ○ 지난 단원에서 배웠던 것을 확인한다. ○ 교육 주제 소개(아래 학습단원 참고) 	5분	
	학습단원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단원을 구두로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의 힘으로 나라를 되찾기 위해' 단원명을 제시한다. - 단원명과 같이 안창호가 1907~1911년까지 일본에 한국을 빼앗기는 것을 막기 위해 고국으로 돌아가 한 활동을 집중적으로 알아본다. 	1분	
	학습목표와 순서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할 목표와 순서 확인 <div> 1. 안창호의 한국과 러시아에서 활동(1907~1911) 알아보기 2. 미국에서 한국으로, 러시아로 가는 경로 확인하기 3. 안창호가 한국을 떠나며 지은 거국가를 읽고 들으며 나라를 빼앗긴 마음을 상상해보기 </div>	2분	(학) PPT16~17
전개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07~1911년 안창호 활동 알아보기 <div> 1907년 신민회(국민이 중심이 되어 나라를 새로 한다.)를 만들어 비밀리에 일본 세력을 몰아내고 국권을 회복하려 노력 일본과의 전쟁도 준비(중국과 러시아에 독립운 동기지 세우는 것을 계획) 1908년 평양 대성학교를 세워 인재를 키우려 노력함 </div>		(학) PPT18~21, 교재10~13페이지

전개	활동	<p>1909년 나라를 되찾겠다는 의지를 가진 인재를 키우기 위해 청년학우회를 만들 (덕성, 체력과 지력을 가지고 말보다는 실천을, 겉모습보다는 내면의 성실함을 중시하는 무실역행, 충의용감의 인물을 키우려 함)</p> <p>1910년 안중근의거 관련자로 조사받고, 더 이상 한국에서의 독립운동이 힘들자 러시아로 감 ※안중근의사가 중국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 처단(1909. 10. 26.), 이토 히로부미는 한국의 침략을 주도하고 외교권을 빼앗아간 을사늑약의 주인공임 중국 칭다오에서 독립운동 방향을 정하고 독립을 준비할 수 있는 기지를 세우겠다 생각해 러시아로 감, 러시아 동포들에게 독립의 필요성을 연설하고, 한국 역사를 가르치며 독립의지를 불려 넣으려 노력함</p> <p>1911년 독립운동자금을 모으기 위해 미국으로 돌아감</p>	10분	<p>(학) PPT18~21, 교재10~13페이지</p> <p>(유) PPT와 연결되어 있는 음원 확인하기</p>
		<p>○ 이동경로와 안창호의 거국가(한반도 작별가) 탐구 (역사자료활동 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창호가 한국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러시아로 가는 경로를 확인한다. 일본에 나라를 빼앗긴 상황과 나라를 떠날 때 안창호의 마음을 거국가를 통해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p>* 거국가는 안창호가 한국을 떠나 중국으로 갈 때 남긴 글에 음을 입혀 사람들의 입으로 전해짐. 교재 악보, 신한민보(신문)의 글들이 조금 다르지만, 중요한 내용은 다 같음을 공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국가 음원 틀어주고, 가사에 어려운 단어도 해석해본다. 거국가를 들은 느낌을 학생들과 이야기해 본다. (거국가는 1910년대 국외 민족학교에서 나라사랑하는 노래로 흔히 불리어졌음도 알림) ※ 이 자료는 4)역사자료 해제를 참조하여 추가 보충 설명할 수 있음 		
정리		<p>○ 교재의 안창호 일생, '당시 한국은', '더 알아보기'는 개별적으로 읽어보도록 안내</p> <p>○ 다음 단원 소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11년 미국으로 돌아온 안창호의 활동에 대해 알아보자. 	2분	

단원		* 4단원 : 민족 미래를 위한 기반을 닦기 위해 (1911~1919)	총 소요 시간	40분
학습목표		<p>1. 미국에서의 안창호의 활동(1911~1919)을 안다.</p> <p>2. 하와이, 멕시코 등지를 방문하며 당시 해외 한인들의 정착을 위해 활동했던 안창호의 노력을 안다.</p> <p>3. 1911~1919년 시기의 북남미 한인들의 생활상을 상상할 수 있다.</p> <p>4. 역사자료를 통해 정직과 성실을 강조했던 안창호의 인품을 알 수 있다.</p> <p>5. 역사자료를 통해 안창호가 나라의 독립 뿐만 아니라 새나라세우기도 중시했음을 알 수 있다.</p> <p>6. 미국에 남아있는 안창호 활동의 흔적(사적지)을 확인할 수 있다.</p>		
학습 자료	일반자료	<p>교수자 : 교육자료 PPT</p> <p>학습자 : 교재(14~25페이지), 가위, 풀, 색연필</p>		
	교재 속 역사자료	<p>왕홍성이 안창호에게 보낸 편지, 대한민국민회 총회관 건물 사진</p> <p>안창호 독립운동 구상 도표, 흥사단기</p>		
학습 단계	학습요소	교육내용	시간	학습자료 : (학) 유의사항 : (유)
도입	수업 분위기 조성 및 동기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위기 조성 및 수업 준비를 위한 눈맞춤하기 지난 단원에서 배웠던 것을 확인한다. 교육 주제 소개(아래 학습단원 참고) 	5분	
	학습단원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습단원을 구두로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족 미래를 위한 기반을 닦기 위해' 단원명을 제시한다. 단원명처럼 1911~1919년까지 안창호는 미국, 멕시코, 하와이 등지의 한인들의 정착을 도우며 한국 독립의 뿌리와 기반을 마련하려 노력했음을 강조한다. 	1분	
	학습목표와 순서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습할 목표와 순서 확인 <p>1. 미국에서 안창호 활동(1911~1919) 알아보기</p> <p>2. 한국에서 미국으로 돌아온 경로와 미국, 멕시코, 하와이 방문 경로 확인하기</p> <p>3. 역사자료(왕홍성 편지, 대한민국민회 총회관 건물, 안창호 독립운동 구상 도표, 흥사단기)를 통해 안창호의 품성, 안창호의 활동 흔적, 안창호의 독립운동 계획을 알아보기</p>	2분	(학) PPT22~23

전개	활동	<p>○ 1911~1919년 안창호 활동 알아보기 ①</p> <p>1911년 미국으로 돌아옴 *대한민국민회 활동_미국 한인과 해외 동포들의 권리 수호, 생활 안정을 통해 한국 독립의 기반을 마련하려 함 (안창호가 없는 동안 공립협회는 다른 나라사랑 단체와 묶여 대한민국민회(1910)가 되었음) 안창호는 대한민국민회를 북미, 하와이, 멕시코, 러시아 시베리아, 중국 만주 5개에 지방총회를 두어 해외 한인들을 모두 하나로 묶으려 함 신한민보 발행하여 동포 소식과 독립의지를 불러 넣음 한국 대신 미국 한인을 보호함 (미국 국무성으로부터 일본과 상관없이 미국 내 한인의 일은 한인과 상의할 것을 약속받음, 미국 내 한인의 권리를 지킴) 클래어몬트 한인학생양성소를 세워 한인 2세 교육에 힘씀</p> <p>○ 이동경로와 왕홍성 편지와 대한민국민회 총회관 건물 사진 탐구 (1) 왕홍성 편지(역사자료활동 5) - 안창호가 러시아, 독일, 영국을 거쳐 미국에 온 경로를 확인한다. - 왕홍성 편지가 보내진 배경을 설명한다.</p> <p>* 배경 영국 런던에서 미국으로 돌아갈 여비가 떨어진 안창호가 무작정 중국 집에 들어가 왕홍성에게 돈을 빌렸고, 안창호는 이후 감사의 마음을 담아 선물과 돈을 보냈음 돈과 선물을 받은 왕홍성이 편지를 보낸 것임</p> <p>- 안창호의 성품을 왕홍성 편지를 보고 파악할 수 있다. • 왕홍성 편지를 읽고, 추측되는 안창호 성품을 나타내는 말풍선 찾아보기 • 몇몇 아이들의 생각을 들어보기 (정답은 딱히 없으나 정직, 무실, 충실 등 선택이 유가 확실하면 긍정적으로 반응)</p>	30분	(학) PPT24~31, 교재14~25페이지
----	----	--	-----	--------------------------

전개	활동	<p>(2) 대한민국민회 총회관 건물 사진 (역사자료활동 6) - 안창호가 활동한 대한민국민회의 자취(사적)가 현재 로스앤젤레스에 남아있음을 알린다. - 1938년에 지어진 이 건물은 현재 그대로 남아 대한민국민회 활동을 알 수 있는 기념관이 되었음을 확인한다. (1991년 L.A.역사기념물 제548호로 지정) - 당시 건물 신축 당시 사진을 살펴보고, 17페이지 순서에 따라 총회관 건물을 만들어본다. • 건물의 현재 주소를 확인하도록 함 • 대한민국민회 영문명도 건물 간판에서 확인함 • 17페이지처럼 팝업북 만든 것을 확인하고 나중에 방문하도록 유도 ※ 이 자료는 4)역사자료 해제를 참조하여 추가 보충 설명할 수 있음</p> <p>○ 이동경로와 1911~1919년 안창호 활동 알아보기 ② 및 21페이지 대한민국민회 인물 사진 확인하기</p> <p>*대한민국민회 활동_하와이, 멕시코 한인의 생활기반 마련, 한인들의 미래 기반을 닦기 위해 노력 1915년 하와이 방문 1917~18년 멕시코 방문 (당시 멕시코 상황 : 선박 밭줄 만드는 에네켄 앞 한뫼음 속여 농장주에게 일한 댓가를 더 받아감. 신용을 잃은 한인들에게 일거리를 주지 않아 생활이 어려워짐) 농장주에게 한인에게 일할 기회를 달라고 부탁하고 한인들에게 신용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p> <p>* 21페이지 대한민국민회 사람들 사진 샌프란시스코 페리가에 위치한 대한민국민회 본부 앞 (1912)_조직화하기 위해 노력했음 대조선국민군단의 열병식(1914)_한인 보호 및 한국 독립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 군대양성에도 힘씀 이승만과 박용만(1913)_미국 내 한인 및 한국 독립운동을 위해 노력한 대표적인 인물도 대한민국민회에서 활동했음 클래어몬트 한인학생양성소 교사들과 안창호(1915~6) 안창호가 교육활동에도 힘썼음</p>		<p>(학) PPT24~31, 교재14~25페이지</p> <p>(유) 가위, 풀 별도 준비하기</p>
----	----	--	--	---

전개	활동	<p>○ 1911~1919년 안창호 활동 알아보기 ③</p> <p>* 흥사단 1913년 수양단체 흥사단 만들. 1909년 한국에서 안창호가 만든 청년학우회를 이어 만든 단체임 (실질을 중히 여기고 실천에 힘을 다하는 지식인, 덕체 지를 동료들과 같이 닦으며 건전한 인격을 가진 인물을 키우려 함. 인격을 갖추고 원칙을 지킬 인물이 민족의 독립을 이끌고 한인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함. 이는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도 아닌 일반적으로 사람으로써 살아가는 데 중요한 가치이므로 현재도 흥사단 단체는 한국과 미국 등지에 남아 그 명맥을 잇고 있음)</p> <p>○ 안창호의 독립운동 구상 도표와 흥사단기 탐구 - 안창호의 모든 생각은 한국의 독립과 민족의 발전을 위한 자세가 깔려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인격을 갖춘 인재라 생각함. 흥사단을 준비하면서 생성된 자료에서는 안창호의 그러한 생각을 알 수 있다. (1) 안창호의 독립운동 구상 도표(역사자료활동 7) - 안창호가 흥사단을 준비하면서 그린 도표로 한국 독립에 대한 계획을 그려놓은 것임을 확인한다. • 기초와 완전결과 부분을 확인할 것 • 구상도표를 살펴본 후 느낀 점을 학생들에게 질문하기 (중요한 기초는 단결과 정신력,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했던 바는 조국의 발전과 국권의 회복임. 독립운동의 각 단계가 차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철저히 준비되어 완전결과를 얻어야 된다고 안창호는 생각했음) (2) 흥사단기 (역사자료 활동 8) - 흥사단기에서도 안창호가 흥사단을 만든 이유를 확인할 수 있다. • 글을 읽으며 색연필로 안창호가 도안한 흥사단기의 색을 칠하도록 지도 • 색을 칠한 후 흥사단기 구성과 의미 확인 (사(士, 재능 있는 사람이라는 뜻)는 민족이 단결과 협동했으면 하는 의미로 기러기를 그려넣음 / 오른쪽 아래 칸은 실용의 뜻을 가진 '무실'의 노란색 / 오른쪽 위 칸과 기러기는 실천의 의미를 '역행'을 뜻하는 빨간색 / 왼쪽 원 바깥쪽 칸은 '용감'의 파란색 / 원에는 '충의'의 하얀색) ※ 이 자료는 4)역사자료 해제를 참조하여 추가 보충 설명할 수 있음</p>	(유) 색연필 별도 준비하기

정리	<p>○ 교재의 안창호 일생, '당시 한국은', '더 알아보기'는 개별적으로 읽어보도록 안내</p> <p>○ 다음 단원 소개 - 1919년 중국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의 안창호 활동에 대해 알아보자.</p>	2분	
----	---	----	--

단원		* 5단원 : 나라를 되찾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 (1919~1924)	총 소요 시간	30분
학습목표		1. 중국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의 안창호의 활동(1919~1924)을 안다. 2. 3·1독립운동 이후 중국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됨을 안다. 3. 역사자료를 통해 임시정부의 활동과 한국 독립을 위한 안창호의 전략을 이해할 수 있다. 4. 한국인들의 독립의지를 느낄 수 있다.		
학습 자료	일반자료	교수자 : 교육자료 PPT 학습자 : 교재(26~31페이지), 펜		
	교재 속 역사자료	대한민국 임시정부 독립공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발행한 『독립신문(1920. 1. 8.)』		
학습 단계	학습요소	교육내용	시간	학습자료 : (학) 유의사항 : (유)
도입	수업 분위기 조성 및 동기유발	○ 분위기 조성 및 수업 준비를 위한 눈맞춤하기 ○ 지난 단원에서 배웠던 것을 확인한다. ○ 교육 주제 소개(아래 학습단원 참고)	5분	
	학습단원 제시	○ 학습단원을 구두로 제시 - '나라를 되찾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 단원명을 제시한다. - 단원명과 같이 1919년 한국 전역에서 독립을 위한 만세운동(3·1독립운동)이 일어나고, 조직적인 독립운동을 위해 중국에 임시정부를 만들어지자, 안창호도 나라를 되찾고 새 나라를 만들기 위해 중국으로 갔음을 강조한다.	1분	
	학습목표와 순서확인	○ 학습할 목표와 순서 확인 1. 중국에서 안창호 활동(1919~1924) 알아보기 2. 미국에서 중국으로 가는 경로 확인하기 3. 독립공채를 통해 미주 한인들의 독립운동 지원활동 알아보기 4.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발행한 독립신문에 있는 안창호의 연설을 읽고 들으면서 독립에 대한 열망과 전략을 생각하고 느껴보기	2분	(학) PPT32~33

전개	활동	<p>○ 이동경로와 1919~1924년 안창호 활동 알아보기 ①</p> <p>– 안창호가 미국에서 중국으로 갔음을 확인하고 안창호가 임시정부에서 한 다양한 활동을 알아본다.</p> <p>1919년 미국 동포들이 모아준 2만 5천 달러를 가지고 중국 상하이로 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참여 (임시정부 살림을 담당하는 내무총장 겸 대표 대리인인 국무총리 서리를 맡음)</p> <p>①정부 건물을 마련(보창로 309호)</p> <p>②한국과 해외 한인사회를 연결하고 자금을 모으기 위해 비밀연락망 연통제와 교통국 설치</p> <p>③독립운동 활동을 알리기 위한 독립신문 발행</p> <p>④상하이 한인들을 위한 병원시설을 갖추기 위해 대한적립사회 설치</p> <p>⑤일제침략과정을 알리기 위해 역사책을 만드는 임시사료 편찬위원회 만들.</p> <p>⑥한국 내외의 독립군단체를 하나로 뭉치려고 미국 캘리포니아에 비행학교 설립 지원</p> <p>* 중국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p> <p>1919년 3월 1일, 10여년의 일본 통치 상황에서 자유와 인권을 억압받던 한국인들은 전국적으로 만세운동을 벌였음. 3·1만세운동을 본 많은 독립운동가들은 국민들이 스스로 나라를 되돌려달라고 만세를 부르는 모습을 보고, 나라의 독립을 할 수 있는 희망을 얻었음. 조직적인 독립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여기 저기 대한민국 수립을 위한 임시정부가 만들어짐. 한성(서울)정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대한국민의회와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표적이었음. 이 3가지 단체는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합쳐졌고(1919. 9.) 이를 이끌어낸 인물이 바로 안창호임</p> <p>○ 독립공채와 독립신문의 안창호 연설 탐구</p> <p>(1) 독립공채(역사탐구활동 9)</p> <p>– 독립공채는 독립운동자금을 모으기 위해 임시정부가 발행한 것을 확인한다.</p> <p>– 영문으로 적혀있음을 확인하고, 미국 한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임을 추측한다.</p>	20분	(학) PPT34~37, 교재26~31페이지
----	----	--	-----	--------------------------

전개	활동	<p>– 미주 한인들이 독립공채를 많이 구입(1919년 대한민국 국민회에서 임시정부에 3만 600달러를 보낸 것으로 알려짐)했음을 설명한다.</p> <p>(독립공채에는 공채 구입자에게 대한민국이 수립되면 공채 금액(빌린 돈)에 이자를 6%이자를 붙여 돌려주겠다는 내용이나, 사실 언제 한국이 일본에게 독립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독립공채는 경제적 가치보다는 한국의 독립을 지원한다는 의미가 있음)</p> <p>– 만약 자신이 당시의 미주 한인이라면 임시정부를 위해 얼마나 돈을 빌려줄 수 있을지 생각해보게 한다.</p> <p>• 임시정부를 위해 얼마나 돈을 빌려줄 수 있을지 빈 칸에 적어보게 하기(달러)</p> <p>• 몇몇 아이들의 적은 금액 같이 확인해보기</p> <p>※ 이 자료는 4)역사자료 해제를 참조하여 추가 보충 설명할 수 있음</p> <p>(2) 독립신문의 안창호 연설 탐구(역사자료활동 10)</p> <p>– 독립신문은 안창호가 독립운동 활동을 알리기 위해 임시정부에서 만든 신문임을 확인한다.</p> <p>– 독립신문의 안창호의 연설이 담긴 것을 확인하고 독립신문의 성격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한다.</p> <p>(한국의 독립운동 활동을 알려, 한국인들의 독립의지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발행)</p> <p>– 선생님 또는 학생 1명이 정갈 연설하듯이 읽어보게 한다.</p> <p>– 아이들과 안창호가 국민이 결단코 실행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라 주장했는지 확인한다.</p> <p>• 한국인이 실행해야 할 6가지 일을 확인 (군사, 외교, 교육, 사법, 재정, 통일)</p> <p>• 군사를 키우기 위해 강조한 것이 무엇인지 묻기 (남자든 여자든 군사훈련 받자, 국민개병제)</p> <p>• 궁극적으로 6가지 중 강조한 것이 통일임도 같이 이야기해보기</p> <p>※ 이 자료는 4)역사자료 해제를 참조하여 추가 보충 설명할 수 있음</p> <p>○ 1919~1924년 안창호 활동 알아보기 ②</p> <p>1923년 국민대표회의를 열</p> <p>당시 비밀연락망이 무너져 국내외 연락도 안되고 독립운동자금이 부족해 상황이 어려워짐</p> <p>사람들의 독립운동 의지를 높이기 위해 회의를 열었으나 당시 활동하던 사람들을 하나로 뭉치는 것에 어려움을 겪음</p>		<p>(학) PPT34~37, 교재26~31페이지</p> <p>(유) 펜 별도 준비하기</p>
----	----	--	--	--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재의 안창호 일생, '당시 한국은', '더 알아보기'는 개별적으로 읽어보도록 안내 다음 단원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24~1926년 미국 동포들의 독립의지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노력했던 안창호의 활동에 대해 알아보자. 	2분	
----	---	----	--

단원		* 6단원 : 미국 동포들의 독립의지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1924~1926)	총 소요 시간	20분
학습목표		1. 미국 내에서의 안창호의 활동(1924~1926)을 안다. 2. 역사자료를 통해 미국 동부지역 방문도시와 경로를 알 수 있다. 3. 가장으로서의 안창호 마음을 느낄 수 있다.		
학습 자료	일반자료	교수자 : 교육자료 PPT 학습자 : 교재(32~33페이지)		
	교재 속 역사자료	안창호가 가족들에게 보낸 엽서와 편지		
학습 단계	학습요소	교육내용	시간	학습자료 : (학) 유의사항 : (유)
도입	수업 분위기 조성 및 동기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위기 조성 및 수업 준비를 위한 눈맞춤하기 지난 단원에서 배웠던 것을 확인한다. 교육 주제 소개(아래 학습단원 참고) 	5분	
	학습단원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습단원을 구두로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동포들의 독립의지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단원명을 제시한다. 단원명과 같이 안창호가 1924~1926년동안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며 대한민국임시정부 활동과 한국의 독립을 지원해 줄 것을 호소했음을 강조한다. 또한 이 시기 가족에게 보낸 우편물에서 가장으로서의 안창호의 모습도 살펴볼 수 있음을 알린다. 	1분	(학) PPT38~39
	학습목표와 순서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습할 목표와 순서 확인 <div> 1. 미국에서 안창호 활동(1924~1926) 알아보기 2. 안창호가 가족에게 보낸 엽서와 편지를 살펴봄 안창호의 이동경로 추측해보기(시기 및 도시) 3. 엽서와 편지를 살펴봄 안창호가 가족을 아끼는 마음을 느껴보기 </div>	2분	

전개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24~1926년 안창호 활동 알아보기 <div> 1924년 미국으로 돌아옴 1925년 미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임시정부의 지원을 통해 한국 독립을 이루자고 호소 (안창호의 말 : 임시정부는 피로 세운 정부이며 국민 된 자가 받들 의무가 있다. 미국 동포들이 한 사람 당 1원씩 내어 임시정부를 유지하자.) 1926년 5만 달러의 독립운동자금을 가지고 임시정부가 있는 상하이로 감 </div>	10분	(학) PPT40~46, 교재32~33페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창호의 이동경로와 안창호가 가족한테 보낸 편지와 카드 탐구(역사자료활동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봉투에 있는 편지와 카드를 같이 확인한다. 임시정부 지원을 호소하기 위해 미국 전역을 돌아다닐 때 가족에게 보낸 편지와 카드를 시간 순으로 배치해보고, 이동경로를 확인한다. (아이들이 살펴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줌) ① 1925. 4. 15, 덴버에서 필선에게 보낸 엽서 (현재 덴버고, 시카고 간다는 내용) ② 1925. 5. 18, 시카고에서 아내 이해련에게 보낸 엽서 (시카고에 도착했고, 내일은 필라델피아로 가고 이후 뉴욕에서 1주일이상 머무른다는 내용) ③ 1925. 5. 25, 필라델피아에서 수라에게 보낸 엽서 (보고싶다. 다음 달에 집에 가겠다는 내용) <p>(※국문 교재의 경우, 편지가 6월 18일자로 오타 났음, 아이들에게 5월 18일로 수정할 것을 알려주세요!)</p> <p>※ 이 자료는 4)역사자료 해제를 참조하여 추가 보충 설명할 수 있음</p> <div> * 엽서와 편지로 알수 있는 경로 덴버(1925. 4. 15, 일경) - 시카고(1925. 5. 18, 일경) - 필라델피아(1925. 5. 25, 일경) - 추후 뉴욕 </div> <div> - 편지와 카드, PPT의 가족사진을 보며 아버지 안창호의 마음도 느껴본다. (사진 소개 : 첫째 아들 필립, 둘째 아들 필선, 첫째 딸 수산, 둘째 딸 수라, 당시 막내 아들 필영은 이해련이 임신하고 있는 상태)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26년 안창호가 중국 상하이로 갈 때 남긴 말을 같이 되새겨보기 “훌륭한 미국인이 돼라, 그러나 한국인의 정신은 잊어서는 안된다.” 		

전개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섯 형제를 간단히 소개한다. (3남매(안수산, 필립, 필영)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지원해서 미군에 입대, 특히 첫째 딸 수산은 동양인 최초로 미 해군 최초 여성 포격술 장교가 됨) ※ 이 자료는 4)역사자료 해제를 참조하여 추가 보충 설명할 수 있음.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재의 안창호 일생, '당시 한국은', '더 알아보기'는 개별적으로 읽어보도록 안내 ○ 다음 단원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26~1932년 민족의 통합을 위해 노력했던 안창호의 활동에 대해 알아보자. 	2분	

단원		* 7단원 : 민족의 통합을 위해(1926~1932)	총 소요 시간	30분
학습목표		1. 중국에서의 안창호의 활동(1926~1932)을 안다. 2. 역사자료를 통해 나라 잃은 국민으로서 독립운동 추진의 어려움을 알 수 있다. 3. 안창호가 이상춘을 세우고자 했던 목적을 확인한다. 4. 민족지도자로서의 안창호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 5. 상하이에서 안창호가 일본에게 체포된 상황을 알아본다.		
학습 자료	일반자료	교수자 : 교육자료 PPT 학습자 : 교재(34~41페이지), 스테이플러		
	교재 속 역사자료	안창호 중국 여권		
학습 단계	학습요소	교육내용	시간	학습자료 : (학) 유의사항 : (유)
도입	수업 분위기 조성 및 동기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위기 조성 및 수업 준비를 위한 눈맞춤하기 ○ 지난 단원에서 배웠던 것을 확인한다. ○ 교육 주제 소개(아래 학습단원 참고) 	5분	
	학습단원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단원을 구두로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족의 통합을 위해' 단원명을 제시한다. - 단원명과 같이 1926~1932년동안 중국에서 모든 사람들의 힘을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모으고, 한인들이 단결하여 살 수 있는 이상춘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음을 강조한다. 	1분	(학) PPT47~48

도입	학습목표와 순서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할 목표와 순서 확인 <div> 1. 중국에서 안창호 활동(1926~1932) 알아보기 2. 중국으로의 이동, 필리핀 방문 경로 알아보기 3. 안창호 중국 여권을 살펴봄에 안창호가 다른 나라 여권을 받은 이유를 생각해보기 4. 나만의 안창호 역사자료(중국 여권)를 만들어보기 5. 안창호 일본체포 당시 상황(윤봉길의거 포함) 상상해보기 </div>	2분	
전개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26~1932년 안창호 활동과 이동경로 알아보기 ① <div> 1926년 중국으로 돌아와 정치, 경제, 종교, 사상이 모두 달라진 '독립'만을 위해 하나로 뭉쳐야 함을 강조, 이를 위해 민족의 유일한 '정당' 만들기를 주장 1929년 필리핀을 방문해 한인들이 머물 *이상춘을 만들 곳을 둘러보고, 대한민국회 필리핀 지회를 만들 * 이상춘=독립운동기지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창호 중국 여권 탐구(역사자료활동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여권 만들기를 지도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만의 안창호 여권을 만들어본다는 의미 부여 • 37~40페이지에 있는 중국여권을 뜯고 36페이지에 있는 만들기 순서에 따라 제작 • 아이들이 만드는 시간을 충분히 줌 - 여권 5페이지에 있는 안창호가 직접 기재했던 여권 내용을 같이 확인해본다. <div> * 5페이지에 기재된 사항 이름 : 안창호, 나이 : 51세, 직업 : 교사 출생지 : 중국 장쑤(강소), 국적 : 중국, 신장 : 5척 8촌 (참고로 1척 : 30.3cm, 1촌 : 3cm)(175~6cm), 사용기간 : 1년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창호가 왜 중국 여권을 발급받았는지 생각해본다. (나라 잃은 사람이라 중국 여권 없이는 세계를 돌아다니며 독립운동하기가 힘들었음을 되새겨보기) 	20분	(학) PPT49~52, 교재34~41페이지 (유) 스테이플러 별도 준비하기

전개	활동	<p>– 안창호가 필리핀을 방문한 이유를 확인해본다. (한국인 1,000여 명이 사는 이상촌을 만들면 100~200명의 독립군을 기를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을 4페이지 ‘더 알아보기’를 같이 읽으며 확인) ※ 이 자료는 4)역사자료 해제를 참조하여 추가 보충 설명할 수 있음</p> <p>○ 1926~1932년 안창호 활동과 이동경로 알아보기 ②</p>		
		<p>1930년 유일당은 아니지만 자신의 뜻에 공감해주는 사람들과 한국독립당을 만들어 독립운동에 힘쓰다 1932년 일본이 윤봉길의거에 사용한 폭탄을 건넸다고 생각했던 인물인 이윤희의 집을 방문하다 잡혀 한국으로 보내짐</p>		
정리		<p>* 윤봉길의거 1932년 4월 29일, 상하이로 침공해 승리한 것을 기념하고 일왕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일본이 준비한 행사장(홍커우 공원)에 윤봉길이 폭탄을 던져 일제침략자를 처단, 윤봉길의거 이후 중국은 한국과 함께 일본에 대항해 싸우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 한국의 독립운동을 지원했음 윤봉길은 1930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김구가 만든 의열단체 한인애국단 단원이었음 (PPT에 홍커우공원 행사장 모습과 폭탄을 던진 후 연행되는 윤봉길 사진이 담겨있음)</p>		
		<p>○ 교재의 안창호 일생, ‘당시 한국은’, ‘더 알아보기’는 개별적으로 읽어보도록 안내 ○ 다음 단원 소개 – 1932~1938년 죽는 날까지 민족의 고통에 가슴 아파하던 안창호에 대해 알아본다.</p>	2분	

단원		* 8단원 : 죽는 날까지 민족의 고통에 가슴 아파하며 (1932~1938)	총 소요 시간	35분
학습목표		1. 한국에서의 안창호의 활동(1932~1938)을 안다. 2. 역사자료를 통해 당시 안창호의 체포, 순국 시 미국 한인 사회의 분위기를 알 수 있다. 3. 역사자료를 통해 안창호의 일생과 활동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4. 죽는 순간까지 민족을 걱정했던 안창호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 5. 안창호 서거 후 안창호가 활동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미주 한인 사회의 독립운동을 알 수 있다. 6. 한국의 독립에는 전 세계 한인들의 노력이 기반이 되었음을 안다.		
학습 자료	일반자료	교수자 : 교육자료 PPT 학습자 : 교재(42~56페이지)		
	교재 속 역사자료	안창호 체포 전보문 및 수형기록카드 하와이 아메리카 코리아 신문(1938. 3. 28.)		
학습 단계	학습요소	교육내용	시간	학습자료 : (학) 유의사항 : (유)
도입	수업 분위기 조성 및 동기유발	○ 분위기 조성 및 수업 준비를 위한 눈맞춤하기 ○ 지난 단원에서 배웠던 것을 확인한다. ○ 교육 주제 소개(아래 학습단원 참고)	5분	(학) PPT53~54
	학습단원 제시	○ 학습단원을 구두로 제시 – ‘죽는 날까지 민족의 고통에 가슴 아파하며’ 단원명을 제시한다. – 단원명과 같이 안창호가 1938년 안창호가 한국에서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민족과 국가를 걱정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분	
	학습목표와 순서확인	○ 학습할 목표와 순서 확인 1. 한국에서 안창호 활동(1932~1938)과 이동경로 알아보기 2. 체포 전보문을 살펴봄에 안창호 체포 당시 상황과 당시 미주 한인들의 반응을 파악하기 3. 수형기록카드를 살펴봄에 체포 당시 안창호의 모습을 확인하기 4. 죽는 순간까지 민족과 국가를 생각했던 안창호 유언 확인하기 5. 하와이 아메리카 코리아 신문을 통해 안창호 서거에 대한 미주 사회의 반응 알아보기 6. 안창호 서거 후 임시정부와 미주 한인의 독립운동 알아보기 7. 한국독립에는 전 세계 한인의 도움과 지원이 있기에 가능했음을 생각해보기	2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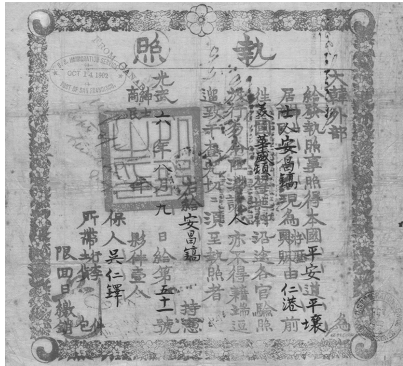
전개	활동	<p>○ 1932~1938년 안창호 활동과 이동경로 알아보기 ①</p> <p>1932년 중국 상하이에서 한국으로 보내져 서울 서대문 형무소에 갇힘 1935년 2년 6개월 옥살이 끝에 감옥에서 나옴</p> <p>○ 안창호 체포 전보문 및 수형기록카드 탐구</p> <p>① 안창호 체포 전보문(역사자료활동 1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봉투를 열어 전보문을 꺼내도록 한다. - 전보문을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도록 한다. - 모두 미국에서 받은 전보문으로 안창호의 체포과정과 상황을 확인한다. <p>㉠ 1932년 5월 2일 오전 7시 49분 (안창호 체포되어 단식 중이라는 내용)</p> <p>㉡ 1932년 5월 2일 오후 11시 5분, 영문과 한글을 영문으로 발음나는대로 기록한 2장의 전문 (상하이 프랑스 조계지역에 있던 이유필의 집을 방문한 안창호가 체포되어 일본경찰이 잡고 있다는 내용)</p> <p>㉢ 1932년 5월 28일 오후 5시 58분 (일본이 안창호가 중국에 귀화한 것을 인정하고 있지만, 이중 국적은 불법이라면서 놓아주지 않고 있음을 알리는 내용)</p> <p>② 수형기록카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보문 내용대로 일본은 안창호를 체포하여 서대문 형무소에 가뒀고 형무소가 작성한 수형기록카드에서 안창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 그동안 보던 것에 비해 많이 야위었음을 살펴보기 <p>※ 이 자료는 4)역사자료 해제를 참조하여 추가 보충 설명할 수 있음</p> <p>○ 1932~1938년 안창호 활동 알아보기②</p> <p>1935~36년 전국을 다니며 사람들의 독립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연설을 하였으나 일제의 제재를 받고 송태산장에 정착 (“우리 중에 인물이 없는 것은 인물이 되려고 마음먹고 힘쓰는 사람이 없는 까닭이다. 인물이 없다고 한탄하는 그 사람 자신이 왜 그 인물 될 공부를 안하는가?”)</p> <p>1937년 국내 흥사단 조직인 동우회 회원을 잡아들이면서 같이 체포되어 조사받음</p>	20분	(학) PPT55~60, 교재42~49페이지

전개	활동	<p>1938년 3월 10일, 60세 나이로 죽음 (유언같이 읽기, 더 알아보기) 경기도 망우리 공동묘지에 묻힘, 중국과 미국 각지에 추모회가 열려 독립운동가이자 민족지도자의 죽음을 슬퍼함</p> <p>○ 아메리카코리아 신문(1938. 3. 28.) 탐구 (역사자료활동 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창호의 죽음에 대한 미주 한인들의 분위기를 확인해본다. 특히 선생님들께서 인상적인 부분은 자율적으로 강조해서 아이들과 같이 읽어본다. • 45페이지 : 안창호의 죽음에 일본이 책임이 있음을 알림 • 46페이지 : 안창호의 일생과 안창호 첫째 아들 안필립에 대한 소개 • 47페이지 : 안창호에 대한 평가 <p>※ 이 자료는 4)역사자료 해제를 참조하여 추가 보충 설명할 수 있음</p> <p>○ 안창호 서거 후 1945년 한국 광복 때까지 임시정부와 미주 한인들의 독립운동 확인</p> <p>* 대한민국 임시정부 활동 윤봉길의거 후 중국 전역을 돌아다니다 1940년 중국 충칭에 정착, 한국광복군을 창설 미국과 일본이 태평양전쟁을 시작하자 미국과 함께 일본에 대항해 전쟁을 벌임, 특히 중국에 머물던 미국과 함께 한국진입작전을 위한 특수훈련을 했음 * 미국 한인들의 독립운동 1941년 미국 내 한인단체 9개가 합쳐져 재미한족연합위원회가 생겨 임시정부에 독립운동자금을 대고, 미국 전쟁을 후원 1942년 8월 29일(국치일), L.A. 시청에 태극기가 걸렸고, 1944년에는 미우정국에서 태극기우표를 발행하여 미국이 한국의 독립운동을 지원한다는 의지를 확인받는 등의 활동을 함.</p>	7분	(학) PPT61~63, 교재50~54페이지
		<p>○ 안창호를 비롯해 한국의 독립을 위해 활동한 250여 명의 독립운동가들의 명단을 살펴본다.(대한민국으로부터 공훈을 인정받음) (51~54페이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먼 타지에서도 한국인의 정신을 잊지 않고 한국독립 지원을 멈추지 않았던 동포들이 있었기에 1945년 8월 15일 한국이 독립했음을 안다.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지고 한국 국민이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며 발전하고 있음을 알린다. ○ 안창호가 자식들에게 남긴 마지막 말 - “훌륭한 미국인이 돼라, 그러나 한국인의 정신은 잊지마라.”의 의미를 각자 이야기해본다. (어떤 의미도 부여하지 말고, 아이들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들어본다.) 		
선택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고장(지역)의 독립운동가나 사적지를 조사해서 55~56페이지에 기록해본다. • 맨 뒷장의 스티커를 사용 ※ 참고사이트 : 국가보훈처 전자공훈록 독립기념관 국외독립운동사적지 홈페이지 	2분	

4) 역사자료 해제

① 안창호 집조(여권)



독립기념관 소장, 자료번호 1-A00029-003

안창호가 1902년 미국에 유학을 가기 위해 발급받은 여권(passport)이다. 여권은 외국을 여행하는 사람의 신분이나 국적을 증명하고 상대국에 그 보호를 의뢰하는 문서이다. 한국에 여행권제도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 ‘여권’에 대한 적당한 용어가 없어서 ‘집조(執照)’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집조’는 원래 관청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류를 통칭하는 일반 명사로 외부에서 발행한 집조는 통행 허가 증명서이다.

안창호의 집조는 1902년(광무 6년) 8월 9일 대한제국 외부(外部)에서 51번째로 발급되었다. 이 집조에 의하면 평안도 평양에 거주하는 “사인(士人) 안창호(安昌鎬)”라고 적혀있다. 미주에서는 일반적으로 ‘安昌鎬’를 사용하였다. 인천에서 출발하여 미국의 워싱턴 등지를 여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자료의 오른쪽 아래에 밴쿠버(Vancouver)라고 찍힌 인장 옆에 1902년 10월 7일자 미국 출입국관리국장(US Immigration Service Commissioner) 인장이 있고, 자료 왼쪽 위에 ‘FROM CANADA’ 인장과 10월 14일자 샌프란시스코항 미국 출입국관리사무소 인장이 찍혀 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안창호는 캐나다 밴쿠버를 경유하여 1902년 10월 1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항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김도형, 「도산 안창호의 ‘여행권’을 통해 본 독립운동 행적」, 한국독립운동사연구52, 2015.

② 공립협회 입회청원서

안창호가 1905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조직한 공립협회의 입회청원서 양식이다.



*식양 : 양식
 *내외지 : 내지와 외지, 즉 미국 내와 미국 밖
 *동종상보 : 같은 종족(조상이 같고, 같은 게통의 언어·문화 따위를 가지고 있는 사회 집단)이 서로 도움
 *양모 : 우러러 따름
 *입회 : 모임에 들어가 회원이 됨
 *조랑 : 형편이나 사정을 살펴서 분명하게 알
 *허시 : 요청하는 대로 들어줌
 *옹희 : 대한제국 순종 때의 연호 (1907~1910)
 *관향 : 본관
 *천보인 : 추천 보증인

공립협회 입회청원서 *식양 内外地通用
 *내외지통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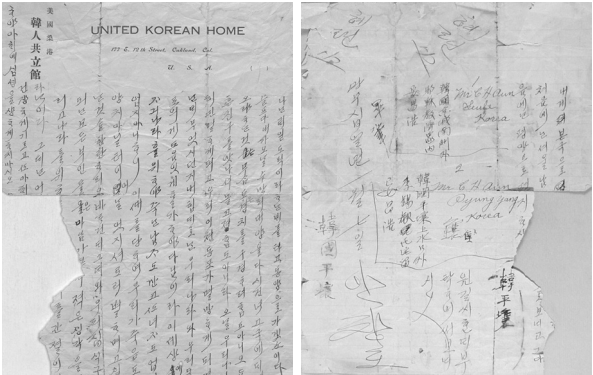
UNITED KOREAN ASSOCIATION
 會協立共
 회협립공
 保相種同 立成體團
 *보상종동 립성체단

請願書
 청원서
 貴會의 同種相保호 目的을 仰慕하고 國民 | 團體
 귀회의 동종상보할 목적을 *양모하고 국민이 단체
 成立호 義務로 入會하기를 茲에 志願호니
 성립할 의무로 *입회하기를 자에 지원호니
 照亮 許施호심을 伏望
 *조랑 *허시하심을 복망
 隆熙 年 月 日
 *옹희 년 월 일

請願人 △△△ ●
 청원인
 貫鄉 年齡 現在地名
 *관향 연령 현재지명
 本籍 港 坊 洞
 본적 항 방 동
 道 郡 面 里
 도 군 면 리
 第 統 戶
 제 통 호
 薦保人 △△△ ● △△會員
 *천보인 회원
 △△△ ● △△會員
 회원

△△國△△△地方
 국 지방
 大韓人共立協會會長 △△△ 閣下
 대한인공립협회회장 각하

③ 1907년 안창호가 한국으로 출발하기 전 부인 이해련에게 보낸 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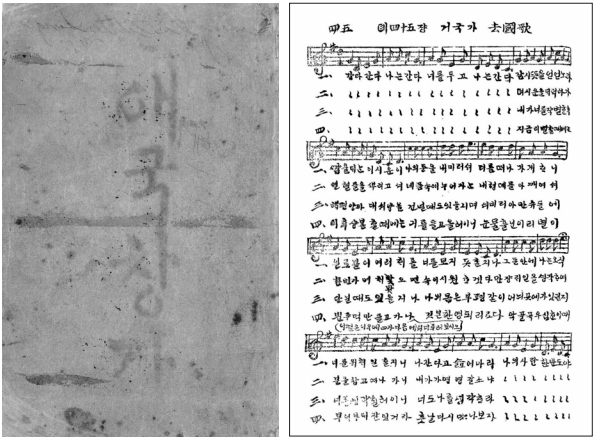


독립기념관 소장, 자료번호 1-A00029-005

명이 생기고 공립관에 화재가 발생하자 샌프란시스코 만의 동안에 위치한 오클랜드로 잠시 옮겼다. 편지지 United Korean Home 아래 주소(캘리포니아 오클랜드 12번가 177호)도 확인할 수 있다. 韓人共立館(한인공립관) 오른편의 미국 상항(桑港)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한자식 표현이다.

나는 내일 도리이라 하는 배를 타고 동양으로 가겠소이다. 슬프다 내가 오늘 수만리 대양을 다시 건너 고국에 다녀오려 하는 것은 무슨 좋은 경치를 구경하려 함도 아니요, 좋은 친구를 만나서 놀고자 함도 아니라, 오늘 우리나라가 민멸하게 되고 우리 이천(만) 동포가 멸망하게 되었는데 무엇이든지 내 힘대로는 우리나라와 우리 동포에게 도움있게 할까하여 다짐이라. 이 세상에 자기나라를 위하여 죽는 남자도 많고 또 여자도 없지 아니하니 이 때를 당하여 우리가 죽음도 사양치 않을 터이어늘 어찌 서로 이별하며 고생하는 것을 한탄하리오.(자료 훼손으로 다음 생략)

④ 거국가



독립기념관 소장, 자료번호 3-008961-000, 등록문화재 제475호

1907년 1월 7일 안창호가 한국으로 출발하기 전 부인 이해련에게 보낸 편지이다.

편지지는 United Korean Home, 즉 한인 공립관(共立館)에서 만든 것이다. 공립관은 1905년 11월 22일 공립협회가 샌프란시스코 퍼시픽가 938호에 만든 한인들을 위한 회관이다. 1906년 샌프란시스코 대지진으로 한인 피해자 55

○ 애국창가 표지 및 악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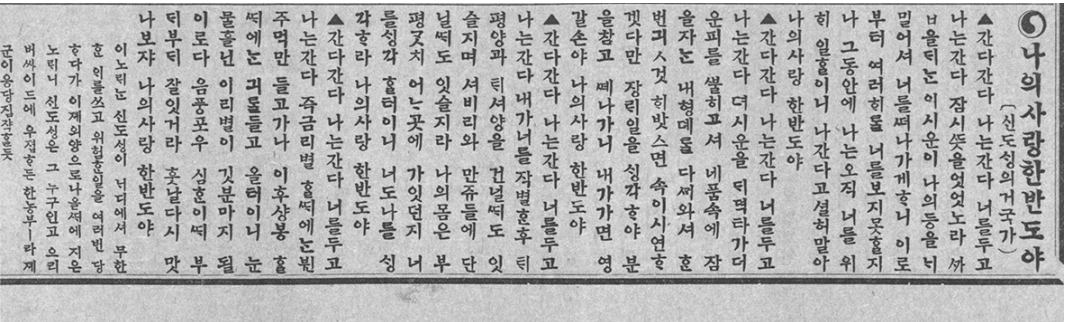
교재 속 거국가 악보는 1916년 미국 하와이에서 펴낸 애국창가 악보집 『애국창가』에 실린 것이다. 애국창가는 당시 애창되던 노래의 선율에 애국시를 붙여 만든 노래이다. 통감부 초대 통감인 이토와 마지막 통감이자 총독부 초대 총독인 테라우찌가 한국을 지배할 때 압수당한 애국창가 70여개를 수집 편찬하여 등사판으로 펴낸 것으로, 여러 편의 애국가와 국민가, 거국가, 정신가, 한영서원가

등 애국적·저항적 창가가 악보와 함께 수록되어 있다. 대부분의 악곡이 서양의 장·단 음계를 기초로 하고 있지만 방아타령과 같은 민요조의 악곡도 포함되어 있다. 한국 내에서는 금지곡으로 지정되었으나, 러시아·미주 등지의 민족학교에서 나라사랑하는 노래로 불리었졌다.

○ 『신한민보』 거국가 가사

1절	2절
간다간다 나는간다 너를두고 나는간다 잠시뜻을 얻었노라 까불대는 이*시운이 나의등을 내밀어서 너를떠나 가게하니 이로부터 여러해를 너를보지 못할지나 그동안에 나는오직 너를위해 일하리니 나간다고 설워마라 나의사랑 한번도아	간다간다 나는간다 너를두고 나는간다 저시운을 대적타가 더운피를 뿌리고서 네품속에 잠을자는 내형제를 다깨워서 한번기껏 해봤으면 속이 시원 하겠다면 장래일을 생각하여 분을참고 떠나가니 내가 가면 영갈소나 나의사랑 한번도아
3절	4절
간다간다 나는간다 너를두고 나는간다 내가너를 작별한후 태평양과 대서양을 건널때도 있을지며 시베리아 만주들에 다닐때도 있을지라 나의몸은 *부평같이 어느곳에 가있던지 너를생각 할터이니 너도나를 생각하라 나의사랑 한번도아	간다간다 나는간다 너를두고 나는간다 지금이별 할때에는 빈주먹만 들고가나 이후*상봉 할때에는 기를들고 울터이니 눈물흘린 이이별이 기쁜맛이 되리로다 *음풍폭우 심한이때 부디부디 잘있거라 훗날다시 만나보자 나의사랑 한번도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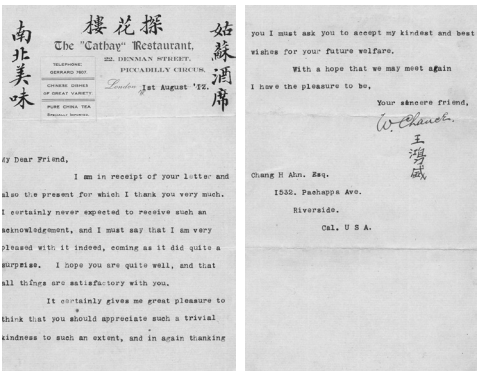
- * 시운 : 시대나 그 때의 운수
- * 부평 : 물 위에 떠 있는 풀,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신세
- * 상봉 : 서로 만남
- * 음풍 : 흐린 날씨에 음산하고 싸늘하게 부는 바람



안창호의 거국가는 대한인국민회에서 발행하는 『신한민보(新韓民報)』 1910년 6월 15일자에 실렸다. 기사 제목은 ‘나의 사랑 한반도야(신도생의 거국가)’이며, 기사 마지막에 “이 노래는 신도생이 *내지에서 무한한 애를 쓰고 위험한 일을 여러 번 당하다가 이제 *외양으로 나올 때에 지은 노래니 신도생은 그 누구이고 리버사이드에 *우접하던 한 농부라 제군이 응당 짐작할 듯”이라 부기하여, 신도생이 바로 안창호임을 알렸다.

- * 내지 : 본국
- * 외양 : 육지에서 떨어진 먼 바다
- * 우접 : 임시로 살다

⑤ 왕홍성이 안창호에게 보낸 편지



독립기념관 소장, 자료번호 1-A00029-042

버사이드 파차파가 1532호)를 확인할 수 있다. 1904년 안창호가 세운 파차파캠프는 2.96에이커 부지에 한인회관, 17동의 주거시설을 갖춘 코리아타운으로, 2017년 리버사이드 사적지로 지정되었다.

⑥ 대한인국민회 총회관 건물



총회관 건물 신축을 위한 의연 모금을 시작한 후 한인 동포들은 7,109.78달러의 의연금을 모았다. 1937년 대한인국민회 본부가 로스앤젤레스로 이사한 이듬해인 1938년 4월 17일 부활절날에

영국 런던에서 W. Chance(왕홍성)가 1912년 8월 1일자로 안창호에게 보낸 편지이다. 안창호가 보내 준 선물을 받고 놀라면서도 몹시 고마워하고 있음을 전하고 있다. 교재에 적힌 대로 안창호가 미국으로 가던 중 여행비용이 부족해 중국인 음식점에 무작정 들어가 왕홍성에게 돈을 빌렸다. 이후 안창호가 미국으로 돌아와 빌린 돈과 함께 편지, 선물을 보내자 이에 대해 답장을 한 것이다.

당시 안창호가 머물던 주소(미국 캘리포니아 리

1938년 4월 17일, 부활절에 낙성된 대한인국민회 총회관 건물이다.

1935년 대한인국민회 총회장으로 부임한 최진하가 노인구제, 2세 청년의 교양, 대한민국임시정부 후원을 목적으로 대한인국민회 중심의 합동운동을 전개하면서 1936년부터 로스앤젤레스에 새 총회관 건립을 추진하였다. 1936년 12월 27일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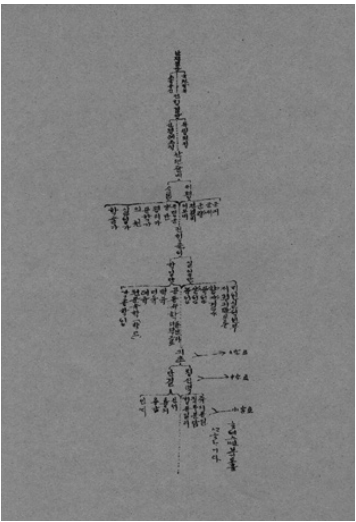
낙성식을 치렀다. 1991년 로스앤젤레스 역사기념물 제548호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대한인국민회 기념관이다.

〈참고자료〉 독립기념관 국외사적지 홈페이지(<http://oversea.1815.or.kr/>)



대한인국민회 총회관건물 낙성식, 1938년 4월 1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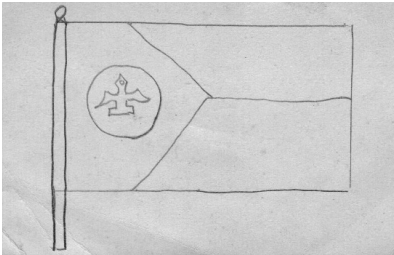
⑦ 안창호 독립운동 구상 도표



독립기념관 소장,
자료번호 1-A00029-042

안창호의 유품인 수첩에 그려져 있었던 도표로 조선의 완전한 독립을 목적으로 5단계 과정이 그려져 있다. 기초-진행준비-완전준비-진행결과-완전결과로 이어지는 도표는 정신력과 단결을 기초(1단계)로, 실업단·학업단(2단계)을 준비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정·사람(3단계)을 양성하면, 독립전쟁·신정체조직(4단계)을 이뤄낼 수 있어 완전결과(5단계)인 국권광복·조국증진을 성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⑧ 흥사단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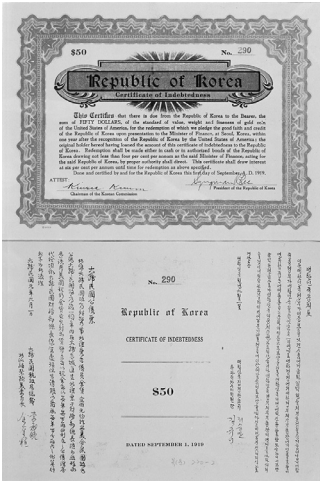
독립기념관 소장, 자료번호 1-A00029-037

안창호가 고안한 흥사단기이다. 흥사단의 사(士)는 문사와 무사를 구별 없이 애국자를 길러낸다는 의미이다. 사(士)는 기러기 모양으로 그려 넣었는데, 이는 기러기가 떼를 지어 날며 서로 호응하며 질서를 잘 지키는 새여서 단결과 협동을 의미한다.



현재 단기를 살펴보면 오른쪽 아래 칸에는 ‘무실’을 뜻하는 노란색, 오른쪽 위 칸과 기러기는 ‘역행’을 뜻하는 빨간색, 왼쪽 원 바깥쪽 칸은 ‘용감’을 뜻하는 파란색 그리고 원에는 ‘충의’를 의미하는 하얀색으로 채워져 있다.

⑨ 독립공채



독립기념관 소장, 자료번호 5-000220-000

대한민국임시정부가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공채이다. (※교재에는 1159번 독립공채(5\$)로 기재되어 있으나, 교수학습자료에는 290번 독립공채(50\$) 사진(앞, 뒤)를 넣었다.)

미국 *구미위원부에서 발행한 것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독립운동 활동을 위해 일정 금액의 공채를 샀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서이다. 앞면은 영문으로, 뒷면은 한글과 한문으로 쓰여있는데, 미국정부가 대한민국을 승인한지(즉 독립한지) 1년 이내에 증서를 서울의 재무부로 제출하면 해당 금액을 반환할 것이며, 이자는 연간 6%라는 내용이다. 증서의 발행일은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세워진 해인 1919년 9월 1일이며, 증서를 보증하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집정관총재인 이승만과 특파주차구미위원장인 김규식(교재의 것은 서재필)의 사인이 되어있다.

*구미위원부는 이승만이 한성정부 집정관총재의 직권으로 구미열강을 상대로 외교 및 선전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1919년 8월 25일 미국 워싱턴에서 설립하였다. 이승만은 3·1독립운동이 일어난 뒤 상하이에서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는 국무총리로 임명되었으나 서울에서 국민대회 이름으로 발표된 한성정부에서는 집정관총재로 임명되었다. 구미위원부는 교민들로부터 재정 수합권을 행사하였다. 9월에 상하이에서 통합정부가 출범하고 이승만이 임시대통령이 됨에 따라 구미위원부는 임시정부의 공식 기구가 되었다. 김규식이 초대 위원장이었고, 1921년 4월 26일부터는 서재필이 위원장을 맡았다.

독립공채 뒷면의 흘림체로 쓰인 한글을 바로 쓰면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공채표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이 증표를 가진 사람에게 금화 일백원을 채부한 것을 증거함이니 북미합중국 정부가 대한민국을 승인한 후 1개년 내로 대한 경성에서 대한정부 재무부 총장에게 이 표를 들이면 곧 합중국에서 통용하는 금화의 대등으로 보상하기를 대한민국의 명예와 신용으로 담보하노니 이 보상 금액은 현금으로나 대한민국의 공채증권으로 대신하거나 대한민국 정부 재무부총장의 편의를 따라 처리할 것이며 이식은 소불하매 연에 백분지 4로 정하며 이상에 말한 대로 보상할 때까지는 매년 백분지 6의 이식으로 계산함.

대한민국 원년 9월 1일

대한민국집정관총재 이승만
특파주차구미위원장 김규식

*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발행한 독립공채는 한국이 독립을 이룬 뒤 대한민국 정부에서 갚아서 돌려주었다. 1983년 ‘독립공채 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2000년까지 총 3차례의 신고기간 동안 57건, 3억4천여만원을 돈으로 바꿔주었다. 또한 북한에 거주하거나 한국과 수교하지 않은 나라에 거주하여 신고할 수 없었던 사람에 대해서는 신고기간을 따로 정하도록 하여 통일 후도 대비하고 있다.

⑩ 『독립신문』에 담긴 안창호 연설(1920. 1. 8.)



※본문 내용이 많아 군사편과 통일편만 실음

병이 있어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날 우리 국민이 단연코 실행할 6대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군사, 외교, 교육, 사법, 재정, 통일입니다. 본제에 들어가기 전에 몇 마디 다른 말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와 인민의 관계 : 생략

군사(軍事)

이제부터 본론에 들어가려 합니다.

이 6대 사업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단행하려면 지성스러운 연구가 있어야 하며, 그런 후에야 명확한 판단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의 사업은 강포한 일본을 파괴하고 잃었던 국가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사업에 어찌 심각한 연구가 필요하지 아니하겠습니까?

물노니 여러분은 매일 몇 번씩이나 국가를 위하여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날마다 시간마다 생각하고 연구해야 할 것이외다. 혹자는 말하기를 저마다 생각하면 기견(奇見:기이한 의견이나 견해)이 백출하리라 하나 지성으로 연구한 경험이 있는 자는 결코 기견을 세우지 않습니다.

모르는 자가 흔히 생각 없이 남이 무슨 말을 하면 ‘아니오, 아니오’ 합니다.

우리가 당면한 대문제는 우리 독립 운동을 평화적으로 계속하느냐 아니면 방침을 고쳐 전쟁을 하느냐입니다. 평화 수단을 주장하는 이나 전쟁을 주장하는 이나 그 성충은 하나입니다.

평화론자는 말하기를, 우리들은 의사를 발표할 뿐이니 피아으 행세를 비교하건대 전쟁은 계란으로 바위 치기와 같으니 차라리 전혀 세계의 여론에 소(訴)함만 같지 못하다 합니다.

주전파(主戰派:전쟁을 주장하는 파)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한인이 전쟁을 선포한다고 해서 결코 과격파의 혐의를 받지는 않으리라. 남은 남의 독립을 위하여서도 싸우거든, 제가 제 나라 독립을 위하여 싸움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는가. 또 적과 우리의 세력을 비교함은 어리석은 의론이니, 우리는 승리와 실패를 고려할 바가 아니라, 내 동포를 죽이고, 태우고, 욕함을 보고 죽을 결심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니, 우리는 의리로나 인정으로나 싸우지 않을 수 없다. 또 일본의 현상은 일본 유사 이래로 가장 허약한 지위에 처하여 외원내강(外怨內羌)의 격렬함이 극에 달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싸우면 승리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우리는 시기로 보든지, 의리로 보든지 싸우지 않으면 안 될 때라고 단정합니다.

그러나 함부로 나갈까, 준비를 완성한 후에 나갈까는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혁명사업은 타산적으로 할 수 없으니, 준비를 기다릴 수 없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는 필요합니다.

물론 내가 준비라 함은 결코 적의 역량에 비할 만한 준비를 칭함이 아니지만 그래도 절대로 준비는 필요합니다. 편싸움에도 구성원들이 서로 모여서 작전 계획에 부심합니다. 그런데 무준비하게 나아가려 함은 독립 전쟁을 너무 경시하기 때문입니다. 군사 1명에 1일 20전이라 하여도 1만 명을 먹이려면 1개월에 6만 원이나 소요됩니다. 준비 없이 전쟁을 시작하면 적에게 죽기 전에 굶어 죽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전쟁을 찬성하거든 절대로 준비가 필요한 줄을 깨달으십시오. 혹자는 말하기를 “준비, 준비 하지 마라, 과거 10년간을 준비하노라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지 아니하였느냐”합니다. 그러나 과거 10년간에 못 나간 것은 준비한다 하여 못 나간 것이 아니고 나간다, 나간다 하면서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나간 것입니다. 나간다, 나간다 하는 대신에 준비한다, 준비한다 하였던들 벌써 나가게 되었을 줄 믿습니다.(박수)

대포 · 소총 · 비행기 여러 가지로 준비할 것이 많습니다. 다만, 먼저 준비할 것은 제국시대의 군인이나, 의병이나 기타 군사의 지식 경험이 있는 자를 조사, 통일해야 할 것입니다. (박수)

없던 군대를 새로 조직하여 싸우려 하니 군사에 관계 있는 자들이 다 모여서 작전을 계획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서북간도(西北間島)의 장사(壯士)에게 묻노니, 네가 능히 독력으로 일본을 당하겠느냐, 진실로 네가 일본과 싸우려거든 마땅히 우리와 합하여 하라. 혹 정부의 무력함을 깨닫고 우리와 합하면 너의 정부는 유력하리라. 우리 민족 전체가 합하여도 오히려 외국의 힘까지 끌어와야 하겠거늘, 하물며 대한인끼리도 합하지 아니하고 무슨 일이 되리요?

만일 그대가 진실로 독립전쟁을 주장한다면 반드시 일제히 이동휘(李東輝)의 명령에 복종해야 할 것이오. (박수 갈채)

다음에는 훈련입니다. 용기 있는 이들은 되는 대로 들고 나간다 합니다. 정말 그런 생각이 있거든 배우십시오. 우리에게 훈련은 절대로 필요합니다. 전술을 배우십시오. 그러나 정신적 훈련이 더욱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졌다 할지라도 정신상 단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좋은 무기도 가지지 못했으니 그 얼마나 정신 훈련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정사를 실시하려거든 국민개병주의라야 합니다. 독립전쟁이 공상이 아닌 사실이 되게 하려면 대한 2천만 남녀가 다 군인이 돼야 합니다. (박수 갈채)

그렇다면 그 방법이 어떠해야 할까요? 선전을 잘함에 있습니다. 각지에 다니면서 입으로, 붓으로 국민개병주의를 선전하고 실시해야 합니다. 글보다가도, 입보다가도 가장 유력한 것은 몸으로 하는 선전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다 군사교육을 받으시다. 매일 한 시간씩이라도 배웁시다. (박수) 나도 결심했습니다. 오늘부터 다만 30분씩이라도 군사학을 배우면 대한인이요, 불연하면 대한인이 아닙니다. (갈채) 배우려면 배울 수 있습니다. (갈채) 여자들도 배워야 합니다. (갈채) 군사적 훈련을 아니 받는 자는 국민개병주의에 반대하는 자요, 국민개병주의에 반대하는 자는 독립전쟁을 반대하는 자요, 독립전쟁에 반대하는 자는 독립에 반대하는 자입니다. (박수 갈채) 명일부터 각각 군사교육에 등록하게 하십시오.

오늘 내 건강이 못 건디게 되었습니다. 죄송하나 오는 월요일 오후 7시에 다시 모여주시겠습니까?

(1920년 1월 3일, 상해교포들의 신년 축하회 연설)

지난 밤을 난 매우 분하게 생각합니다. 말하다가 기운이 탈진하여 중단하기는 이것이 처음입니다.

남의 나라는 남의 나라를 위하여 싸우거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싸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우리는 의리로든지, 인정으로든지 싸워야 합니다. 나는 전일에 이러한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서 독립을 완성하고 한성에 들어가보기를 소망한다는 말을……. 이것은 대단히 기쁜 일이지만, 대한의 독립을 위해 가까이 죽을 결심이 있어야 독립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마다 죽겠다 하지만 정말 죽을 때에는 생명이 아까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노예의 수치를 절실히 깨닫는다면 죽음을 무서워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박수) 살아서 독립의 영광을 보려 하지 말고 죽어서 독립의 거름이 됩시다. 입으로 독립군이 되지 말고 몸으로 독립군이 됩시다. 그리하여 아무리 하여서라도 독립전쟁을 반드시 이루기를 결심해야 하겠습니다.

전투적 전쟁을 오게 하기 위하여는 평화적 전쟁을 계속해야 합니다. 평화적 전쟁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만세 운동이 그것입니다.

물론 만세로만 독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만세의 힘은 심히 위대하여 안으로는 전 국민을 동

원하였고, 밖으로는 전 세계를 동원하였습니다. 과거엔 미국 인민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네 정부를 책려하더니 지금은 도리어 의원(議院)과 정부가 인민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나는 상의원(上議院)에서 우리를 위하여 자그마한 책자를 돌리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 역시 평화적 전쟁의 효과가 아니겠습니까. 대한 동포로서 적의 관리 된 자를 퇴직하게 하는 것도 평화적 전쟁입니다.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적에게 납세를 거절하고 대한민국 정부에게 납세케 할 것, 일본의 기장(旗章)을 사용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기장을 사용할 것, 가급적 일화(日貨)를 배척할 것, 일본 관청에 송사(訟事), 기타의 교섭을 단절할 것 —— 이런 것도 다 평화적 전쟁이요, 이것도 힘있는 전쟁이 아니겠습니까.

국민 전부가 아니고 일부만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효력이 어떠하겠습니까? 혹 이것으로만 아니 된다 하실 분도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전이 개(開)하기까지는 그것을 계속해야 합니다. 이러한 평화적 전쟁에도 수십만의 생명을 희생해야 합니다. 이것도 독립전쟁이외다. (박수)

외교, 교육, 사법(司法),재정(財政) : 생략

통일

내 입으로 통일이란 말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심상한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군사나 외교나 무엇 무엇 모든 것을 다 한다 하더라도 재전(財錢)과 통일이 없이는 안 됩니다. 인구와 금력과 지력이 아무리 많더라도 통일이 부족하면 망하는 것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지력이나 금력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데도 10년간 남의 노예로 있던 자가 아직도 완전히 통일이 못 되었다하면 어찌 된 일입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대한 민족은 통일이 되어야 할 것이외다. (박수)

만일 통일이 못 되면 어찌 될 것입니까? (유정근 씨에게 기립하기를 청하고) 이제 유정근 씨의 사지가 떨어지면 힘이 있겠습니까? 제가 잘났다, 제가 옳다 하고 다 달아난다 하면 그놈들은 어디 가서 살겠습니까? 대한이 망한다 하면, 그놈들은 혼자 살겠습니까? (박수) 우리는 실지로 통일하도록 결심이 서 있고 실행이 있어야 합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통일은 좋지만 우리 민족은 통일하지 못할 민족이라 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야말로 통일을 방해하는 자이외다.

우리 민족은 본래 통일된 민족입니다. 인종상 · 혈통상으로 보아 우리는 잡종이 아니요, 순수한 통일 민족입니다. 혹 이민족의 피가 섞인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모두 다 단족화(檀族化)하였습니다. 또 언어도 하나요, 문자나 습관도 하나입니다. 예의도 그러하고, 정치적으로도 중앙집권이 있다고, 결코 중국 모양으로 주권이 여러 지방, 혹은 부분에 나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은 통일한 국민인데, 왜 통일을 말해야만 합니까?

혹자는 지방열 때문에 통일이 안 된다 합니다. 그러나 나는 말을 꾸미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상 우리 나라에는 지방열이 없다고 단언합니다. 그 이유를 내가 말하겠습니다.

다른 나라에는 지방열이 있습니다. 가령 미국으로 보면 한 지방에 이로운 것이 다른 지방에 해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아직 전국이 단행하기 전에 어떤 한 주(州)가 금주를 단행하려 한다면, 양조업이 많은 다른 주는 이에 반대하여 피차에 싸울 것이니 이것이 지방열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과거나 현재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지방과 지방이 경쟁한 일이 없었습니다. 현재 우리 독립 운동에는 물론이지만 미래에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원래 지방열이란 지방이 광대한 나라에 있을 것이요, 우리 나라 같은 지방이 적

은 나라에는 있을 수 없는 것이외다.

혹자는 선배 노인들이 지방열을 만들었다 하나 기실은 일부 청년들이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가령 이 총리(李總理)를 봅시다. 그는 서울 사람을 대할 때는 서울 객쟁이라고 책하고, 평양 사람을 보면 평양 상놈이라고 하고, 개성 사람을 대해서는 개성놈의 자식이라 하였소이다. 이것을 보고 그는 지방열이 있는 자라 합니다. 그러나 그가 설립한 90여 개의 학교가 함경도에 있지 아니하고 대부분이 개성 · 강화에 있습니다. 개성 · 강화는 경기도, 충청도가 아닙니까?

또 이 내무총장과 이 재무총장으로 말하더라도 우선 그들의 실모를 보십시오. 그네에게 무슨 야심이 있겠습니까? 그네가 지방열 있는 것을 걱정할지언정 자기가 창도할 리 있겠습니까? 자기네가 누구를 배척하고선 받은 이(利)는 ‘홀로 된 것입니다’ 그리해놓고 말하기를 누구는 지방열이 있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 총장에게 지방열이 있겠습니까? 그 어른이 해외 10년에 동포 간에 절규한 것이 대동단결이외다. 그가 주재하던 동제사(同濟社)는 대한의 독립을 광복하려는 대한인의 단체지 결코 어느 지방 사람의 단체는 아니었습니다.

또 안창호가 서도(西道)를 위하여서만 일했다 합니다. 그만 해도 고맙기는 고맙소만 우리 나라가 얼마나 커서 황해도, 평안도를 가리겠습니까. 내가 혹 국가주의를 초월한 세계주의를 포회(抱懷)하였다 하는 나무람은 받을지언정 그런 지방열이야 있겠습니까? 또 가령 내가 지방열이 있다 합시다. 그러나 안창호에게 지방열이 있으면 있었지 모든 노인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말하는 통일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결코 지방의 통일을 의미함이 아니요, 오직 전 국민을 조직적으로 통일한다는 말입니다. 비록 유정근 씨의 사지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붙어 있더라도 내부의 신경과 혈액이 관통치 아니하면 안 될지니, 내가 말하는 통일은 이 신경과 혈액의 장애를 제거한다는 뜻입니다.

조금 무엇을 안다는 사람 중에 두 가지 병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국가를 위하여 단결하기보다 사정적(私情的) · 의형제적 통일을 이루려 합니다. 그래서 매양 조그마한 일에도 저 사람이 나를 만나, 잘 대접하나 하고 주의하여 살피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핍하면 싸움이 났네, 결렬이 되었네 합니다. 국민이 다 통일된다고 남의 아내를 제 아내와 같이 사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한다면 그는 괴한 농일 것입니다.

사정(私情)의 친고(親故)는 주의보다도 정성으로 되는 것이니, 모가 모와 친하다고 그것을 편당이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주의(主義)만 같으면 동지가 아니겠습니까. (박수) 내가 가령(李東寧) · 이시영(李始榮) 두 분과 저녁을 같이 먹는 것을 보면 얼굴을 찡그리며 말하기를 저놈들이 이동휘(李東輝) 씨를 따돌린다 하고, 그와 반대로 내가 만일 이 총리와 같이 먹으면 내무 · 재무 양 총장을 따돌린다 합니다. (웃음 소리) 세상이 이러하니까 우리는 자연 근신하게 되어 자유로 의사 발표나 교류하기를 꺼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과 사를 가리십시오. 2천만이 모두 동지로 통일하더라도 모두 사위나 의형제는 못 될 것이니 사위를 편당이라 하면 영원히 편당이 없어질 날이 없을 것이외다. (박수)

통일에 공적 통일과 사적 통일을 명확히 하면 곧 통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나 어디를 물론하고 통일이 안 되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결코 지방열도 아니요, 편당심도 아닙니다. 오직 그 중에 일하는 자 몇 사람이 남의 하풍(下風:사람이나 사물의 질이 낮음)에 서기를 싫어하는 까닭입니다. 그네들도 가서 물어보면 통일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고 통일 못되는 것은 다 남의 탓인 듯합니다. 남의 하풍에 아니 서려니까 자기 부하에 일단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일단을 만드는 방법은 이러합니다.

여러 사람을 모아놓고 “이런 걱정이 있나”하고 강개하게 말합니다. “왜요”하고 물으면 “꼭 통일을 해야 될 터인

데 모아(某也)가 악하여 통일이 안 된다” 합니다. 그러면 통일을 바라는 여러 동포들은 대단히 분개하여 그 사람에게 복종하여 그 모야를 공격하고 배척합니다. 이리하여 그의 야심은 성공되고, 통일은 파괴됩니다. (박수) 통일의 최후, 또 최대한 요건은 복종입니다. 대한 민족이 통일한 후에야 자유도 있고 독립도 있습니다. 정부 직원이 인민의 명령을 복종치 아니하면 역적이 되거니와, 국민 각 개인이 정부의 명령을 복종치 아니함도 적입니다. (박수)

국민의 명령이란 결코 민단이나, 청년단이나, 기타 어느 일개 단체의 명령이 아닙니다. 국민이 정부를 명령하는 기관은 오직 의정원이 있을 뿐입니다. 정부가 국민의 명령을 받아 의정원을 통일한 후 일단 인민에게 발표한 이상 인민은 절대로 이에 복종해야 합니다.

정부는 개인인 인민의 집합의 중심이요, 또 주권자인 국민의 주권 행사의 기관입니다. 당초에 정부를 설립하는 본의가 절대로 이에 복종할 것을 예상함이니, 혁명의 본의 또한 정부를 절대로 복종하는 주지에서 나온 것입니다.

불량한 자연인을 집어내고, 선량한 자연인을 대입함이 혁명입니다. 그러므로 자연인인 정부 직원이 국민의 명령을 불복함도 역적이지만, 정부라는 기관의 명령을 불복하는 인민도 역적입니다.

직원이니, 인민이니 하는 말을 사용했습니다만, 독립 운동을 하는 점으로 보면, 우리의 독립을 위하여 나선 자는 다 동지가 아니겠습니까, 같이 죽을 자가 아니겠습니까, 정부는 어떤 의미로 보면 독립 운동의 본부니 우리 모든 동지가 그 아래로 모이면 통일이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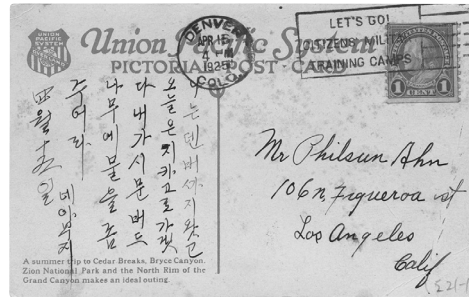
나는 진정으로 말하지만 이 대통령과 이 국무총리에게 충성으로 복종합니다. 나는 두 어른의 결점을 잘 압니다. 아마 나만큼 잘 아는 사람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충성으로 그네들에게 복종합니다. 누구를 갖다놓든지 우리 주권자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우리끼리 복종하지 아니하면 가인(嘉仁)의 복종에서 떠날 날이 없습니다. (박수)

복종 아니하려는 자는 대개 자기가 두령이 되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는 결코 독력으로 독립한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통일하면 독립하고, 아니하면 못 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 중에 급하고 급한 것이 통일이요, 구할 것이 통일이외다.

우리 민족 중 구태여 인격과 역량이 위대한 자를 찾지 마십시오. 그런 인물을 찾는 자는 혹 동경에 있는 적진 중으로 가기 쉬울 자입니다. 가인은 비록 인격이 천충만충이라 하더라도 놀려야 합니다. 우리 동포끼리는 고개를 숙이고 복종해야 합니다. 독립은 독립이지만 내가 어찌 네 밑으로 가랴, 하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이동휘가 왜(倭)와 통하는 일이 있거든 나와 함께 그를 죽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나와 함께 그의 명령에 복종합니다. 국가에는 복종하되 자연인에게 복종하랴, 하시겠지만, 국가는 정부를 통하여, 자연인을 통하여 비로소 명령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권을 위탁한 자연인을 복종함이 국가를 복종함입니다. 저마다 자유, 자유 하면 망합니다. 지금은 무슨 명령에나 복종해야 합니다. 무슨 명령에나 다 “네” 해야 합니다.

대전 중 미국에서 식량총감(食糧總監)이 사탕과 맥분 절용(節用)의 명령을 발하였을 때, 미국인은 두말 없이 복종하였습니다. 개업한 의사에게 정부가 종군하기를 명할 때에 그네는 두말 없이 문을 잠가놓고 나서 법국 전선(法國戰線)으로 나갔습니다. 만일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미국은 망하였을 것입니다. (박수)

⑪ 안창호 엽서와 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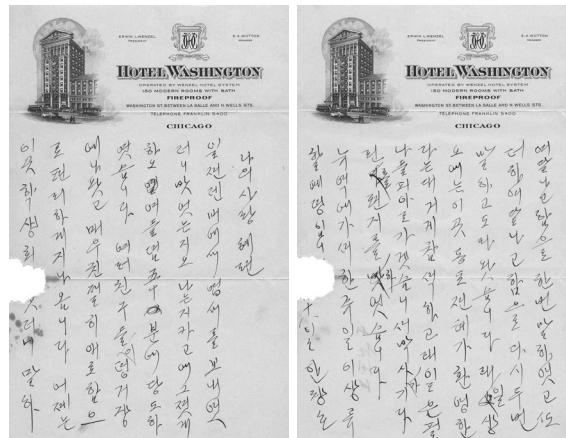


독립기념관 소장, 자료번호 1-A00021-001

덴버에서 안창호가 둘째아들 필선에게 보낸 1925년 4월 15일자 엽서이다.

유니온 퍼시픽 철도회사의 그림엽서를 사용했다. (발신지역 스탬프로 확인 가능)

“나는 덴버까지 왔고 오늘은 시카고까지 가겠다. 내가 심은 버드나무에 물을 좀 주어라. 4월 15일 네 아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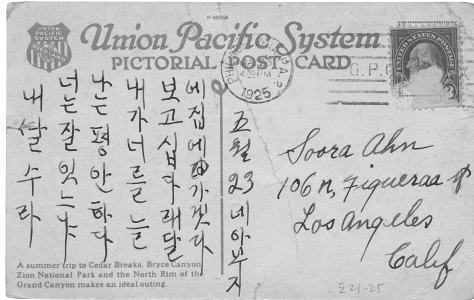
독립기념관 소장, 자료번호 1-A00021-007

시카고에서 안창호가 이해련에게 보낸 1925년 5월 18일자 편지이다. 워싱턴 호텔의 편지지를 사용하였다.

※한글 교재 일부에 일자가 잘못 기재되어있는 것은 아이들이 수정하도록 지도

나의 사랑 해련

일전 덴버에서 엽서를 보내었는데 받았는지요. 나는 시카고에 그저께 하오(오후) 8시 50분에 당도하였습니다. 여러 친구들이 정거장에 나왔고 매우 친절히 애호(사랑하고 좋아함)하여 편리하게 지냅니다. 어제는 이곳 학생회에 갔더니 말하여 말하여 달라고 하므로 한번 말하였고 또 더하여 달라고 함으로 다시 두 번 말하고 돌아왔습니다. 내일 상오(오전)에는 이 곳 동포 전체가 환영한다는 데 거기에 참석하고 내일은 필라델피아로 가겠으니 서박사(서재필)가 기다린다는 편지를 하였습니다. 뉴욕에 가서 한주일 이상 머무를 예정입니다.



독립기념관 소장, 자료번호 1-A00021-002

“내 딸 수라 너는 잘 있느냐 나는 평안하다. 내가 너를 늘 보고싶다. 내달에 집에 가겠다. 5월 23일 네 아버지”

* 안창호의 가족



안창호, 안창호 부인 이해련(당시 막내 필영을 임신 중이었음), 첫째 아들 필립, 둘째 아들 필선, 첫째 딸 수산, 둘째 딸 수라



미군에 입대하는 삼남매(워싱턴 D.C. 1944) : 왼쪽 부터 필영, 필립, 수산

필라델피아에서 안창호가 둘째 딸 수라에게 보낸 1925년 5월 23일자 엽서이다.
(발신지역 스탬프로 확인 가능)

1926년 미국을 떠난 안창호는 자녀들에게 “훌륭한 미국인이 되어라 하지만 한국인의 뿌리를 잊지마라.” 말을 남겼다. 다섯 형제는 유언이 되어버린 그 말을 새기며 살았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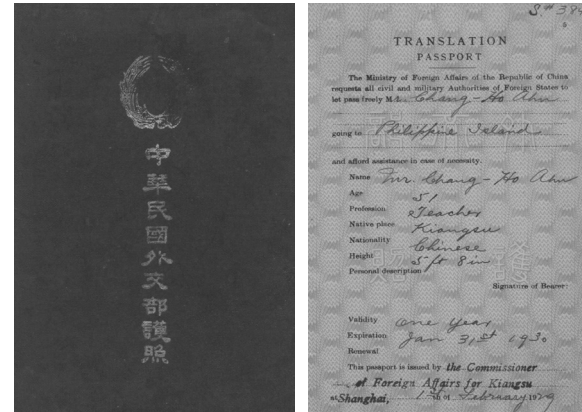
다섯 자녀 중 셋은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마자 자원해서 미군에 입대했는데, 사진 속 필영, 필립, 수산이다.

첫째 딸 안수산은 동양계 여성으로 미해군 최초의 여성 포격술 장교가 되었고, 또한 냉전 시절에는 소련을 상대로 300여명의 정보 분석가를 활약해 미국을 위해 복무하였다. 셋째 아들 안필영(랄프)은 수산과 함께 해군에 복무하였다.

첫째 아들 안필립은 헐리우드 영화배우로 헐리우드의 The Walk of Fame에도 그 이름이 새겨져 있다. 둘째 아들 안필선은 한 때 캘리포니아주 국방경위군 소속 한 인경위대(맹호부대)에서 근무하다가 항공사 엔지니어가 되었고, 둘째 딸 안수라도 식당사업을 하며 한인사회 발전에 기여했다.

1926년 미국을 떠난 안창호는 자녀들에게 “훌륭한 미국인이 돼라. 하지만 한국인의 정신을 잊지마라.” 말을 남겼다.

② 안창호 중국 호조(여권)



독립기념관 소장, 자료번호 1-A00029-017 파일 4~23

안창호가 중국 체류 중 1929년 필리핀을 시찰하러 갈 때 사용한 중국(중화민국) 호조(護照, passport)이다. 이 호조는 안창호에게 필리핀 여행을 허가하는 내용으로 1929년(중화민국 18년) 2월 1일자로 중국 중화민국 외교부 장쑤성(江蘇, Kingsu) 지점에서 발급되었다. 안창호의 한자 이름은 ‘晏彰昊’, (여권 내지 1 페이지의 한자 이름인 안영호(晏影昊)의 ‘영(影)’은 ‘창(彰)’의 오기로 보인다) 나

이는 51세, 직업은 교원, 출생지는 장쑤(강소), 국적은 중화민국, 신장은 5척 8촌, 사용기간은 1년으로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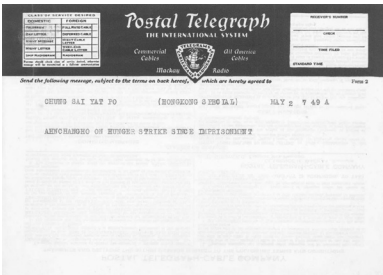
내지 5페이지의 영어 번역 페이지에는 호조의 만기가 1930년 1월 31일이라는 점과 호조를 발급한 장쑤(강소) 지점이 상하이에 있다는 사실이 더 기재되어 있다. 영어 번역 페이지가 사용된 것은 당시 필리핀이 미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이며, 안창호는 미국 영사관의 여행권(비자)도 받았다.

안창호가 중국 국적으로 중국 호조를 사용한 것은 1924년 11월 중국에서 잠시 미국으로 갔을 때부터이다. 이에 앞서 1922년 안창호는 중국에서 원활한 독립운동을 펼치기 위해 중국에 귀화했다. 1926년에 미국에서 다시 중국으로 돌아와 만주 등을 오가며 독립운동을 하던 안창호는 1929년 50여 일간 필리핀 각지를 시찰했다. 필리핀을 방문한 가장 중요한 목적은 만주에 사는 한국인을 필리핀으로 이주시켜 이상촌을 건설하고 독립운동의 기지를 만드는 일이었다. 안창호는 필리핀 총독부의 이민국장을 만나 협의도 했으나 일본 비자를 받아야 하고, 이주 자금을 요구하는 등의 조건이 맞지 않아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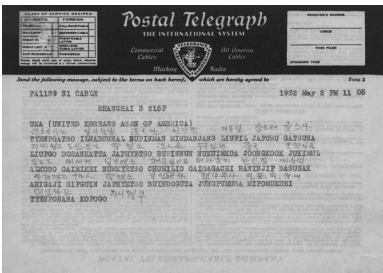
〈참고문헌〉 김도형, 「도산 안창호의 ‘여행권’을 통해 본 독립운동 행적」, 한국독립운동사연구52, 2015.

⑬ 안창호 체포 전보문 및 수형기록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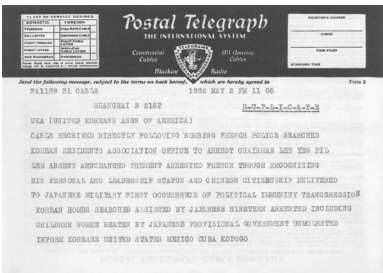
○ 안창호 관련 전보문



독립기념관 소장, 자료번호 1-A00030-008



독립기념관 소장, 자료번호 1-A00030-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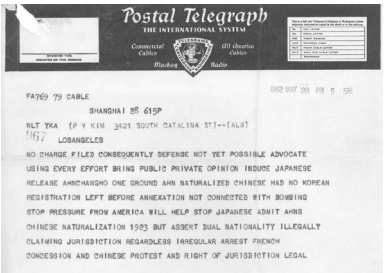
독립기념관 소장, 자료번호 1-A00030-005

1932년 5월 2일 오전 7시 49분에 미국에서 받은 전보이다. 안창호가 (윤봉길의거 후) 체포되어 단식투쟁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1932년 5월 2일, 오후 11시 5분에 상하이 대한민국임시 정부(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KOPOKO)에서 보내져 L.A.대한인국민회(United Koreans Association, UKA)가 받은 전보이다. ※대한인국민회의 영문은 Korean National Asoosociation, KNA로 일반적으로 쓰이나 전문에서는 UKA이라 기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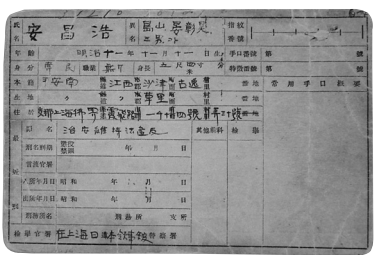
프랑스 경찰당국이 윤봉길의 홍구공원 폭탄사건과 관련하여 단장 이유필을 체포하기 위하여 집을 수색했고 이 과정에서 안창호가 체포되었으며, 그의 정치적 신분과 중국 시민권 소지 등을 고려하여 일본경찰에 신변을 인도했음을 알리는 내용 등이다. 특이한 점은 전보문 내용이 한글 발음 나는 대로 영문 표기가 되어있다는 것이다.

위의 전보문과 같은 시간에 같은 내용을 영문으로 복사하여 보낸 것이다.



독립기념관 소장, 자료번호 1-A00030-025

○ 안창호 수형기록카드



독립기념관 소장, 자료번호 1-007598-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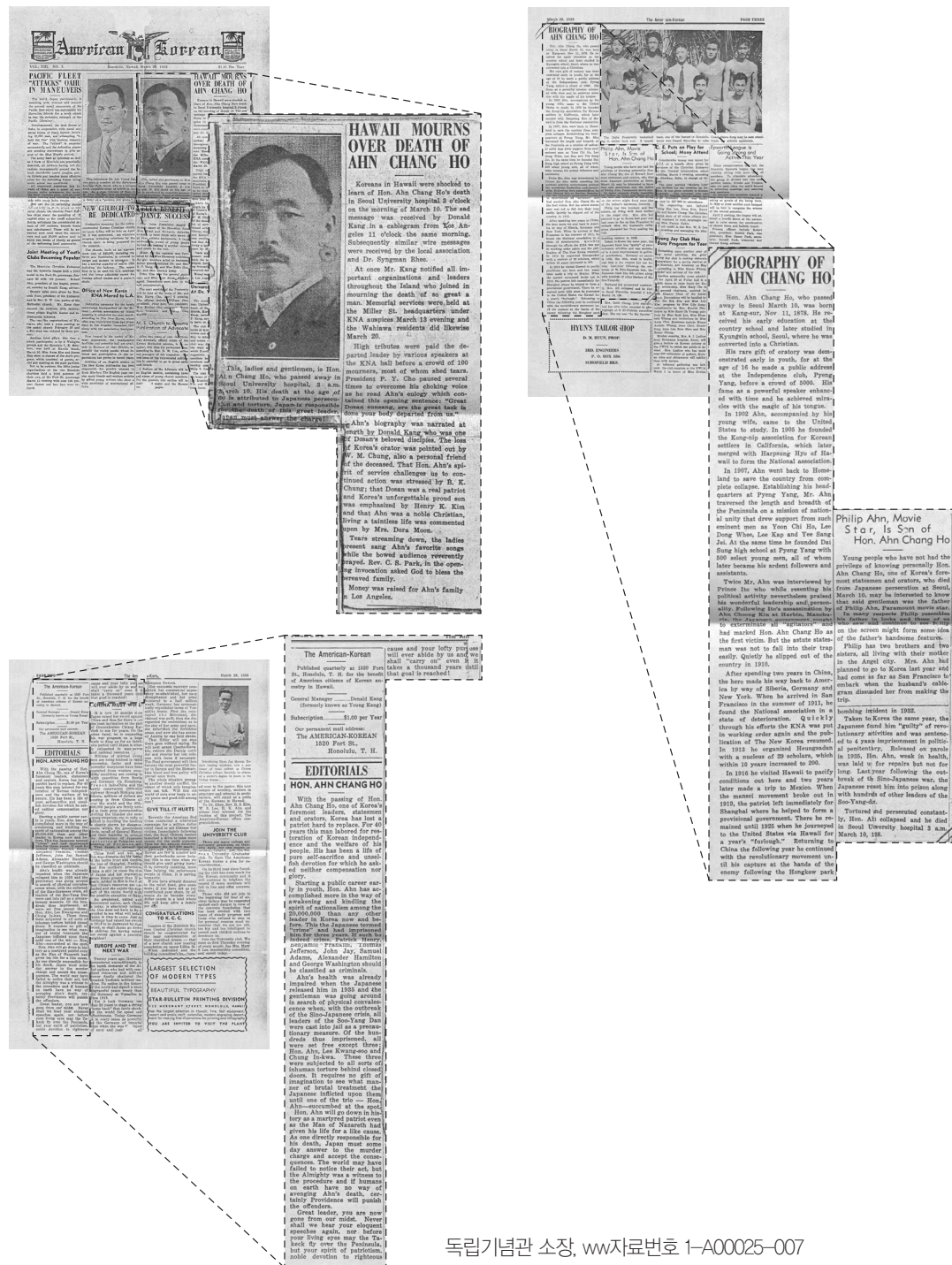
1932년 5월 28일 오후 5시 58분에 상하이에서 보내져 L.A.에 있는 흥사단(Young Korean Academy, YKA) 단원 김병윤이 받은 전보이다. 상하이에서 체포된 안창호가 아직 고발되지 않아 변론이 아직 불가능하지만 안창호가 중국에 귀화한 중국 시민임을 내세워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또한 일본이 안창호의 중국 귀화를 인정하면서도 이중 국적을 불법을 주장하면서, 프랑스 조계에서의 변칙적 체포 및 중국인으로서의 안창호의 권리를 무시하고 사법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된 안창호에 대한 기록표이다. 죄명은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형기와 선고기관은 적혀있지 않으며, 검거기관으로 상하이 일본영사관 경찰서로 기록되어 있다.

⑭ 하와이 『아메리카 코리아』 신문

하와이에서 발행되는 신문인 『아메리카 코리안』 1938년 3월 28일 자이다.

안창호의 죽음을 애도하고, 일본의 책임에 대해 논하는 사설, 안창호의 일대기, 안창호 첫째 아들인 영화배우 안필립 소개로 구성되어 있다.



5) 참고자료

□ 동영상 자료

①가슴벅찬 우리 역사(1분 16초) : <http://www.ebs.co.kr/tv/show?prodId=109099&lectId=3075080>

②도산 안창호기념관(13분 41초) : <https://www.youtube.com/watch?v=Q1aEBUZBhl0>

③KBS 한국의 유산 175회(1분 18초) : <https://www.youtube.com/watch?v=vT7wqBk8J5o>

□ 안창호 자료 관련 홈페이지

①대한인국민회 기념재단(KNA Memorial Foundation) : <https://knamf.org/>

②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정보시스템 : <http://search.i815.or.kr/>

③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재외동포) : <http://contents.history.go.kr>

총괄 : 김경미 교육센터 실장

기획 · 원고 : 김경미 교육센터 실장, 임정은 학예연구관

자문 · 검토 : 이명화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자료수집 : 김보미 에듀케이터

수업용 프리젠테이션 기획 · 디자인 : 김수연 학예연구사

발행일 : 2017. 7. 31.

발행처 : 독립기념관

발행인 : 윤주경 독립기념관 관장

이 인쇄물은 독립기념관과 재외동포재단이 함께하는 재외동포사업 교재입니다.

copyright@2017 The Independence Hall of Korea All right reserved.